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1월 1일 화요일 (주간) 제 350 호



법석 초대 **진제 스님** 부산 해운정사 조실



"화두란 앉아서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일을 하는 가운데 근본 당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일심(一心) 중에 있어요. 이걸 알면 먼 데서 구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낮추고, 만 사람을 우러러 보세요. 그러면 언제나 평화로울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16·17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전문직 불자들의 전법 서원

"불교대학에서 배운 부처님 말씀이 너무 좋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적절히 활용해 법조인들은 물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재소자에게도 불법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실시한 제7회 포교사고시에 합격한 강정호 변호사(48). 강 변호사는 울산 정토불교대학을 다니며 포교사고시를 준비했고 이번에 당당히 합격, 포교사의 꿈을 펼치게 됐다. 구랍 26일 발표된 제7회 포교사고시 합격자 중에는 강 변호사처럼 전문직에 종사하는 불자들이 많다고 포교원 관계자는 귀띔한다.



이는 대부분 퇴임 후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포교사고시에 응시했던 불자들이 많았던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이번 포교사 시험에는 경찰, 대학, 군부대, 교도소, 은행 등에서 일하며 포교사의 꿈을 실현한 젊은 불자들이 많이 합격했다.

이들 대부분은 교수, 지점장, 대령, 경위 등과 같이 해당 직종의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어, 앞으로 포교 일선에서 올림 성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년 전 통신반에 등록하고 포교사의 꿈을 키웠다"는 김무일 국방대학 교수(58·조계사 불교대학)는 "대학 강의와 군부대 관련 저널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국방대학에는 불자회가 없다. 연수를 받고 조계종 포교사로 등록되면, 대학 불자회를 만드는 일에도 관심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역시 이번에 합격한, 부산지방경찰청 불교회 부회장 심태섭 경위(47·대광불교대학)는 "정기법회나 성지순례와 같은 천편일률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불교회 회원들이 경전 공부와 봉사에 관심을 가지며 포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직경찰로서 이미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홍 씨는 "포교사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 전문 능력과 도덕적 품성을 갖춘 포교사들이 배치돼 직장직능 불자회를 지원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제7회 포교사 고시에는 605명이 응시해 312명이 합격했다. 합격자들은 19~20일, 2월 23~24일 두 차례 연수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얻게 된다.

오종욱(취재 1부 기자)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불서 읽기**

1. 불교서적을 한달에 몇 권정도 읽습니까?
   ①1권 이하 ②2권 ③3권 ④3권 이상
2. 주로 어떤 분야의 책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①수필류 ②경전관련 ③문화재관련 ④선
3. 불서를 선물로 주거나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준 적 있다 ②없다. ③받은 적 있다. ④없다.

설문 참여: 1월 3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51호 9면에 실습니다.



대왕암 해돋이 신라 문무왕(?~681) 수중릉 위로 새 아침이 솟고 있다. 죽어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던 대왕의 원은 천년 세월에도 바래지 않고 새 아침의 빛으로 살아나고 있다. 햇살 따라 비상하는 새의 날개짓에, 평화와 자비가 넘치는 한 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실어본다. 사진=박진우(사진 편집위원)

월드컵·주 5일 근무제 '포교 호재'

본지, 불교계 지도자 50명 설문조사
"주말법회·체험프로 늘려야" 44%

월드컵과 대선 등 올해 잇따를 국내외 커다란 행사들이 불교 포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이같은 기회를 호재로 삼기 위해서는 포교 프로그램 개발 및 사찰본연의 역할 강화 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내용은 본지가 조계·태고·천태·진각종의 총무(통리)원장과 부장을 포함한 스님 25명과 동국대·위덕대 총장 및 불교방송·TV 사장을 포함한 재가자 25명 등 교계 지도자 50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설문은 구랍 15일부터 10일간 인터뷰 및 서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내용은 월드컵, 주5일 근무제, 대선 및 지방 선거, 위성방송 개국, 경제여건 등 올해 최고 관심사인 5개 항목이 불교 포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며, 그에 따른 대비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관련기사 3면

이 다섯 가지 항목이 전체적으로 올해 포교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다소 도움이 될 것'(27명) '상당히 도움이 될 것'(6명)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다소 어려워질 것'(10명)이라는 부정적 전망보다 훨씬 우세했다.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7명이었다.

항목별로는 월드컵의 경우 응답자 중 45명이 포교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명만이 '악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46명이 '호재'로, 4명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는 등, 이 두 항목의 경우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월드컵이 외국인에게 한국불교를 알릴 좋은 기회이고,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서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선 및 지방선거 등 정치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24명이 '호재', 17명이 '악재'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9명이나 됐다. '호재' 전망이 우세한 이유는 정치인들이 불자들의 표심(票心)에 눈을 돌리면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140여개 채널의 디지털 위성방송 개국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 변화와 관련해 '호재'(25명)와 '악재'(22명)의 차이는 근소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교 홍보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는 견해와 미디어 환경이 열악한 불교계 현실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다.

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이것이 불교 포교에 '악재'(34명)가 될 것이라는 견해는 '호재'(16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한편 올해 포교환경 변화에 따른 대비책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는 주말법회 횟수를 늘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44%)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신도조직 활성화 등의 '사찰 기능 강화'(36%)와 사회봉사 등의 '불교의 사회적 역할 증대'(20%)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역사기념관 조계종, 3월 착공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3월에 착공한다. 조계종은 국회에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지원이 올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2월까지 건축인허가 문제를 마무리 하고, 기공식과 함께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사업은 이미 투여된 부지매입비 260억원과 건축비 380억원이 소요된다. 건축비 380억원 중 190억원은 올해(70억)와 내년(120억) 2년간에 걸쳐 정부보조로 이뤄진다.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뤘던 불교역사문화의 체계적 보호와 전승을 목적으로 조계사 경내에 대지 3,775평 연건평 5212평 지하4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불교방송 가청권 넓어져

서해 최북단 섬 연평도에서도 이제 불교방송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됐다.

불교방송(사장 김규철)이 구랍 26일 송신소를 남산에서 관악산으로 이전, 청취 구역이 2배로 확대됐다. 이에 동쪽으로는 경기도 용인에서 여주?이천과 강원도까지, 남쪽으로는 수원은 물론 오산과 평택, 충남북 일부지역까지 가청권이 확대돼 중부지방 전파 포교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송신소 이전으로 북한의 개성까지도 전파 송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교방송의 가청지역은 행정구역상 20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으로 10여개가 늘어나게 됐으며, 청취 가능 인구도 7백만명에서 2천 1백만명으로 4백만명이 증가하게 됐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신년 특집 32면 발행

불교지도자 임오년 신행계획 5면
나눔의 손잡기운동 '후원합시다' 12면
제7회 신행수기 당선작 발표 26·27면
인도·중국대륙의 불교바람 32면

색인집중 설문 '2002년 포교환경 변화' 3면
월드컵과 불교 6·7면 주 5일 근무제 8면
양대선거와 포교 9면 위성방송시대 10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새해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 광명이 충만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신년기원 大吉祥 玉龍子 龍馬圖

임오년 새해 풍요와 길상의 상징인 용마도를 대길상도의 大家 玉龍子 석지형 스님이 불교중흥의 원력으로 밤새워 한점한점 기도하며 조성하여 인연처에 전합니다. 玉龍子 대길상도는 주한 美國대사관 인도대사관을 비롯한 여러기관 단체에 전수되었으며 세계적 특허인증기관인 美國연방정부 특허청(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과 日本정부 특허청의 의장특허를 획득한 독창성과 높은품격, 국제적 보편성을 인증받은 玉龍子 석지형 스님의 세계적 작품입니다. 대길상도가 전하여지는 곳에 대길상 대성취 대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말·馬

범구비유경 제4권에 길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는바, 길상을 기도하며 조성한것이 길상도입니다. 그 가운데 받은 풍요와 행운 길상의 상징적 동물이며 불교에서 존중하는 만다라에도 馬寶로 표현됩니다. 또한 6관음가운데 하나인 馬頭관음의 의미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서양에서는 풍요의 여신 데메테르(Demeter)의 머리모습이 말의 형상으로 전하여옵니다.



龍馬行地塵沙開 萬馬長城圖 玉龍子 筆

⊙ 7회에 달하는 작품전을 통하여 KBS, MBC, SBS, 조선일보, 동아일보, 불교계 언론등 여러 매스컴을 통하여 국민과 불자에게 널리 알려진 玉龍子 석지형 스님의 품격높은 친필조성 작품입니다.
⊙ 다양한 구도와 규격의 작품으로 전합니다.
⊙ 대길상도는 기도축원 발원 불자님께 법공양으로 전합니다.
⊙ 정성으로 준비한 고품격 대길상 용마도 신년카렌다를 찰배하시는 불자님께 증정합니다
원하시는 불자님께는 우편으로 발송 증정합니다.
⊙ 호신불 목걸이, 육자대명왕진언목걸이, 대용마도 목걸이등을 증정하여 드립니다.

묘법연화경 대강좌

석지형스님은 10여년간 묘법연화경을 필에 1993년 BBS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불교계의 성지이신 학 여러분을 모시고 출간대법회를 여법봉행 전국의 인연사찰과 불자님들에게 법보시로 전하여 오고 있습니다. 각계 교수님의 특강과 석지형스님의 강론으로 뜨거운 열기속에 봉행되는 묘법연화경 대강좌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매주강좌 :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오후1시
◆ 동참불자님께 묘법연화경(고급양장본 819P)을 법보시로 증정합니다.

⊙ 국내외 각급 불교신행단체, 군법당, 각급학교등에 호신불목걸이 단주 대승경전등을 계속하여 법보시로 전합니다.

玉龍子대길상도의장 미국연방정부 특허청(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 日本정부 특허청 특허최종은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입니다 대장거입니다
玉龍子스님 대길상도는 전세계에 널리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서울소림정사·불교아카데미
소림불교아카데미총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TEL:511-6210~5
3443-9871~7, 3446-2158, 2185 FAX:511-6216

신년사설

한국불교의 잠재력 살리자

한국 불교는 어떤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가?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현대사회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인가? 불기 2546년을 맞으면서 또 새롭게 묻지 않을 수 없는 물음이다.

조선왕조의 불교 탄압과 일제 강점기의 수난, 그 뒤에 닥쳐온 서양 문명의 홍수를 견뎌 오면서 오늘의 불교는 그 역사적 질곡의 그늘을 가장 짙게 간직하고 있다. 어제 오늘 불자들이 민망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종단의 내부적 문제 등도 결국 알고 보면 그러한 역사적 질곡이 다른 모습들로 분장하고 나서는 면이 많다.

빨리 벗어던져야 할 그 역사적 질곡을 그토록 벗어던지지 못하고, 그에 겹쳐 현실 사회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불자들과 불교계의 나태와 방일 때문에 지금의 불교는 빈사상태의 거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도 거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통 종교 가운데서는 가장 큰 교세를 형성하고 있는 외형 때문이다. 과연 이 거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수없이 외쳐온 불교의 사회화, 대중화, 생활화 등의 구호들이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가? 승단의 수행 풍토 진작, 재가 불자들의 신행운동 등은 과연 실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불교는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변했으며, 그 구체적인 예증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얼핏 불교는 많이 변한 듯도 하고 또 변하지 않은 듯도 하다. 그 확실한 대답 없음이 다시 불자들을 갑갑하게 만들고 불교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변화란 것에 대하여 너무 급하고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 수많은 노력들이 어디 갈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에 확실히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불교를 느낄 수 있으리라고 믿어야 한다. 겨울 추녀에 매달린 고드름을 보라. 햇살이 비쳐 그것을 녹일 때, 끝에서 차츰 녹아서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녹다 보면 뿌리 부분이 녹아 툭 떨어져 내린다. 불교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노력도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을 변화 시킬 뿐만 아니라 불교의 병폐, 그 뿌리를 녹여내고 있으리라고 믿어보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날 고드름이 툭 떨어지는 것과 같이, 확실하게 변화된 불교의 새날이 우리 앞에 전개되리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희망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올해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헛된 꿈이 아니다. 언제 다 녹을까 싶던 고드름이 툭 떨어지듯이, 변화가 쌓여 가면 바로 내일이라도 어떤 비약적인 새 날이 오는 것이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 또 내일일 수 있다는 믿음으로 꾸준한 신행을 계속해야 한다.

이러한 희망에는 근거가 있다. 불교처럼 역사의 질곡을 벗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치유의 노력을 계속해 온 집단에는 그 자체의 역량이 쌓여 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많은 힘들이 쌓여져 왔다고 보아야 옳다. 물질적인 지원과 포교의 방법까지 외제를 차용해 와서 현실에서 눈에 띄는 비약을 보인 종교와 달리 그 동안 스스로 쌓아 온 잠재력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자. 그 믿음을 더더욱 힘찬 신행으로 드러내 보자.

올해에는 우리들의 잠재된 힘을 드러낼 무대도 많다. 월드컵 대회를 통해 한국이 세계적으로 열리는 해, 그 국제적인 무대에 불교의 열린 마음을 전하는 일도 큰 일이 될 것이다. 불교 내부의 문제에 연연해하지 말고, 눈을 밖으로 돌려 부처님의 큰 지혜 광명을 쓰려는 큰 자세를 지닌다면, 자연히 불교 안의 문제도 고드름 툭 떨어지듯 사라질 것이다. 그러한 한해가 되게 하기 위한 커다란 발원에 두 손 모으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l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우 110-07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전국비구니회관 완공

3년만에 서울 수서동에… 30년 숙원 풀어

스님 여성불자 교육·포교·복지 공간 활용

◇한국 비구니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전국비구니회관이 착공 3년만에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사진=고영배 기자



전국 7천여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전국비구니회관 건립불사가 드디어 마무리됐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우스님)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744번지에 들어선 전국비구니회관의 준공검사를 이달 중에 받고, 오는 초파일 이전에 대대적인 개관식을 봉행키로 했다. 99년 3월 공사에 착공한지 3년만에 비구니계의 근본도량이 마련됨으로써 비구니계의 교육, 포교, 복지불사가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불전 등에 대한 내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비구니회관은 대지 1천2백40평, 건평 2천5백60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반야용선(배) 모양의 현대식 건축물로 조성됐다.

대법당(만불전)과 교육관, 대강당, 강의실, 불교문화실, 도서관, 탁아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비구니회관은 종합불교회관으로서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에 대한 교육, 포교, 복지사업은 물론 청소년, 장애인, 지역민 등을 위한 사회복지 및 문화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번 비구니회관 건립불사는 85년 전국비구니회가 회관 건립을 발원한 이후 9년전 시유지를 불하받아 추진해왔으나, 이씨 종중부지 문제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더구나 IMF관리체제라는 국가적인 경제난에 직면해 불사금 부족 등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게된 것은 비구니회가 공심(公心)으로 화합해 삼보정재를 투명하게 관리해 온 덕분이었다는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준공이후 일주문 건립 등 도량정비가 남아있는 비구니회관은 앞으로 전국에 흩어진 비구니 스님들과 여성불교의 힘을 결집시켜 화합공동체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종무행정 등에서 소외되어 교육, 포교, 복지사업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온 비구니계의 근본도량으로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초기지가 될 전망이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우스님(정각사 주지)은 "한국 비구니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비구니회관 건립이 성취된 것은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 등 전국 7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지원과 정성으로 가능했다"며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자비행이 필요한 이 시대에 비구니 스님들이 포교와 전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화합분위기 이는 태고종

양측 고소·고발 취하 합의

태고종의 안정과 대화합을 모색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원장 운산)은 지난 12월 19일부터 28일까지 4차례 비상대책회의측 스님들과 만나 종단 안정과 화합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양측은 '상호 고소 고발건을 모두 취하하는 등 대화합을 위해 적극 나서자"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화합을 위한 종도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12월 한달동안 대전 대구 경북 충북 광주 전남 지역을 순회했으며, 이달 말까지 다른 지방도 순회,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태고종 총무원은 3일 오전 11시 총무원 설법전에서 열리는 임오년 신년 하례법회에 비상대책회의측 스님들을 동참시킬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현대만평

김 영 민



만중생을 부처님처럼…

정대스님 무궁화장

불교계 화합안정 공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은 지난 12월 27일 문화관광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발전 유공 종교인 국민훈장 전수식'에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사진). 정대스님은 불교계 화합과 안정을 이뤄낸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무산 스님(백담사 회주)은 동백장을, 법장 스님(수덕사 주지)과 범하스님(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춘광 스님(천태종 관문사 주지), 인공 스님(봉원사 주지)은 목련장을 각각 받았다.

한편 이번 전수식에서는 정대스님 등 불교계 6명 외에 이만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개신교 5명, 천주교 2명 등 모두 15명이 국민훈장을 받았다. 정부가 종교인만을 대상으로 국민훈장을 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철우 기자

"백제후손이 천황 생모였다"

日王 기자회견서 밝혀

일본 국왕이 "간무(桓武)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다"고 말했다.

아키히토(明仁) 일왕은 68세 생일을 맞은 지난 12월 23일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한일'양국의 문화 교류는 훗날 일본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일본 국왕이 한국과의 역사적 교류 사실을 들며 양국관계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아키히토 일왕은 "무령왕은 일본과의 관계가 깊고, 당시 일본에 오경(五經)박사가 대대로 초빙됐다"고 말하고, "무령왕의 아들 성명왕(聖明王)은 일본에 불교를 전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30면

김재경 기자

中 종교인 입당 허용추진

중국 공산당이 종교계 인사의 입당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종교정책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대만 일간지 중국시보(中國時報)는 지난 12월 25일 올 가을에 열리는 제16기 전국대표대회에서 종교계 인사들의 입당 문제가 주요 보고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시보는 또 종교와의 대립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이 상실되고 있다며 통제 일색의 종교정책에 변화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명우 기자

제보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홈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謹賀新年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종 정 영산 일공
부종정 유념 법신

총무원장 최법륜
총무부원장 선 진
재무부장 대 월
규정부장 대 천
사회부장 체 인
사업부장 체 도
사업국장 보 월

인천종무원장 법 원
충남종무원장 체 의
광주종무원장 혜 림
전남종무원장 호 연
부산종무원장 도 광
경남종무원장 은 혜
경북종무원장 불 선
대구종무원장 일 담

원로원부원장 송 산
원로 위원 선명, 효계
승정원장 보 인
중앙비구니회회장 대 월
포교원장 성 견

문화원장 정 관
교육원장 벽 봉
중앙종의회의장 성 관
중앙종의회부의장 천호, 인관
중앙종의회의원 정광, 대웅, 석천, 성욱, 보선, 혜민, 선덕, 진연, 체명, 체정

▶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전화 : 02) 853-0531 / FAX : 02) 853-0532

"호재·악재 변수 많아… 신선한 프로그램 개발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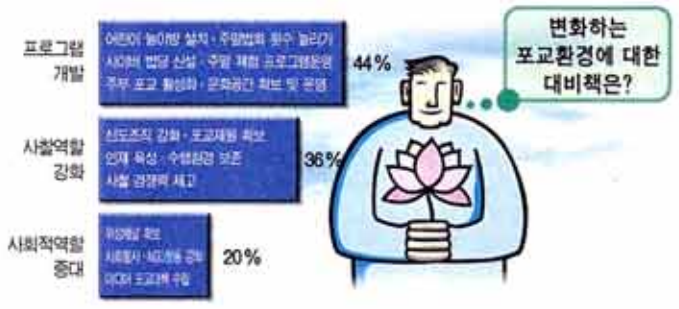
교계 지도자 50명 설문 '2002년 포교환경 변화'

올해는 월드컵 개최(5~6월), 주5일 근무제 도입(7월 예정), 대선(12월)과 지방선거(6월), 위성 방송 개국(3월 예정), 경제악화 가능성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로 장식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는 곧 불교 포교 환경이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국민의 관심이 온통 이들 현안에 쏠릴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들 사안이 포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불교계 지도자 50명을 대상으로 본지가 실시한 설문은 바로 이 현안들이 포교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미리 예측하고, 어떤 대비책이 마련돼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불교계 지도자 50인이 전망한 항목별 포교환경 예측.



그래픽 · 최정근

설문 분석

템플스테이 정착 위한 시험 무대 — 월드컵

도심사찰 공동화 예방 대책을 — 주 5일 근무제

불교가 선거에 휘둘려선 안된다 — 정치 환경

상업주의 경계…종교채널 내실화 — 위성TV 개국

◐ **월드컵** = 월드컵이 포교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인 이유는 한국불교를 외국에 알릴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었다. 월드컵을 '호재'로 꼽은 응답자 45명 중 절반이 넘는 28명이 이같은 이유를 꼽았는데, 여기에는 외국인에게 한국불교를 알리면서 저절로 내국인 포교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곁들여져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문화와 생활이 불교문화와 밀접해 월드컵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홍보해 줄 것이라는 견해도 7명이나 됐다.

그러나 '호재'로 전망한 응답자 대부분은 월드컵과 관련한 포교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월드컵을 호재로 삼는 불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주5일 근무제** = 가장 많은 응답자(46명)가 주5일 근무제를 '호재'로 꼽은 이유는 휴일이 늘어날 경우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46명 가운데 34명이 이같은 이유를 들었는데, 이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불교계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사찰이 생활에 찌들어 가고 있는 현대인이 즐겨찾는 휴식처로 자리매김할 경우 불교가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불교계의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심사찰의 공동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여가 문화의 확대로 신도들의 정기법회 참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정치환경 변화** = 대선과 지방선거 등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포교 전망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50명 가운데 24명이 '호재'로 지목한 반면, '악재'가 뒤를 잇는 등 정치가 비쥬얼 시대에 어필할 수 있고, 우리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반면 '악재'로 전망한 응답자들은 기독교계의 종교방송이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불교의 미디어 환경이 열악해 기독교에 비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채널이 다양해지는 만큼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거나, 상업주의로 인해 종교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도 있었다.

◐ **경제여건** = 경제가 악화될 가능성을 상정한 포교환경변화 여상 질문에서 '악재'(34명)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호재'로 본 응답자(7명)보다 많은 반면, 재가 지도자는 '악재'(7명) 보다는 '호재'(17명)로 판단한 응답자가 많았고, '중립'적 입장을 보인 9명중 8명이 스님이라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불교와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 스님이 재가자보다 곱지 않은 시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스님 가운데 3분의 1이 '중립'적 입장을 보인 것은 불교가 선거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 **미디어 환경 변화** = 미디어 환경 변화가 포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호재'(25명)와 '악재'(22명)가 팽팽했다. '호재'로 예상한 응답자들은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불교 홍보 기회가 많아지고, 그만큼 불교를 접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또 다양한 색채로 표현되는 불교문화의 이미지가 비쥬얼 시대에 어필할 수 있고, 우리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반면 '악재'로 전망한 응답자들은 기독교계의 종교방송이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불교의 미디어 환경이 열악해 기독교에 비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채널이 다양해지는 만큼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거나, 상업주의로 인해 종교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도 있었다.

◐ **경제여건** = 경제가 악화될 가능성을 상정한 포교환경변화 여상 질문에서 '악재'(34명)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호재'로 본 응답자(7명)보다 많은 반면, 재가 지도자는 '악재'(7명) 보다는 '호재'(17명)로 판단한 응답자가 많았고, '중립'적 입장을 보인 9명중 8명이 스님이라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불교와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 스님이 재가자보다 곱지 않은 시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스님 가운데 3분의 1이 '중립'적 입장을 보인 것은 불교가 선거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 **미디어 환경 변화** = 미디어 환경 변화가 포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호재'(25명)와 '악재'(22명)가 팽팽했다. '호재'로 예상한 응답자들은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불교 홍보 기회가 많아지고, 그만큼 불교를 접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또 다양한 색채로 표현되는 불교문화의 이미지가 비쥬얼 시대에 어필할 수 있고, 우리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반면 '악재'로 전망한 응답자들은 기독교계의 종교방송이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불교의 미디어 환경이 열악해 기독교에 비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채널이 다양해지는 만큼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거나, 상업주의로 인해 종교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도 있었다.

◐ **경제여건** = 경제가 악화될 가능성을 상정한 포교환경변화 여상 질문에서 '악재'(34명)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호재'로 본 응답자(7명)보다 많은 반면, 재가 지도자는 '악재'(7명) 보다는 '호재'(17명)로 판단한 응답자가 많았고, '중립'적 입장을 보인 9명중 8명이 스님이라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불교와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 스님이 재가자보다 곱지 않은 시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스님 가운데 3분의 1이 '중립'적 입장을 보인 것은 불교가 선거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 **미디어 환경 변화** = 미디어 환경 변화가 포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호재'(25명)와 '악재'(22명)가 팽팽했다. '호재'로 예상한 응답자들은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불교 홍보 기회가 많아지고, 그만큼 불교를 접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또 다양한 색채로 표현되는 불교문화의 이미지가 비쥬얼 시대에 어필할 수 있고, 우리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반면 '악재'로 전망한 응답자들은 기독교계의 종교방송이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불교의 미디어 환경이 열악해 기독교에 비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채널이 다양해지는 만큼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거나, 상업주의로 인해 종교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도 있었다.

◐ **경제여건** = 경제가 악화될 가능성을 상정한 포교환경변화 여상 질문에서 '악재'(34명)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호재'로 본 응답자(7명)보다 많은 반면, 재가 지도자는 '악재'(7명) 보다는 '호재'(17명)로 판단한 응답자가 많았고, '중립'적 입장을 보인 9명중 8명이 스님이라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불교와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 스님이 재가자보다 곱지 않은 시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스님 가운데 3분의 1이 '중립'적 입장을 보인 것은 불교가 선거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 **미디어 환경 변화** = 미디어 환경 변화가 포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호재'(25명)와 '악재'(22명)가 팽팽했다. '호재'로 예상한 응답자들은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불교 홍보 기회가 많아지고, 그만큼 불교를 접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또 다양한 색채로 표현되는 불교문화의 이미지가 비쥬얼 시대에 어필할 수 있고, 우리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반면 '악재'로 전망한 응답자들은 기독교계의 종교방송이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불교의 미디어 환경이 열악해 기독교에 비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채널이 다양해지는 만큼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거나, 상업주의로 인해 종교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도 있었다.

◐ **경제여건** = 경제가 악화될 가능성을 상정한 포교환경변화 여상 질문에서 '악재'(34명)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호재'로 본 응답자(7명)보다 많은 반면, 재가 지도자는 '악재'(7명) 보다는 '호재'(17명)로 판단한 응답자가 많았고, '중립'적 입장을 보인 9명중 8명이 스님이라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불교와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 스님이 재가자보다 곱지 않은 시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스님 가운데 3분의 1이 '중립'적 입장을 보인 것은 불교가 선거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 **미디어 환경 변화** = 미디어 환경 변화가 포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호재'(25명)와 '악재'(22명)가 팽팽했다. '호재'로 예상한 응답자들은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불교 홍보 기회가 많아지고, 그만큼 불교를 접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또 다양한 색채로 표현되는 불교문화의 이미

◐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사안은** = 어떤 사안이 포교 환경에 가장 큰 영향를 끼칠 것인가를 우선 순위로 나열해 달라는 질문을 종합한 결과는 주5일 근무제-월드컵-미디어 환경변화-경제여건-정치환경 순이었다. '주5일근무제'의 경우 가장 많이 1순위로 꼽혔으며(스님 9명, 재가자 15명), '월드컵'(10명)과 '미디어 환경변화'(9명)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월드컵'의 경우 1순위에서는 '주5일 근무제'에 뒤졌지만 2순위에서는 앞서는 등 '주5일 근무제'에 못지않게 포교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치 환경변화'를 1순위로 지목한 응답자는 2명에 그치는 등 3·4·5순위로 꼽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은 '호재' '악재'에 대한 전망과 관계없이 올해를 어느 해보다도 포교환경이 크게 변화할 해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이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은 환경변화에 대처할 '포교 프로그램 개발'(44%)이다. "포교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사람들을 불교로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가족단위 또는 주말 사찰체험 프로그램, 주말법회 횟수 확대, 어린이 놀이방 설치, 사이버법당 개설, 문화공간 확보와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사찰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36%)는 의견도 많았다. 응답자들은 포교활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도조직 및 교육이 강화돼야 하고, 포교재원 확보 및 사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20%)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는 것이 포교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위성채널 확보, 사회봉사활동의 저변 확대, NGO활동 강화 등이 지목됐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설문에 응해 주신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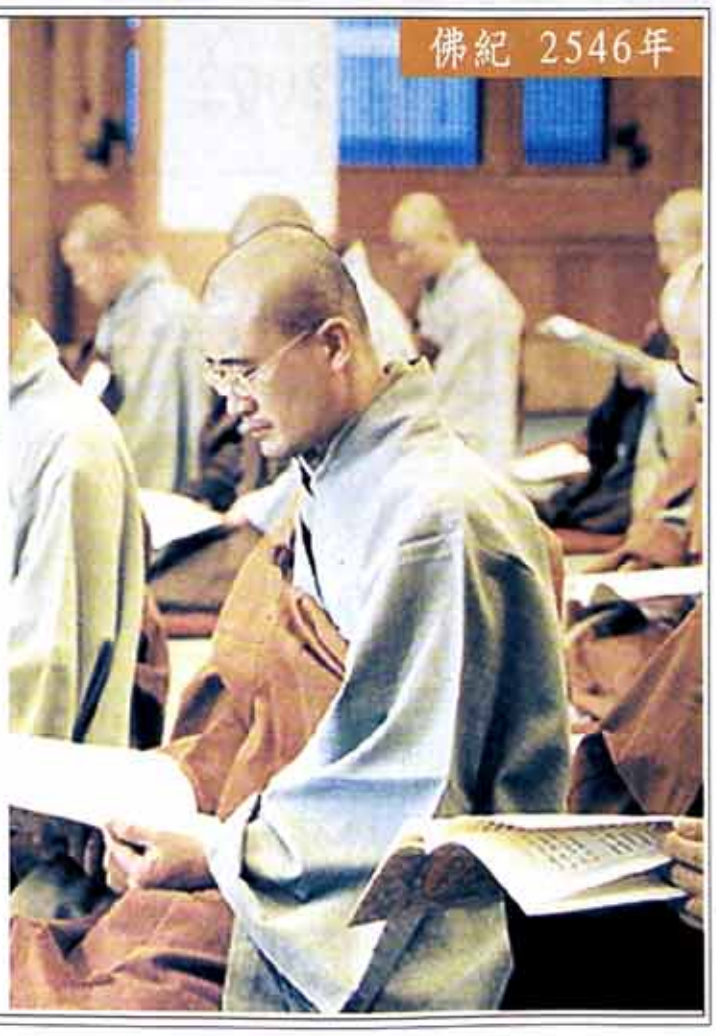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흐암 (진각종 통리원장)
무비 (조계종 교육원장)
지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도영 (조계종 포교원장)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원택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법장 (조계종 교구본사연합회장)
청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법산 (동국대 정각원장)
광우 (전국비구니회장)
각현 (연꽃마을 이사장)
성광 (군불교위원회 위원장)
지오 (해인사 강원 강주)
중원 (제주불교사암연합회장)
우학 (대구 영남불교대학장)
현응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장곡 (공주 갑사 주지)
혜일 (전남 김진사암연합회장)
현각 (임주 소백새마을 원장)
벽상 (광주사암연합회장)
혜능 (해인사 율원장)
법타 (평불협 회장)
법륜 (JTS 이사장)
김규칠 (불교방송 사장)
이수덕 (불교TV 사장)
송석구 (동국대학교 총장)
손제석 (위덕대학교 총장)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대중 (조계종 포교사단장)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장)
박광서 (재가연대 상임대표)
김재일 (동산반야회 회장)
김규범 (대한불교청년회장)
이근우 (청담정보통신고 교장)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윤창화 (민족사 대표)
정인악 (대한불교산악인연합회 총재)
송도근 (건설교통부 불자회장)
김동흔 (경불련 운영위원장)
김정도 (부산불교거사림회장)
연기영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이기향 (한성대학교 교수)
윤천수 (불교아카데미 이사장)
권철회 (태고종 명예신도회장)
김유혁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백진호 (진각종 총금강회장)
임완숙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
이만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

〈무순〉



조계종단은 새 해에도
화합과 안정 속에 수행가풍을 진작하여
수행 전통을 진작시키고
한국불교 중흥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우리 불교가 이룩한 고귀한 정신문화와 자원을
온 국민과 인류가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大韓佛教曹溪宗
종정 혜암
원로회의 의장 법전
총무원장 정대
호계원장 월서
중앙종회 의장 지하



임오년 각 종단 종정 새해 법어

허망한 탐욕 버리고 청정한 본래 마음 되찾자

서로 공경하고 용서하자



혜암 스님
조계종 종정

새해 아침 밝은 해가 힘차게 솟아 오르니 시방세계에 환희와 희망이 가득 하도다. 태양보다 더 밝은 한 물건이 우주법계를 밝게 비추고 있으니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무궁한 광명세계로다. 일체가 원융하고 일체가 화합하여 호호탕탕 무애자재하니 시비와 갈등은 사라지고 평화와 축복이 넘쳐 흐르도다.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가난한 이, 외로운 이 모두가 본래로 부처님이니 서로 공경하고 서로 아끼며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할지어다. 대립과 투쟁에 헤매는 어리석은 이들이여!

허망한 탐욕, 허공 밖에 버리고 청정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 영원히 광명세계에 살지어다.

三世古今誰是親(삼세고금수시친)가
湛然一物本來眞(담연일물본래진)이라
開花落葉根唯一(개화낙엽근유일)이요
日月去來絶往還(일월거래절왕환)이로다
삼세 고금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
청정한 한 물건이 본래 나 일세
꽃 피고 잎 지나 그 뿌리는 하나요
해 와 달 뜨고 져도 가고 옴이 없도다. 아 -- 악!

내고집 버리고 남 위하길



덕암 스님
태고종 종정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는데/ 삼독이 부른 고통의 바다 끝이 없네

지금 나라 안팎이 심히 혼란스럽다./ 대중은 현실을 직시하라./ 모두가 함께 발심하여정도(正道)를 찾을 때가 되었도다.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불은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갈등과 대립과 분쟁은 나만을 생각하고 위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 주장 내 고집만을 앞세우는 데서 시비와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에게 긴장과 불안감을 가져다준 일련의 세계적인 사태와 국내의 사건들을 보더라도 모두가 한결 같이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와 아집에서 온 병폐가 아니면 편견과 독선이 낳은 불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을 생각하고 위하는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울려 안락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동체대비의 자비심을 발휘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세계를 만들고, 모두가 고통없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서옹 스님 신년 휘호



고 불 총 림 백양사 방장 서옹 스님(사진)이 "새해에는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세계 평화가 이뤄지길 기원한다"며 신년휘호 '慈悲無窮(자비무궁, 자비심은 끝이 없다)'을 본사에 보내왔다.

시비·분별없는 곳에 화합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莫道始終分兩頭(막도시종분양두)
坐斷千差古路頭(좌단천차고로두)
萬古碧天空界月(만고벽천공계월)
石馬猶自笑呵呵(석마유자소가가)

묵은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게
앉아서 온갖 차별을 옛길 위에 끊으니
만고의 푸른 하늘 허공의 달을
돌말이 오히려 껄껄 웃는 다네

예기치 못한 검은 말이 선두를 달리듯이,
어려움 속에 한 조각 광명이 비치는구나.
화합이 있는 곳에
붐 · 보살님의 가피가 드리워질지니,
이는 가정마다 계시는
관세음보살을 보는 이의 것이니라.
언제나 지난 것보다 지금 스치는 것을
놓지지 말며,
나를 돌려 너를 향할 때
진정 새해는 다가오리라.

심인 밝혀 자주성 세우라



혜일 대종사
진각종 총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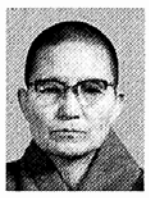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중생들은 각자의 맡은 바에서 심인(心印)을 밝혀 자주성을 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중생들이 탐진치 삼독에 잡힌 바 되어 심인, 자주를 상실하고 물질문명에 대한 욕구는 끝간데 없이 상승하고 반목과 질시, 투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한 곳은 전쟁에 휩싸여 있고, 안전(眼前)의 쾌락과 풍요에 눈이 어두워 환경은 끊임없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여 타인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 새날에 모든 중생은 참회로써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심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각자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마음으로 본연의 행과 말을 합시다.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 지역, 국가, 종교가 진정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성찰하고, 자신이 속해있는 주의주장에 매여서 타인이 속해 있는 단체, 지역, 국가, 종교를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이 심인 본래의 자리에서 결코 둘이 아님을 깨쳐야 할 것입니다.

종교 편견·인종 갈등 극복



보문종 **혜안** 종정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지정각세간(智正覺世間), 중생세간(衆生世間), 기세간(器世間)의 삼종세간이 한데 어울림으로써 인류를 포함한 생태계의 동 식물 그리고 삼라만상이 상호 영향력을 주고 받으며 법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인류와 인류의 화해, 인류와 자연의 화해를 전제로 종교적 편견과 인종적 갈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새 해에는 정진의 삶, 이웃을 배려하는 자비와 지혜의 삶을 가꿔가도록 발원합시다.

부귀와 명예보다 보살행



총지종 **록정** 종령

갈수록 사회현상은 복잡해지고 인간관계는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참된 지혜를 갈고 닦지 못하고 물질 위주의 행복만을 추구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교의 힘이 더욱 절실하지만 세속 외도들의 작태를 보면 오히려 종교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제할 마지막 보루는 불교 밖에 없다는 자각을 철저히 하고 항상 정도를 받들어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합시다.

이기심 버리고 공존 공영



법륜종 **정각** 종정

희망과 열기에 찬 임오년 새 해에는 지역주의적인 이기주의와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온 인류 모두가 대아적인 공존공영의 큰 안목으로 동체대비 육화의 대화합 정신으로 새 세상을 열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온누리 볼자여러분, 먼동이 떠오르는 새 아침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공간적인 국토 위에 평화와 번영, 행복과 자유를 가득 채웁시다.

원융화합해 어려움 극복



원융종 **일공** 종정

어려운 때일수록 불자들은 참다운 인간상과 이상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원융화합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서로서로 자비심을 베풀어 원융화합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밝은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고귀한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청정하고 화합된 선진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가족같이 보는 자비심



총화종 **동광** 종정

청정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볼 것이며
넓은 지혜로써 볼 것이며
자비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과 같이 볼 것이며
항상 원하고 항상 우러러 살필 것이니라.
광명과 희망찬 임오년을 맞이하여
용맹정진 말과 같이 뛰고 또 뛰어
못다한 일들을 이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기운이 몰려온다



열반종 **해곡** 종정

인생이 무상하고 제행이 무상하며
봄이 오고 꽃이 피며 낙엽이 지는 자연의 변리(變理)도 돌고 돌아감이 아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니 본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건만, 그러나 임오년이 온다.
오대양 육대주 지구촌의 기운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세계의 평화와 인류화합의 기운이 밀려온다
삼천리 금수강산에 임오년의 해가 뜬다.

남의 고통 덜고 기쁨 주자



선각종 **영담** 종정

이제 세계는 하나인 지구촌에 살면서 내 이익에 앞서 이타심으로 생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발고여락의 자비심을 국민 모두가 지니고 행할 때 모든 암흑은 사라지고 광명세계가 실현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전세계가 지켜보는 월드컵이 열립니다. 불자들이 앞장서서 화합의 한마당이 되도록 다함께 동참, 일로매진할 것을 제의합니다.

게을러 실패 노력해 성공



삼론종 **석파** 종정

원인 없는 결과 없고 결과 없는 원인 없듯이 만나면 헤어지고 쌓아놓으면 흩어지고 게으르면 실패하고 노력하면 성공하고 태어나면 죽어가고 수행하면 현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원하는 대비정신이라면 화해와 화합이 이룩될 것입니다. 한생각이 비고 고요하면 만물이 평등해집니다. 만물이 평등해지면 무엇이 승하고 무엇이 열하며 무엇이 무겁고 가볍다 하겠습니까.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Chogye sect of korea **HAN-MA-UM-SEON-CENTER**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 1동 101-62
전화 : 사무처(031)470-3100 팩스(031)470-3116
홈페이지 : http://www.hanmaum.org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4구 산 5-2
TEL : 043-877-5000 FAX :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하동 1500번지
TEL : 064-721-4662 FAX : 064-721-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FAX :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3 FAX :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 052-295-2335 FAX :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번지
TEL : 053-767-3100 FAX : 053-765-1600
● 중부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 055-342-6693~0 FAX : 055-345-9900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5-746-8163, 744-1321 FAX : 055-746-7825
●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44-21
TEL : 042-532-1481 FAX : 042-526-0891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99
TEL : 054-275-3163 FAX : 054-274-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3-1
TEL : 043-259-5599 FAX :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번지
TEL : 033-651-3003 FAX :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643-0643 FAX :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1-284-1771 FAX :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 : 054-555-8871 FAX : 054-556-1989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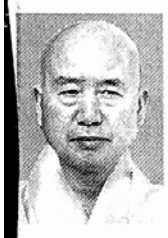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11354
TEL : 718-460-2019 / FAX : 718-939-3974
● Washington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l Rd. Annandale VA. 22003
TEL : 703-560-5166 / FAX : 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1905 South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6
TEL : 323-766-1316 / FAX : 323-766-1916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Lincoln Ave.Skokie IL. 60077
TEL : 847-674-0811 / FAX : 847-674-2280
-CANADA (캐나다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 : 416-750-7943 / FAX : 416-701-1359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ap. Fed. CP(1406) Rep. Argentina
TEL : 5411-4921-9286 / FAX : 5411-4921-9286
● Tucuman (뚜꾸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Yerba Buena,
CP4107 Prv.Tucuman Rep. Argentina
TEL / FAX : 54381-425-1400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 49-(0)2131-969551 / FAX : 49-(0)2131-969552
-THAILAND (태국 지원)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 662-711-2005 / FAX : 662-391-4378

수행·봉사·포교로 '평화로운 세상' 만든다

2002년 불교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비쁜 한 해가 될 것 같다.

세상의 전반적인 변화는 탈종교화의 양상을 띠는데, 실제로는 종교의 역할이 적극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불교계 신행 단체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점검해 본다.

불교지도자 2002년 신행계획



장애인시설 컴넷하우스 가동

정관스님 (사)불국토 이사장

'불교사회복지연구원'의 사업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세미나 등의 연구활동에 주력할 것이다. 2월부터는 정신지체장애인 사회복귀 시설인 '컴넷 하우스'를 본격 가동해 기존 사업 이외에 불국토 사회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꾀할 생각이다.



영어 · 댄스 등 재미난 법회 개발

정여스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회장

프로그램개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영어, 연극, 댄스 등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와 법회를 접목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착시킬 것이다. 읍, 면 단위까지 어린이 포교의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월드컵때 자원봉사 적극참여

지홍스님 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월드컵 축구대회에 맞추어 지역별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또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지역 사찰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지부간의 네트워크 구성 등의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개발

운광스님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장

계절에 맞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선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이다. 또 현재 불교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실력 있는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교계의 각종 행사에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인도 · 아프간 등 해외포교 강화

법륜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해외 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먼저 인도 둥게스와리 지역 등에 대한 결핵퇴치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 지역의 빈민 아이들에 대한 학교 교육도 병행할 것이다. 아프카니스탄 전쟁이 끝나면 그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원불자 참선수행공간 마련

김윤하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장

행원 불자들의 수행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도봉구 원효정사, 종로구 룸비니회관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공간은 참선뿐만 아니라, 행원 불자에게 불교의식을 교육하는 장으로도 사용할 것이다.



초발심으로 조직내실 다질터

장영효 MBC불교연구회장

초발심으로 돌아가 연구회의 조직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MBC불교연구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여의도포교당에서 KBS, 금융감독원 등 여의도에 있는 언론 및 금융기관의 불자회와 연합법회를 마련한 것은 새해부터 신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원이다.



'철마는 자비를 싣고' 보시 실천

정동진 철도청불교협의회 의장

월 1인당 1천원을 불우 이웃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는 '2002 철마는 자비를 싣고' 보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여성 철도인의 포교기반을 다질 계획이며, 3월까지 철도인 포교를 전담할 전법팀을 구성키로 했다.



장기기증 후원함 설치 보살행

김주본 한국운전자불자연합회장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기기증 후원함'을 택시에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올해부터는 생명나눔실천회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모금을 위해 각 지회에 '장기기증 후원함' 설치를 권유할 계획이다. 포교 테이프를 제작, 배포할 복안도 가지고 있다.



기업인 · 시민에 무료세무상담

정구정 한국세무사불자회장

홀수 달은 큰스님 법문, 짝수 달은 성지순례로 윌례법회를 봉행함은 물론 세정 당국의 관계자를 초빙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해 친목과 신심을 함께 다져나갈 계획이다. 일반시민은 물론 불자기업인들에게 무료세무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교정 네트워크 구성 완료

오희창 불자교정인연합회장

원주, 장흥 등 4개 지역에 지회를 결성, 전국 단위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연합회 내 30여 교정인 포교사를 중심으로 각 지회 포교팀을 구성, 재소자 및 경비교도대 포교의 첨병 역할을 할 것이다.



병원불자회 연합 대법회 추진

김주효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

각 병원불자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병원불자연합회 운영회의를 통해 불자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환자포교에 앞장 서는 것은 물론 전국의 병원 불자회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법회도 한 차례 가질 예정이다.



주말 가족단위 프로그램 마련

유지선 선재연구모임 사무국장

지도자 교육과 주말프로그램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지도자 교육은 심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그리고 주5일제 수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주말프로그램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일 생각이다.



군법당에 교계신문 보내기 운동

이귀인 석불선양회장

군법당에 불교계 신문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군법당 후원자와 군종병을 자매결연 방식으로 맺어줘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불자 네티즌을 방치된 석불과 석탑 등의 불교문화재 지킴이로 선정해 월 2회 정도 순회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독립건물 마련해 수용인 늘려

권경술 새생각실천회장

어르신들을 위한 보금자리인 '봉로원(奉老院)'이 개원 2주년을 맞는다. 현재 독거노인을 주로 모시고 있지만, 점차 가족은 있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분들도 모실 계획이다. 또 마을회관으로 쓰던 단독주택을 빌려 생활하고 있는데 내집마련도 시도할 예정이다.



청소년 포교 지침서 · 교재 발간

박영동 전국교법사단장

2월 중으로 7차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청소년지도자와 교법사 등 청소년 포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 알기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종교 지침서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청소년 포교 활동에 필요한 교육 교재도 만들 계획이다.



절하기등 매월 신심 고취대회

정우식 조계사 청년회장

사경, 절하기 등 '신앙심 고취대회'를 매월 개최해 청년 회원들의 신심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히말라야 고봉 14좌를 완등한 산악인 박영석 씨와 함께하는 생활 등반대회, '청춘 마라톤 대회'를 개최해 청년 불자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다.



중앙-지역 인터넷 교류 활성화

박문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대불련 홈페이지와 인터넷 방송국을 활용해 지역 법우들이 체계화된 자료집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계할 것이다. 또 지부장단 회의를 강화하고 지회장 모임도 활성화시켜 중앙과 지역이 함께 꾸려가는 대불련을 만들 작정이다.



참나찾기 실천수행 운동 전개

이헌중 유니텔 불교동호회 대표시샵

'부처님나라'에서 첫번째로 강조되는 것은 실천수행이다. 진정으로 나를 구하고 남을 구하는 대승의 가르침을 받드는 불자들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실천은 빠질 수 없는 불자의 소중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헌혈 번개' 등 오프라인서 모임

정재평 천리안 불교동호회 대표시샵

온라인 신행활동은 일정부분 한계를 지닌다. 그래서 올해는 오프라인 모임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특히 헌혈 번개(네티즌들이 쓰는 말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모임을 뜻함) 등 사회성 있는 모임을 자주 가져 앎과 행이 일치하도록 하겠다.

큰하신년

회당 1902~2002

참여 화합 회향

즐거운 신행, 하나되는 신행, 함께하는 신행

회당 100주년 기념사업회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번지
대표전화 : (전국)1588-5525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http://www.hoedang.or.kr

온 세계가 진정으로 하나되어 즐거움을 나누는
2002년 만다라 세상 진각종이 함께 합니다.

(JGO : The Joy of Genuine Oneness)

總 印 慧 一
統理院長 孝 庵

대한불교 진각종
136-865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
대표전화 : (전국)1588-5525
전 화 : (02)913-0751~4
팩 스 : (02)913-0755
http://www.jingak.or.kr



월드컵 10개 경기장 주변 불교문화재

●**서울** : 정치,경제,문화의 중심도시인 서울. '우리민족의 문화와 역사, 희망' 을 담아낸 서울경기장만큼이나 서울의 불교문화 역시,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조계종 총본사인 조계사, 봉원사의 불교의식 영산재, 북한산 도선사의 마애석불, 승과를 실시했던 봉은사 선불당, 화계사 동종 등이 있다.

●**대구** : 해발 1,192m의 팔공산. 수많은 문화재가 있는 불교문화의 성지인 이곳에는 동화사,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국보 14호) 등이 자리잡고 있다. 그밖에 주변에는 기도영험도량 갓바위, 대구 동쪽 72km 떨어진 경주시 토함산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과 불국사 다보탑(국보 21호)과 석가탑(국보 23호) 등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은 팔만대장경이 모셔진 법보사찰 해인사가 합천에 있다.

●**울산** : '낙동정맥' 에서 세 번째로 높다는 해발 1,240m의 가지산에서는 신라 현덕왕 16년(824년) 도의국사가 창건한 석남사가 있다. 국내외에서 가장 큰 비구니 종립 특별 선원으로 널리 알려진 이 절에는 석남사 부도(보물 369호), 석수고 등이 있다.

●**부산** : 범어사에는 삼층석탑(보물 250호), 대웅전(보물 434호)가 있고, 근처 양산 통도사에는 대웅전(보물 144호)을 비롯해 총 65동 580여 간 구성돼 귀중한 불교 문화재가 많다. 또한 신라 진흥왕21년(560년)에 신승이 창건했다는 운주사는 비구니 전문강원으로 금당 앞 석등(보물 193호), 원응국사비(보물 316호) 등이 있다.

●**광주** : 증심사에는 철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131호), 삼층석탑이 있고, 도선국사가 하룻밤 사이에 천불천탑을 조성했다는 화순 운주사에는 와불과 석실에 두 개의 부처가 등지고 앉아 있는 운주사석조불감(보물 797호)과 구층석탑(보물 796호)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통일신라 때 창건된 구례 화엄사에는 각황전(국보 67호), 영산회괘불탱(국보 301호) 등이 있다.

●**서귀포** : 1700년대 숭유억불 정책으로 모든 사찰이 폐쇄되었던 제주도는 1900년대 비구니 안봉려관 스님이 관음사를 중창하며 부흥됐다. 서귀포 중문단지에 있는 약천사는 10만여 신도의 도움으로 8년 6개월 만에 완성한 대적광전이 단일 법당 건물로는 동양 최대이다.

●**전주** : 목탑에서 석탑양식으로 옮겨가는 구조를 보여주는 전주 인근의 미륵사지 구층 석탑. 그밖에 백제 법왕 원년(599년)에 창건된 김제 금산사는 미륵신앙의 근본도량으로 미륵전(국보 62호), 노주, 석련대, 혜덕왕사 진응탑비, 오층석탑, 석종, 당간지주 등이 있다.

●**대전**: 남매탑 전설이 전해오는 공주 동학사. 근처 갑사에는 철당간 및 지주(보물 256호), 삼신괘불탱(국보 298호), 동종(보물 478호) 등이 있고, 효종 원년(1950년)에 제작된 갑사괘불은 물품의 시주자를 적어놓아 17세기 중반의 생활상과 사찰의 재정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 보은 법주사의 팔상전(국보 제55호)은 오층 목탑이 있다.

●**수원** : 조선조 정조가 '부모은중경' 을 듣고 창건했다는 효사찰 용주사. 용주사에는 고려시대 청동종인 용주사범종(국보 120호), 천연기념물 264호 용주사 회양나무, 당시 최고의 화가 김홍도가 그렸다는 부처상 등의 귀중한 불교문화재가 있다. 또한 비구니 수행도량인 수원 봉녕사가 수원불교를 말하고 있다.

●**인천** : 강화 전등사는 석가삼존을 봉안한 대웅보전(보물 178호)과 조선 중기 다포계 건물인 약사전(보물 179호) 등이 유명하다. 인근에는 관음도량으로 유명한 낙가산 보문사에는 석굴사원인 보문사석실, 낙가산 중턱에 일명 눈썹바위 암벽에 조각된 마애석불좌상이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월드컵과 불교

'산문 안에서 숙박' 한국 禪불교 체험

템플스테이, 10개도시 30여사찰서

왜 하나? :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 중 우리나라를 찾을 외국인관광객은 연인원 80여명만 명으로 월드컵조직위는 추산하고 있다. 이 중 6만여명의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할 전망이다. 템플스테이는 우리민족의 고유문화가 숨쉬고 있는 전통사찰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문화행사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 시행된다. 템플스테이는 전통사찰을 매개로한 새로운 관광문화의 인프라개발 및 문화민족의 이미지 선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족한 외국인관광객 숙박시설문제도 해결 할 수 있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도 한몫 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상황은? : 템플스테이 사업을 주관하는 조계종은 1월 초부터 전통사찰의 신청서를 받는다(문의 02-720~7060). 선정위원회는 신청사찰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고, 사찰 보수비를 지급한다. 지정사찰 선정기준은 거리상 개최장소와 가깝고, 수련법회 경험이 있으며, 가람과 주변환경이 어우러진 사찰이어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 구축 및 콘텐츠 개발도 1월 초 작하는 안내 리플릿을 제작할 방침이다.

각 단체들의 움직임 : 한국불교 종단협의회는 월드컵 개최시기에 맞춰 10대 도시 축구장에서 각 종단 주관으로 축하법회, 기념전시회, 문화공연, 체육행사 등을 다채롭게 펼칠 예정이다. 종단협은 이와 함께 월드컵 문화시민운동도 전개, 명랑만화 제작 및 배포, 계도캠페인 전개, 지하철 역사 광고, 경기장 주변 청결운동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불교사암연합회도 월드컵 기간 중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 불화 및 서예전시회, 사찰음식전, 다도시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명원문화재단도 템플스테이 진행사찰에 별도의 부스를 마련, 한국의 차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다도시연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과제는? : 템플스테이 사업의 성공적인 회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찰 내 편의시설 확보이다. 봉은사 외국인안내 자원봉사자 모임 이태길 회장은 "템플스테이를 준비하고 있지만, 사찰 내 시설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템플스테이 사업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템플스테이 사업이 1회성 행사에 그칠 경우, 외국인 포교를 위해 축적한 역량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가장 큰 관건이 템플스테이사업을 위해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의 가동 및 유지이다.

월드컵이후 템플스테이 사업을 일본처럼 국내 일반인 포교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국내에서도 주 5일근무제가 실시되는 만큼 사찰관람객들을 포교하는 새로운 관광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프랑스 쟈크 도골피안 교수는 최근 〈한겨레21〉 기고를 통해 "월드컵기간중 한국문화를 알릴 수있는 프로그램의 실시여부가 월드컵 성공개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것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템플스테이는 월드컵기간중 외국인들이 사찰에서 생활하며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할 수있도록 준비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새벽예불을 마치고 스님들과 청소하고 있다.

조계종 외국인대상 자원봉사聯 발족
홍보 사이트·안내 리플릿 등 준비
편의시설·다양한 프로그램 '성공 관건'

불교계의 템플스테이 시행은 대사회적 기여와 함께 월드컵과 사찰문화체험을 접목해 문화월드컵으로 승화시키고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떻게 하나? : 10개 월드컵 축구장 주변 30여 전통사찰에서 템플스테이가 시행된다. 이들 사찰은 사찰 보수를 거친 뒤 월드컵 기간 중 1박2일 이나 2박3일 기간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은 한국불교와 사찰안내 교육과 숙소를 배정받으며, 수련복, 자료집, 사찰안내지도, 청규집을 제공받는다. 템플스테이 주요프로그램은 전통예불, 참선, 발우공양, 다도, 문화재 관람 등이며, 회향식 때는 수료증(법명)과 한국불교 기념품을 제공받는다. 30여 사찰에 외국인 50명씩 총 1500명을 40일간 묵게 되면 연인원 6만명이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교계의 템플스테이 시행은 대사회적 기여와 함께 월드컵과 사찰문화체험을 접목해 문화월드컵으로 승화시키고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떻게 하나? : 10개 월드컵 축구장 주변 30여 전통사찰에서 템플스테이가 시행된다. 이들 사찰은 사찰 보수를 거친 뒤 월드컵 기간 중 1박2일 이나 2박3일 기간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은 한국불교와 사찰안내 교육과 숙소를 배정받으며, 수련복, 자료집, 사찰안내지도, 청규집을 제공받는다. 템플스테이 주요프로그램은 전통예불, 참선, 발우공양, 다도, 문화재 관람 등이며, 회향식 때는 수료증(법명)과 한국불교 기념품을 제공받는다. 30여 사찰에 외국인 50명씩 총 1500명을 40일간 묵게 되면 연인원 6만명이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구랍 12월 8일 조계종 포교원은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내외 행사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안내하게 될 외국인대상 자원봉사자연합회를 발족했다. 월드컵 기간중 템플스테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될 외국인 대상 자원봉사자연합회는 조계사, 봉은사, 송광사, 통도사, 불국사, 통도사 부산 포교당, 연등국제불교회관, 신흥사 신도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포교원은 국제포교사회와 영어 중국어 일어 3개 국어로 제작하는 안내 리플릿을 제작할 방침이다.

각 단체들의 움직임 : 한국불교 종단협의회는 월드컵 개최시기에 맞춰 10대 도시 축구장에서 각 종단 주관으로 축하법회, 기념전시회, 문화공연, 체육행사 등을 다채롭게 펼칠 예정이다. 종단협은 이와 함께 월드컵 문화시민운동도 전개, 명랑만화 제작 및 배포, 계도캠페인 전개, 지하철 역사 광고, 경기장 주변 청결운동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불교사암연합회도 월드컵 기간 중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 불화 및 서예전시회, 사찰음식전, 다도시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명원문화재단도 템플스테이 진행사찰에 별도의 부스를 마련, 한국의 차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다도시연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과제는? : 템플스테이 사업의 성공적인 회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찰 내 편의시설 확보이다. 봉은사 외국인안내 자원봉사자 모임 이태길 회장은 "템플스테이를 준비하고 있지만, 사찰 내 시설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템플스테이 사업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템플스테이 사업이 1회성 행사에 그칠 경우, 외국인 포교를 위해 축적한 역량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가장 큰 관건이 템플스테이사업을 위해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의 가동 및 유지이다.

월드컵이후 템플스테이 사업을 일본처럼 국내 일반인 포교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국내에서도 주 5일근무제가 실시되는 만큼 사찰관람객들을 포교하는 새로운 관광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프랑스 쟈크 도골피안 교수는 최근 〈한겨레21〉 기고를 통해 "월드컵기간중 한국문화를 알릴 수있는 프로그램의 실시여부가 월드컵 성공개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것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가상체험 : 미국인 클라라씨 수원 봉녕사에 가다


◇수원 봉녕사에서는 석조삼존불(도유형문화재 151호 · 사진)등 불교문화재와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생활을 볼 수 있다.

미국 LA에 살고 있는 직장인 클라라는 현지 여행사를 통해 6월 5일 수원에서 열리는 미국-포르투갈 경기 입장권을 구입했다.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클라라는 관광보다는 동양문화를 체험하고 싶었던 차라 템플스테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원경기장 주변 봉녕사의 2박3일 일정 프로그램을 보고, 참가 신청비를 은행에 입금했다.

드디어 6월 3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클라라는 곧바로 794년의 역사가 깃든 비구니스님들의 수행도량인 봉녕사로 향한다. 종무소에서 간단한 입방절차를 마치고, 공양간으로 가니 발우공양 체험이 기다린다. 공양 후 목탁소리가 고즈넉한 산사에 울려퍼지고, 비구니스님들이 줄지어 법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축구도 보고 불교도 배우고

잠시 후 범종각에서 웅장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운판과 법고소리도 연이어 들린다. 법당에 들어와 스님들과 저녁예불을 함께하니 마음속에 감동이 물밀 듯 하다. 다음날 아침공양 후 안내스님, 자원봉사자들을 따라 경내를 둘러본다. 대적광전, 약사보전, 용화각 등 각 전각의 설명을 듣고 열심히 메모한다.

세계최초의 비구니 율원 금강율원으로 향한다. 그 옆의 비구니 강원 육화당에는 해맑은 학인 스님들이 탁마에 여념없다. 흐트러짐 없이 공부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보니 절로 감탄이 이어진다.

오후에는 향하당의 다각실에서 사중스님들과 차를 마시며, 다담을 나눈 뒤 한국의 전통선인 화두 선을 체험한다. 오후 6시부터 미국과 포르투갈의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 클라라는 서둘러 수원경기장으로 향한다. 클라라는 다음날 인근의 용주사와 미륵당, 세계문화유산인 수원성 등을 둘러보고 한국불교문화의 진수를 마음속에 담아미국으로 돌아갔다.

근하신년

理事長 坪山 徐聖雲
三千寺 · 社會福祉法人 仁德園

인덕원

청소년 복지 시설 — 구립융암 청소년 독서실
노숙자 쉼터 — 희망의 집
노인 복지시설 — 호암마을(노인전문요양원), 인덕치매노인단기보호센터,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보육시설 — 인덕어린이집, 구립불광어린이집, 구립개나리어린이집, 구립수색어린이집
지역 복지시설 — 은평구립도서관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488번지 ○ 전화 : 02-385-8205-6 ○ 팩스 : 02-385-8207 ○ E-mail :indukwon@netsgo.com

會長 三千寺 주지 徐聖雲
서울 恩平區佛教寺岩 聯合會

회 장 삼천사 주지 서성운
부회장 수국사 주지 한자용, 시연사 주지 김혜진, 관음사 주지 이법성, 송천사 주지 김혜장
총 무 보문사 주지 덕호, 경선, 불광한의원 원장 도광
은평경찰서 경승실장 서성운, 서부경찰서 경승실장 이법성
서울구치소 교정교화 불교분과위원회 회장 서성운, 부회장 노병섭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산 127-1번지 ○ 전화 02-359-7766 ○ 팩스 02-358-2286 ○ E-mail : seobj21@netsgo.com

임오년 새해를 맞아 불교도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회 장
조계종 총무원장 서 정 대

부회장
태고종 총무원장 이 운 산

부회장
천태종 총무원장 전 운 덕

부회장
진각종 통리원장 최 효 왕

부회장 겸 사무총장
관음종 총무원장 이 홍 파

상임이사 총화종 총무원장 전 남 정
상임이사 일승종 총무원장 김 혜 정
상임이사 보문종 총무원장 정 혜 일
상임이사 원융종 총무원장 최 법 륜
상임이사 총지종 통리원장 박 혜 암
상임이사 원효종 총무원장 송 무 진

이 사 법화종 총무원장 김 혜 륜
이 사 조동종 총무원장 박 심 월
이 사 염불종 총무원장 이 청 봉
이 사 법상종 총무원장 정 법 륜
이 사 진언종 종리원장 이 유 삼
이 사 용화종
이 사 법륜종 총무원장 이 덕 산
이 사 본원종 총무원장 이 대 화
이 사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정 동 봉
이 사 대승종 총무원장 윤 일 오
이 사 삼론종 총무원장 김 혜 승
이 사 열반종 총무원장 김 해 곡
이 사 미타종 총무원장 이 월 정
이 사 여래종 총무원장 신 명 안
이 사 대각종 총무원장 이 만 청
이 사 조계종 총무부장 여 원 택
상임이사 조계종 사회부장 정 양 산
상임이사 태고종 총무부장 우 혜 공
상임이사 천태종 총무부장 박 덕 수
상임이사 진각종 총무부장 손 혜 인
감 사 법화종 총무부장 이 법 찬
감 사 염불종 사회부장 양 법 륜
감 사 조동종 감찰원장 송 행 성
사무국장 민 법 현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2층 (홈페이지 www.mahayana.or.kr)
대표전화 : (02)732-4885 / FAX : 737-7872

월드컵과 불교

참선·다도·예불… '가장 한국적인 문화'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행사

서울시가 2000년에 실시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주 유럽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참선, 다도, 예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졌다.

미주 유럽인들이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참선, 다도, 예불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은 것은 최근 일고 있는 서구사회의 불교열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서구인들의 경우, 티베트불교와 남방불교를 접해온 만큼 한국불교에 대해서는 낯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업스님(국제포교사회 부회장)은 "외국인들은 개인적인 가치관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스님들이 함께 모여 예불모시는 것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받아들인다"며 "한국의 선불교 전통을 설명하고, 전통 선을 체험케 하여 한국불교의 진수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애스님(그리스)은 "스님들과 다각실에 둘러앉아 한국 차를 발전시킨 초의 선사에 대한 얘기 등을 하며 차를 마시는 것은 외국인들에게 이채롭게 다가갈 것이다"며 "도자기 만들기 등 실제 몸으로 해보는 체험도 한국문화의 깊이와 생활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인상 깊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사결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 동양권 관광객들은 사찰구조 탱화 고궁 박물관 코엑스 63빌딩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찰안내와 지역 관광코스의 연결도 고려해 볼만하다. 특히 동양권 관광객들은 사찰 예법을 함께 하는 것 보다는 자신들의 나라와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는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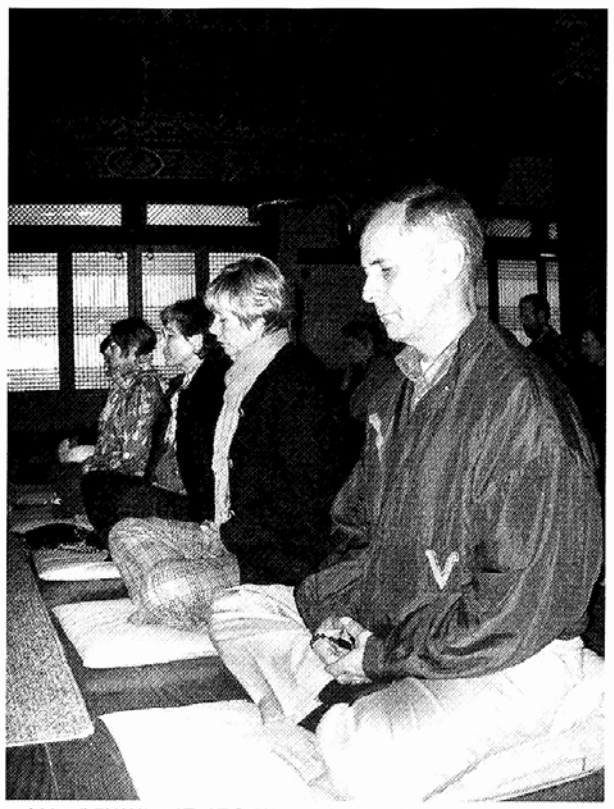
미주·유럽인-동양정신 '신선한 감동'
아시아인-가람배치·탱화 등 관심

일보스님(방글라데시)은 "원로스님들의 선적인 법문과 사찰 구조에 대한 설명이 가장 큰 감동을 줄 것이라고 본다"며 "현대적인 시설물과의 연계코스를 계발해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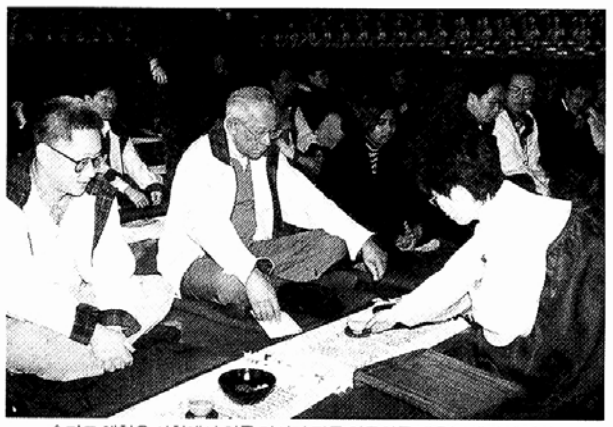
법전스님(중국)은 "불화 단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그려보는 체험이 재미있을 것"이라며 "종이위에 부처님을 그려보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모습을 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계사에서 외국인 안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정수명씨는 "지난해 10월 조계사 외국인 안내소가 집계한 외국인의 불교문화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사찰구조와 단청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며 "외국인들은 자국에 돌아가서도 종종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국불교를 소개하여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템플스테이를 잘 운영할 경우 상당한 포교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 사업을 처음으로 제안한 정무형(한림대 국제대학원)교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국의 불교가 전세계 불교흐름을 선도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템플스테이 사업도 10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시작해야 외국인 포교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불교에 관심있는 외국인들은 한국불교의 전통선수련법인 화두선에 관심이 많다. 지난 11월23일 봉선사에서 열린 선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들.



◇다도 체험은 사찰에서 차를 마시며 전통 차문화를 배우는 계기가 된다.

불교문화 체험프로그램

템플스테이 기간 중 외국인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할 프로그램은 예불, 참선, 발우공양, 다도, 전통등 만들기, 범패시현, 대장경 인경, 선무도, 녹차제작, 민속놀이, 탑돌이 등 다양하다. 이중 대표적인 전통사찰 체험프로그램을 간추려 소개한다.

●**예불** : 대표적인 불교의식인 예불을 통해 불교적인 장엄미와 오랜기간에 걸쳐 축적된 불교음악을 체험한다. 특히 외국인들이 예불에 참가하여 범종소리의 웅장함과 운판, 법고소리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불교적인 깊이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해당언어를 우리나라 의식에 맞춘 자료집을 준비해 본다.

●**참선** : 견성성불에 이르는 방법이며, 개인의 정신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선 수행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조사선의 난해함 보다는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참선법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의 경우는 좌식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뒷방석을 두 세 겹으로 두껍게 깔아주는 배려도 필요하다.

●**발우공양** : 발우공양 체험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며, 현대인의 건강에 적합한 사찰음식문화의 경험을 준다. 발우공양법은 오폐수가 나오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발우공양 습의교육을 실시하여 충분히 인식시킨 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도체험** : 조선시대 초의선사에 의해 재정립된 한국불교 차문화와 녹차의 효험들을 소개한다. 외국인들이 처음부터 예법을 지키며 녹차의 맛을 느끼도록 기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편안한 분위기 속에 차를 마시며 사중스님들과 외국인들이 불교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찰안내** : 불교의 전체교리가 화현돼 있는 사찰에 대한 정확한 소개가 필요하다. 사찰의 당우와 문화재 소개는 한국문화의 특이성과 본질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다. 특히 불교에 대한 이해를 가장 쉽게 전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교리와 설화를 곁들여 쉽게 전하도록 한다.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사찰인 만큼 이해도가 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통등 만들기** : 무명을 밝혀 지혜와 자비로 깨달음에 이르려는 큰 원력을 담고 있는 등의 의미를 설명한다. 등을 만들어 불을 밝힘으로써 개인의 행복은 물론 일체중생의 평화를 기원하는 불교전통의 등문화를 알리는 기회로 활용한다. 등 제작은 소요시간에 따라 컵등이나 작은 연등 만들기로 대체하는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만하다.

●**탑돌이** : 달밝은 산사의 마당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며 탑을 돌며 염불하는 탑돌이는 색다른 체험을 제공한다. 탑을 한바퀴 돌 때마다 탑제를 올리고 축원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진행한다.

●**선무도 체험** : 외국인들이 선체험과 함께 관심갖는 분야가 동양전통무술이다.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선무도에 대한 설명과 체험을 통해 정신과 육신의 조화를 느끼도록 한다.

외국의 사례

일본의 사찰숙박

일본에서는 템플스테이를 '사찰숙박(宿坊)'이라고 부른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일본인들은 사찰을 성지로 가꾸는 동시에 신도나 참배객들에게 적극 개방하고 있다. 사찰이 외국인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숙박시설을 갖추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템플스테이는 사찰요리, 온천, 문화재, 불교미술, 정원 등을 보고 즐기는 것은 물론 일본 선(Zen)과 다도 체험 등 고급 문화관광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인지 고급 호텔과 연계된 홍보 및 예약 시스템도 가동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사찰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숙식 등을 예약할 수 있다.

교토의 청수사 앞길등 사찰 사하촌 역시 잘 정비되어 있다. 일본의 전통가옥이 밀집한 사하촌 거리에는 아름다운 도자기집과 전통과자집, 찻집, 전통예술 공연장 등이 들어서 있어 하나의 문화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의 템플스테이는 국제적인 행사에 맞춰 일시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계인과 국내인을 상대로 한 체험관광 사업의 성격도 갖고 있다. 월드컵은 일본과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우리 전통문화를 중국 일본과 비교해 그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대 경연장이 될 전망이어서, 수십년의 전통을 가진 일본 템플스테이를 벤치 마킹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의 수도원 개방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가톨릭 수도원을 숙박시설로 활용해 가톨릭 문화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많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수도원이 성지 순례자나 성직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전통이 있어 수도원 숙박은 자연스러운 광경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도원이 완전히 호텔이나 호스텔로 바뀐 경우도 50여 곳에 이른다. 이런 수도원 호텔은 고요히 명상하며 쉴 수 있어 여행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상의 홍보 및 예약체계까지 갖추고 있는 수도원 호텔을 찾는 방문객은 연간 8만여 명(외국인은 3만5천여 명), 이제는 전문 호텔업자들이 운영하는 인기 관광코스가 되었다.

스페인에서 수도원 호텔이 많이 생긴 이유는 신도 격감으로 인한 수도원 자체의 재정난, 지역의 개발요구, 유럽내 최대 휴양지인 스페인의 숙박시설난, 가톨릭 선교차원의 개방, 이색 관광상품으로 수요급증 등으로 분석된다. '수도원에서 머물며 숙식'이라는 이러한 관광상품은 성지순례와 문화유적 답사라는 두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런 경우는 유럽인들에게 티베트의 어느 사찰에서 며칠동안 머물며 체험하는 성지순례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엄숙한 수도원이 호텔로 전환되는 것은 상업화라는 부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쇠퇴하는 유럽의 기독교를 다시한번 돌이켜보고 새로운 믿음의 계기를 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찰수련회

19세기부터 시작된 프랑스 불교는 60년대 말부터 교세가 커지고, 90년대부터 수행에 관심을 갖는 불자들이 크게 늘고있다. 가톨릭(68%) 개신교(6%)에 이어 불교(5%)가 3대 종교를 차지하는 프랑스에서는 가족단위의 수행처가 템플스테이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수백개의 선불교센터와 티베트불교 명상센터가 있다. 선센터에서는 큰 성을 매입, 전용 수도장으로 사용해 연간 수천여 명 이상이 이곳에서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산사수련회가 새로운 여름 문화프로그램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가족단위 수행처로 가장 즐겨 찾는 곳이 프랑스 남부 보르도지방에 있는 '자두마을'이다.

매년 1500여 명의 방문객이 찾는 자두마을에서는 명상과 기도, 설법, 묵언 등의 수행프로그램이 24시간 운영된다. 자두마을에 소속된 타지역의 100여 개의 사찰도 개별적으로 적당한 수행비를 받고 숙박을 겸한 수행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두마을 방문자의 절반이상이 외국인인 점은 우리나라 사찰이 외국인 포교를 위해 배워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김재경 기자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 화 사

조 실 진 제
주 지 성 덕

총 무 지 우 기 획 법 능 교 무 응 각
재 무 혜 안 사 회 성 묵 포 교 종 본
호 법 혜 선

승가대학 강주 해월 금당선원 선원장 영진

外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
전화 : 053) 982-0101~2 팩스 : 053) 985-4405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조 실 석 주
주 지 원 혜
신도회장 무구 전봉수

사부대중 일동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가족과 함께 하는 도량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우135-090)
TEL : 종무소 02)511-6070~4

주5일 근무제

"'이틀 휴무' 삶의 리모델링 기회로"

<10월 실시한 본지 일간 붓다뉴스닷컴 설문조사 결과>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법회 참가나 수련 체험 등 신행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불교계가 가장 시급히 준비해야 할 것은?

정부가 주 5일 근무제를 올해 7월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주 5일 근무, 이틀 휴무'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미 일부 정부기관이 주 5일 근무제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불교계도 조계종 총무원이 새해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

주5일 근무제 시행은 산업 전반의 틀을 바꾸고,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생활 양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것이 분명하다.

여가 시간이 확대됨으로써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더불어 개인의 여가 선용과 자기 개발을 위한 레저 · 문화 · 스포츠 · 사회참여 등이 이뤄지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종교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종교생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불교계도 주 5일 근무제와 관련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본지가 인터넷 일간불교신문 '붓다뉴스 닷컴'을 통해 실시한 주 5일 관련 네티즌 불자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77%가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법회나 수련회 등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행 생활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 불교계가 가장 시급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법회와 수행프로그램의 마련(49%)', '불교문화 프로그램의 정례화(32%)', '사찰 안내 및 홍보 자료 마련(13%)' 등을 꼽아 불교계의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반면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더라도 신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52%는 '여가 및 레저 생활 즐기기'를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꼽아, 신행과 여가문화를 접목한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불교 포교의 대전환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기존 불자들을 위한 심도있는 수련 · 문화 프로그램의 상설 운영과 잠재된 불자들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체험위주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현재 월드컵과 관련해 준비되고 있는 템플 스테이 사업의 운영 계획을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여길 것이 아니라, 향후 실시될 주 5일 근무제와 관련시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불교문화포교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산사체험 · 유적답사 · 생태기행 '알찬여가'

'2박3일 가족수행' 등 프로그램 다양화



◇불교계는 신행과 문화 체험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불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준비한다

대둔사 '새벽 숲길'

해남 대둔사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해 하반기부터 사찰체험프로그램 '대둔사 새벽 숲길'을 연다.

2박 3일 일정의 주말수련회 형식으로 이뤄지는 대둔사 새벽 숲길 프로그램은, 산사에 와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사찰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만 지키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초점을 두었다.

우선 술과 담배를 절대 삼가야 하며, 남의 이야기를 비롯한 세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 반면 새벽 예불과 조석예불, 오전 명상과 새벽 숲길 산책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또 하루를 마치며 자신을 살피는 글쓰기인 좌선 일기를 작성하고, 스님과의 다담시간과 하루 한번 경내 청소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외의 시간에는 순전히 참가자의 자유의사로 진행되는데, 참가자는 혼자 산내 암자를 찾을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으며, 경전읽기나 참선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택하면 된다.

대둔사 수련원장 법인스님은 "여름과 겨울에 실시하는 4박5일 수련회 지도 결과 처음 산사를 찾는 이들의 대부분이 도시생활로 인한 오랜 습으로 인해 산사에서의 엄격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대둔사 새벽 숲길은 참가자들에게 최대한 자유를 주어 도시문명에 지친 현대인들이 자연에 묻혀 여유로움을 만끽 하면서,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유로움 속에서 자기성찰을"



◇'새벽숲길'은 최소한의 규칙을 정해 생활하면서 참가자들이 최대한의 자유와 휴식을 취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주5일근무제 추진현황

7월부터 공공부문 적용 2010년까지 연차 시행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 까지 연차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 7월부터 공공부문 · 금융보험 · 1000명 이상 사업장 등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300명 아상 사업장은 2004년 7월부터, 10인 이상 사장은 2007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 1월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현재 노동계는 임금 보전의 법제화 · 비 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문제 등을 내세워 강경 투쟁의사를 밝히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재계는 어려운 기업 사정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98%가 주 5일 근무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교계 대응방향

"보고 느끼고 즐기며 부처님 바로 알게"

'다양한 문화 체험프로그램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행복하고 보람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친절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포교의 대전환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교계가 준비해 나가야 할 과제의 귀결점은 바로 이것이다.

본지의 붓다뉴스 닷컴 여론 조사 결과 외에도 한길리서치, 연합통신 등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주 5일 근무제시행 이후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여행과 체험을 꼽았다. 따라서 잠재된 불자들을 부처님 품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수련위주의 프로그램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저마다의 형편을 고려한 다양한 사찰 문화체험이 필요하다.

해인사는 가족이 함께 사찰에서 하룻 밤을 묵으면서 스님들에게 차 달여 마시는 법도 배우고, 해인사의 역사와 문화 유산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다.

봉은사와 같은 도심 사찰의 경우는 사찰답사, 가족단위의 2박 3일 수행 프로그램, 봉사 프로그램 등을 준비 중이다. 특히 도심포교당은 주말 공동화 현상에 대비해 지방의 기도 도량이나, 전통 사찰 등과 연계한 대안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도심 사찰과 전통 사찰의 유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절을 찾는 사람들을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는 직접 끌어들임으로써 적극적인 포교 방편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도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에 착수한다. 포교연구실은 산사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찰들을 섭외하고, 운영 가능한 모델을 찾아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하는 사업을 구상중이다. 또한 재작년부터 운영해 온 수련정보센터와 각 수련회의 지도법사 스님들의 도움을 얻어 기존 수련법회에 대한 대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포교연구실 김관태 과장은 "템플 스테이 실시로 인해 일단 일부 사찰에서 이와 관련한 숙박시설과 문화프로그램 등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되면, 이를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에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사찰과 인근 주말농장을 연계한 생태체험 · 지역 문화시설과 연계한 문화체험 코스 개발 등과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해 오히려 더 소외될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들이다.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회 주 : 혜 성
주 지 : 안혜자
대중일동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전화 : 종무소 02)993-3161~3 팩스 : 02)993-3164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조 실 : 숭산 행원
주 지 : 성광
대중일동
■ 서울시 강북구 수유 1동 487번지 전화 : 02) 902-2663

정치환경 변화와 포교전략

양대선거, 법회 정치마당화 우려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 올해의 양대 선거는 6월중 월드컵 개최와 맞물려 불자들의 눈길을 산사에서 축구장으로, 선거관련 방송과 신문에 묶어놓을 가능성이 높다.
어느해 보다 포교에 불리한 해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월드컵에 맞춘 템플 스테이 사업이 오히려 한국불교를 알릴 호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양대 선거 역시 적절한 포교대책을 세운다면 오히려 불교의 진면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정치권은 벌써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어지간한 법회에는 정치인 한 두명의 축사가 빠지지 않는다. 여야 예비 대선후보들의 공들이기는 일찌감치 시작되었다. 정치 행사에 스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불교 공략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001년 양대 선거라는 무시못할 정치환경 변화에 불교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교분리의 원칙아래 외면만 할 것인가. 아니면 불교계의 사회적 지도력 확대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선거개입에 나서야 하는 것일까. 양대 선거가 포교의 호재가 될까, 악재가 될까.



◇오는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선은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불교계의 새로운 포교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한 법회에 참석한 정치인들.

'유권자 선언' 등 올바른 정치문화 선도
정당불자회 순수신행단체인가 '의구심'
"지도층 불자 많아야 사회 영향력 높아"

●정교분리 원칙과 포교전략=정치권의 '불심 잡기'는 이제 선거철을 따지지 않을 정도로 장기적인 계획아래 추진되고 있다.
정치권은 끝없이 불교 지도자와 단체를 방문해 공약을 남발할 것이다. 불교계에서도 각종 행사에 정당 지도자나 예비 선거 후보자를 초청하는 일이 빈번해질 전망이다. 15대 대통령선거가 100만표 이내에서 당락이 결정됐으니 '불심'(특히 영남지역)은 중요한 관리대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불교를 이용하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선거가 끝난 뒤 그토록 간절했던 호소와 공약은 어떻게 되었는가. 정치권이 불교계를 부동층이 가장 많은 표밭 이상으로 보지 않는 것도, 불교 지도자들과 신도들의 얕은 정치인식에서 온 과보가 아닐까. 선거를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생각보다는 불교계 스스로가 정교분리의 원칙하에 포교 여건과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인재를 키우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치권 불자회 위상정립부터=정치권에서 불자회를 구성한 것은 1985년 경우스님이 국회에 진출한 10대 국회때부터다. 각 정당 불교신도회는 92년 대통령선거 후에 결성되었다. 당시 선거에 패배한 후보측에서 선거패배 원인을 '불교계 공략실패'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곳이었던 청와대불자회는 이보다 늦은 96년 창립됐다. 이처럼 정치권 불자회가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아래 태동되다 보니 순수한 신행단체로서보다는 '불교 표'를 의식한 이익단체라는 눈총을 받아왔다. 실제로 각 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다보니, 국회 정각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직까지는 신행보다는 당 정치의 전위조직이라는 성격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다.

정당 불자회는 최근 불교계의 이런 시각을 감안해 신행단체이자, 불교외호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다. 또 정기법회와 사찰순례를 통해 당원들의 신심 증장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런 공약(公約)이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공약(空約)으로 남지 않을 때 정치권 불자회의 위상은 확고해질 것이다.

●정당 불자회의 과제=포교 전문가들은 정당 불자회가 불교계를 대표하는 신행단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불자의원의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모범적인 의정생활에 임하는 것이 기본이다. 아울러 정각회의 조직을 좀더 젊게 활성화하고 활동반경을 넓혀야 한다. 또한 통일 환경 문화 민생 여성 법제 등 각 분야별로 소규모 분과모임을 만들어 연구와 활동을 내실화해 나아가야 한다. 불교문화유산의 보존, 계승 · 발전에 앞장섬으로써 불교중흥에 나서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다른 신행단체들과의 연대 및 지원사업도 전개해야 한다.

●정치인 포교 대책 세우자=각 정당 불자회는 무엇보다 불교 신앙인의 모임으로, 회원들의 신심함양 그리고 청정 불국토를 구현하려는 마음이 모인 법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종단에서는 명실상부한 지도법사를 위촉해 매월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등을 통해 당원들의 신심증장을 위한 신행지도에 나서야 한다. 지속적인 신도관리 역시 중요하다. 이웃 종교의 경우 교당 신도가 진급 또는 보직변경시, 또는 좌절시마다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직간접적으로 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종단의 정치권 포교전략은 전무한 상황이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각 신행단체에 맞는 설법 연구와 법사 육성, 수련회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합회 구성 등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등의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게 전부다.

●불교의 사회적 지도력 확대 필요=청와대 및 정당불자회, 공무원불자회 등의 조직화 및 신도교육은 사회포교를 위한 큰 힘이 된다. 이같은 사회 지도층 불자들의 신행조직화는 불교 이익의 구현과 종교편향 문제의 대응은 물론,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을 제고하는 기본 요건이다. 이는 소수의 천주교가 지명도 높은 정치인을 가장 많이 배출한 예에서 잘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 포교원은 대정부 관계를 축으로 독자적 정책, 조직 역량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지도급 불자의 연계와 조직화 추진 △불교 사회운동가의 배출과 재교육 체계화 △불교교적 시각의 사회운동이론의 창출과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불교 대중매체의 유기적 연계와 역할분담 등 사회적 영향력 제고를 위한 포교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부패 정치인 가리자= '불심'은 불자 국회의원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으며,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아야 하는지에 있지 않다. 지역과 민족, 종교간의 화합과 조화로운 발전,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자비봉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불자국회의원들을 보고 싶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명선거운동과 '유권자 선언' 캠페인 등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통한 불교의 이미지 쇄신과 바른 정치문화를 선도하는 필수적인 포교방법이 아닐 수 없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정치에 대한 불교의 인식

경전에서는 불교와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교의 지도적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출가인은 국왕(권력)에게 예배하지 않는다
불교와 정치의 관계를 얘기할 때 흔히 드는 예는 "출가인의 법은 국왕에게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범망경〉의 가르침이다. 이후 이 가르침은 중국에서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이라는 혜원스님의 저술로 정리된다.

■왕은 중의(衆意)에 의해 추대된 사람
국가의 기원과 성격에 대해 〈구사론〉에서는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대중 속에서 덕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한 명 뽑아 각각 자신의 수확 가운데 6분의 1로써 이 사람을 고용하고 방호를 맡기며 전주(田主)로 임명했다"고 하였다. 왕은 중의(衆意)에 의해 추대된 사람이라는 인식이다. 바라문교의 제왕신권설(帝王神權說)과는 거리가 먼 현대국가의 민주공화제, 국가계약설에 더 가깝다.

"가난한 자 병든자에 자비실현"

■사악한 왕(권력)은 추방시키라
사악한 왕(권력)에 대한 태도는 매우 단호하다. "구도자는 힘과 동정심으로 이익과 안락을 줄 마음을 품고, 그에 의거하여 많은 죄악을 짓게 하는 왕위, 권세, 지배권에서 왕이나 권력자들을 추방시켜 버려라."〈보살지지경〉

■수행에 방해가 되므로 권력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출가인은 왕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왕을 가까이 하는 못된 사문은 재물을 바라며, 성이나 마을 혹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항상 재물을 구하며 만족할 줄 모른다. 만일 재물을 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무리지어 임금을 가까이 하면 좌선과 득경에 방해된다."〈정법염처경〉

■찾아와 법을 청하는 권력자는 멀리 하지 않는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왕들로부터 공양을 받았으며 법을 설했다. 〈불소행찬〉에서는 왕에게 수행자의 처소를 찾아 예경하고 법을 구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불교의 지도적 위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치인은 백성 사랑하고, 나라 지켜야
전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성군으로 묘사되고 있었던 전륜성왕은 가난한 자, 고독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 자비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日 공명당, 불교이념 정치적 구현

창가학회 결속 '제3당' 성장

일본 불교의 대표적 종파인 일련정종의 신도단체인 창가학회의 정치적 실험은 정교분리의 원칙과 불교적 정치이념의 구현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창가학회의 조직을 기반으로 창당된 공명당은 의회 내의 의석 확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공명당은 1956년 처음으로 참의원에 후보자를 내어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2001년 7월 초 현재 참의원 24석, 중의원 31석을 차지하여 일본 내 제3당이라는 만만찮은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2000년 6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공명당은 비례대표의 총득표수 776만표를 획득함으로써 약 800만에 달하는 창가학회 회원의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공명당은 야당의 위치에서 자민당 등 기존 정당과의 경쟁에서 초기까지는 탄탄한 종교적 기반 덕분에 어느 정도 중견정당의 규모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명당이 종교정당이라는 점은 거꾸로 더 이상 당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종교적 이상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창가학회의 정치적 실험은 그다지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창가학회가 공명당을 창당할 당시 목표로 내걸었던 '일련정종의 국교화'는 현대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불가능한 목표였다고 해도, 적어도 창가학회가 표방했던 현실적인 강령인 '중도' '평화' '복지'의 이념조차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은 "이것은 창가학회의 정치적 실험, 즉 공명당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종교이념과 현실정치의 모순 속에서 공명당이 근대적인 대중정당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인 현상"이라면서 "창가학회의 정치적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더욱 그 진행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하신년

사단법인 설립공고

그동안 소승이 「불설대안반수의경」의 가르침인 전통 수행법을 범어사의 양익 큰스님으로 부터 전수받아 「선무도」라는 명칭으로 대중포교를 한지 18년이 되면서 금번 정부로 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득함에 따라 교계의 사부대중에게 널리 공지하오며, 선무도 대금강문 문도여러분과 함께 경축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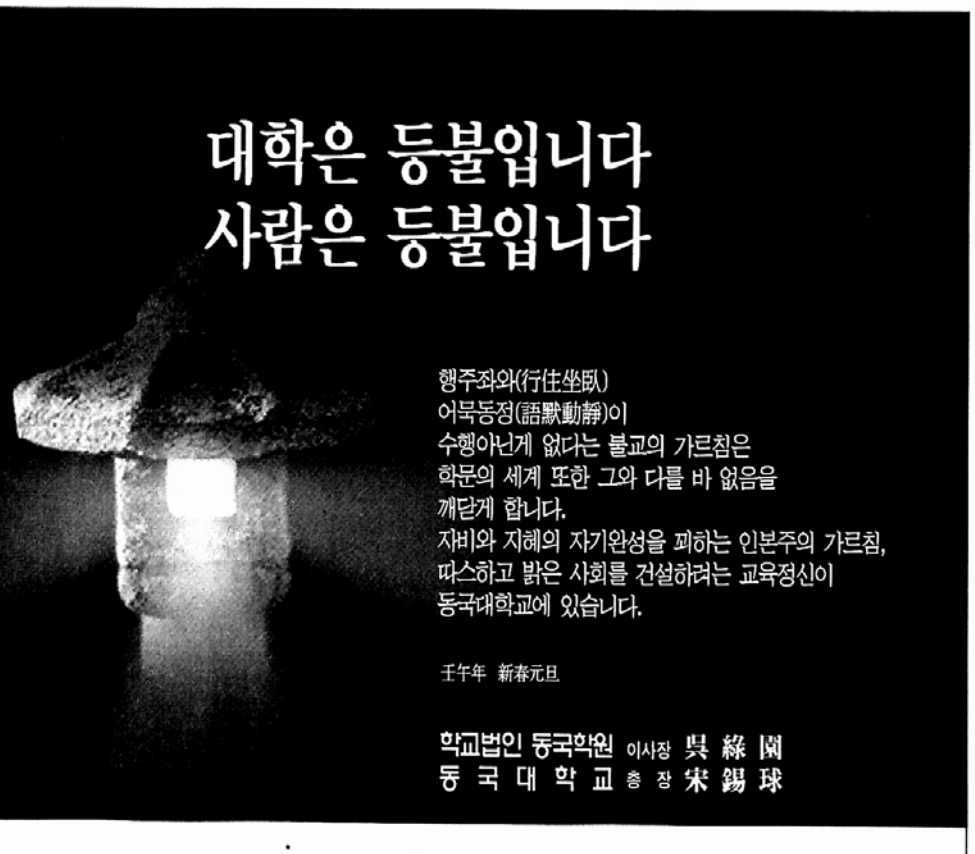
사단법인 세계선무도협회 이 사 장
선무도 대금강문 문주 적운 합장

세계선무도협회지원 지부

골굴사총본원 054-744-1689
FAX 054-746-0172
선무도 대학 054-744-0711
서울포교원 02-763-2980
강남 지원 02-3486-9001
부산동래지원 051-506-1689
중앙동 지원 051-464-1380
해운대 지원 051-704-8998
연제 지원 051-759-5370
보림 지원 051-524-1600
구서 지원 051-515-8323
수안동 지원 051-557-3076
대구 포교원 053-621-2626
울산 포교원 052-275-1321
양산연수원 055-388-0921
포 항 지 원 055-247-3328
동국 대학교 02-2260-3727

U.S.A(L.A)213-487-5378(byong-ho YOON)
U.S.A(FIORIDA)941-656-9642(in chiol CHOI)
CANADA(TORONTO)416-760-7397(jeung-sook KIM)
AUSTRIA(SALZBURG)06-215-5349(GudrunGRAF)
FRANCE(TOULOUSE)05-61-08-1010(FREDERIC FOUBERT)
산하 20개소 지부(학교 문화센터 강좌)

◇홈페이지 sunmudo.com / golgulsa.com ◇총본원 골굴사 선무도 대학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접수합니다.



위성방송시대의 포교환경

위협 받는 안방 법당

질 높은 컨텐츠 '숙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리모콘을 돌리면 140여개에 이르는 채널들이 쏟아진다. 3월부터 시작되는 디지털 위성 방송으로 다채널 시대가 본격화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 영상 포교 환경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안방 신행환경의 혁명적 전환

2002년 5월 어느날, 대구에 사는 40대 김모 보살이 거실의 TV를 켠다. TV 리모콘에서 '즐겨보기' 버튼을 누르자 불교TV의 채널 번호와 프로그램 시간이 화면에 나타났다. 평소 친견하고 싶었던 큰스님 법문 프로그램 시간을 확인하니 오후 2시. 다시 예정된 시간에 TV를 켰다. 법문을 들다 보니 내용이 너무 좋아 저장을 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꺼내보고 싶어졌다. 법문하는 스님의 이력 또한 궁금해졌다. 김 보살은 즉시 대학생 아들의 도움을 받아 리모콘에 달린 볼마우스를 움직여 TV 화면의 커서를 스님 얼굴에 놓고 클릭하자 우측 상단에 작은 창이 뜬다. 화면의 설명에 따라 선택하자 법문 원고와 스님의 이력 사항이 화면에 나타났다. 김 보살은 "신기하다"며 감탄을 연발하고 리모콘의 '데이터 채널'을 누르자 즉시 인터넷에 접속되면서 TV 화면 하단에 E메일 서비스가 떴다. 내친김에 법문 내용중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글로 써 법문한 스님에게 E 메일을 보낸다.

이런 신행 생활의 변화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바로 위성방송의 쌍방향성으로 가능하게 됐다. 깊은 산중의 사찰에도 문자나 영상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텔레뱅킹, 쌍방향 주문 서비스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들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케이블이 들어갈 수 없어 불교 영상매체를 접할 수 없었던 사찰들에서도 교계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고 스님이나 재가불자들이 원하는 포교 영상 자료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어 포교나 신행 생활을 하기가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양질의 컨텐츠 없이는 공염불

이런 포교환경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다양하고 풍부한 컨텐츠의 뒷받침이다. 무더기로 쏟아지는 상업방송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불교 영상 매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게 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이점에 대해 교계의 방송이나 포교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불교방송 홍사성 본부장은 "상업방송이 범람하는 다매체 시대에서 종교방송이 수익을 창출하며 상업방송들과 경쟁에 나가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크다"며 "타종교방송처럼 종단이나 규모가 큰 사찰들의 지원아래 말 그대로 부처님의 정법을 알리는 순수한 포교수단으로 적극 활용될때 포교 영상 매체의 특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자운 디지털 청소년 상담실장도 "폭력, 음란 등 청소년 유해환경이 도처에 숨어있는 상업방송들의 틈바구니에서 불교방송 매체의 생존전략은 감로법문이나 이해하기 쉬운 교리강좌와 같은 포교 위주의 프로그램"이라며 "불교TV가 케이블TV에서와 같은 식의 답습이 반복된다면 위성방송에서도 설땅을 잃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불교TV 위성방송 담당 노원래 차장은 "올 한해는 케이블 TV와 70% 정도는 동일한 프로그램 편성을 실시할 것"이라며 "하지만 위성방송에 대비해 현재 다큐멘터리 등 외주제작된 국내외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노 차장은 "올해말까지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서 목표로 잡고 있는 가입자수가 달성되면 불교TV도 손익분기점을 넘어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불자들의 포교에 큰 도움이 되는 고승법문이나 교리강좌 등 일반 방송과 차별화된 질 높은 컨텐츠 개발이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

위성방송이 실시되면 중국의 연변과 만주, 일본 북해도 지역 등 아시아 불교권 국가에 살고 있는 해외 교포들도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어 해외 포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미 방영된 내용을 재탕, 삼탕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컨텐츠를 채워나가거나 자칫 싸구려 외국 프로그램을 사다 틀어주는 등 시간 채우기에 급급한다면 케이블 TV에서와 같은 실패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미 우리앞에 성큼다가와 있는 위성방송 시대에 불교 영상 매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포교에 효과적인 컨텐츠 확보와 철저한 서비스 무장이 필수적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법문 원고 서비스 등 영상포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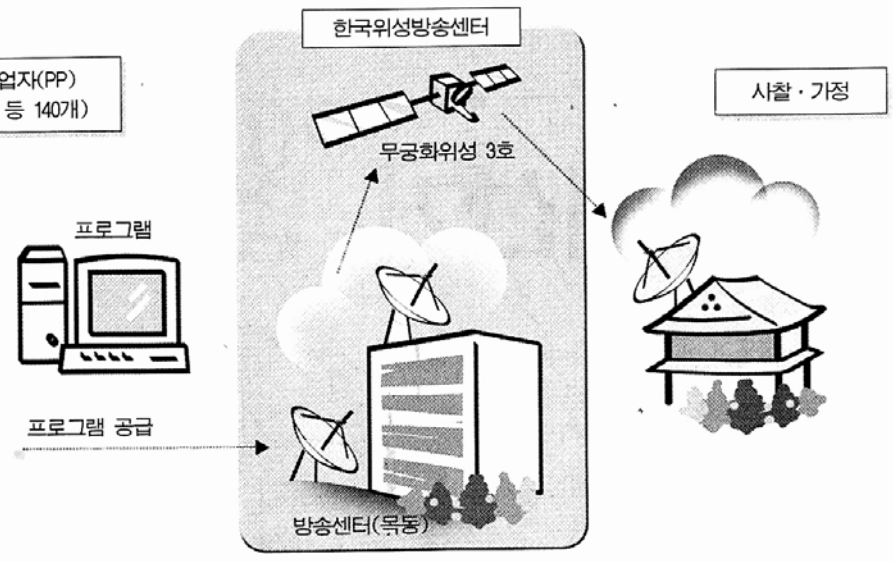
종교채널 자생력 확보 '쉽지 않은 길'

140개 채널 3월 개국

상업방송 '홍수'

종교·교양 '열세'

내년 3월 위성방송이 시작되면 TV 채널 81개와 오디오 채널 60개 등 141개를 볼수 있다. TV 채널을 살펴보면 △영화 11개 △스포츠 6개 △음악 5개 △오락 7개 △교육·2개 △정보 9개 △취미 생활 7개 △다큐 2개 △뉴스 2개 △공공 3개 △홈쇼핑 3개 △종교 3개(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이 있다. 여기에 유료 외국방송 채널 10개가 추가된다. 또 오디오 채널은 60개 모두가 클래식, 팝송 등 음악채널이다. 이와같이 위성방송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50여개 채널이 영화, 음악 등 이른바 엔터테인먼트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 위성방송은 상업방송에 밀려 사면초가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많다. 이에 교계의 일각에서는 불교위성 TV가 상업방송의 홍수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큰스님들의 법문이나 알기쉬운 교리 강좌 등 경쟁력을 갖춘 편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여기에 경영난을 핑계로 컨텐츠의 질을 높이는데 무기력한 경영진의 발상전환과 수많은 불교의 유·무형 자산을 완성도 높은 영상언어로 재창조하겠다는 제작진들의 의지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한국디지털 위성방송이 프로그램 공급사(PP)로부터 전파를 받아 무궁화 위성 3호로 보낸뒤 지상으로 전파를 쏘게 되면 개별 수신자들이 위성TV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불교 라디오-케이블TV-위성 공조 '필연'"

전문가가 말하는 위성방송시대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디지털 위성 방송은 수신을 위해 각 가정의 지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편화되는데는 일정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위성방송의 시작은 다양한 방송이 다양한 취향 집단을 찾아가는 이른바 협송(narrow-casting) 시대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불교계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대해 그동안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왔다. 케이블 텔리비전이 도입될 때는 불교 TV를 설립했고, 위성 방송에도 불교 채널을 서비스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발빠른 조처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는 시행착오를 거듭했음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방송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가지지 못해 운영, 편성, 홍보 등 전반에 걸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케이블 텔리비전 시대를 교사로 삼아 위성방송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매체들은 아주 협소하게 규정된 시청자를 찾아가야 한다는 난제를 안고 있다. 초점이 명확한 시청자층에 소구하는 편성, 제작, 홍보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케이블 텔리비전이 지상파 방송에 비해 훨씬 제한된 인구 층을 대상으로 하고, 위성방송은 케이블 텔리비전보다 더욱 좁혀진 시청자 층에 소구하게 된다. 명확하게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시청자 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 셈이다.

위성방송이 시작되면 불교계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 케이블 텔리비전 방송, 위성방송 불교 채널 등 3개의 방송 창구를 갖게 된다. 비록 제작주체는 다르지만 이 세 주체는 공조체제를 갖추고 역할 분담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불교 방송계는 공조를 통해 종교 방송은 대체로 기존 신도를 위한 서비스, 새로운 신도 확보를 위한 포교, 해당 종교 문화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서비스 등을 어느 창구가 가장 잘 행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 위성방송은 아주 좁혀진 시청자 층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그에 맞추어 적합한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논의를 모아야 할 것이다.

케이블 방송 출범시에 보여주었던 과도한 투자나 큰 사업구상은 피해야 한다. 기존 불교 TV가 제작했던 방송 내용들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지혜도 요구된다. 위성 방송은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 혹은 영화 등과 같은 다른 매체의 내용을 재활용하는 의미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아직 고화질 텔리비전 수상기가 보편화되지 않았기에 화질 등에는 큰 신경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므로 섣불리 디지털 제작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큰 투자는 피해야 한다. 디지털 제작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오히려 케이블 방송이나 영화 등에 투자를 늘려 2, 3중으로 영상 컨텐츠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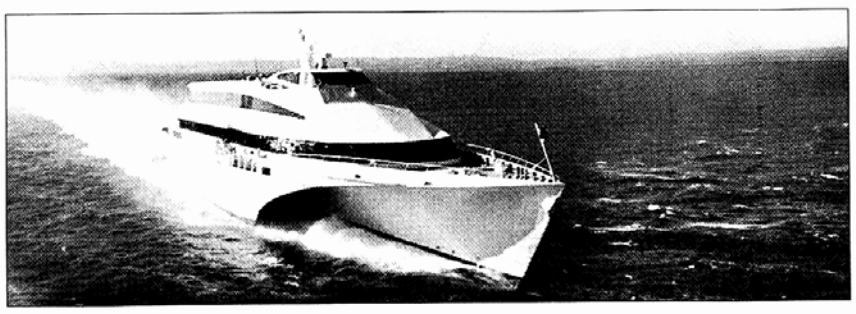
불교 대중 매체간의 공조, 새로운 컨텐츠 확보를 위한 지혜로운 투자 등을 통해 위성방송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새로운 매체의 출범이라는 계기를 불교 영상 매체들이 활용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위성방송이 출범하는 3월은 불교 대중 매체들이 불교의 대중화라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줄 최후의 기회인지도 모른다.



◇위성방송의 시작은 140여개가 넘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도래를 예고한다.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뜨거운 열기로 달아오른 월드컵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나라와 일본을 오가며 전 세계인의 축제가 열리는 역사적인 한 해입니다.
저희 (株)武星 임직원은 한마음으로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며
2002년 3월, 울산-고쿠라(일본)간 쾌속 항로를 개설합니다.
세종 8년 울산이 일본과 개항한 이래 600년만에
울산과 일본간의 역사적인 바닷길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은 3시간대의 더욱 가까운 이웃입니다.

임직원 일동

MSC
(株)武星 · 武星海運(株) · (株)韓日크루즈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5-3 국제여객터미널
TEL 051)441-8888 · 051)441-8886

大韓佛敎 天台宗 釜山三光寺

주 지 김도원
총 무 서덕재 교 무 정도웅 재 무 김광성

◆삼광사 신도회
· 신도회장 안영일
· 부 회 장 윤인오
· 부 회 장 오귀분
· 총무위원 김종기
· 교무위원 김수웅
· 재무위원 이화순
· 재무위원 주랑월자
· 재무위원 신순옥
· 사업위원 민철규
· 기획위원 조수웅
· 조직위원 이영균
· 홍보위원 김형대
· 섭외위원 윤경용
· 부녀위원 김화순

◆지회장단
· 부산진구지회장 한옥현
· 동래구지회장 김석홍
· 남구지회장 장군섭
· 해운대구지회장 하기수
· 금정구지회장 이상호
· 북구지회장 차재철
· 영도구지회장 이병호
· 사하구지회장 김범두
· 동구지회장 구영회
· 서구지회장 윤철준
· 중구지회장 최종경
· 강서구지회장 송종관
· 연제구지회장 이선장
· 사상구지회장 문찬철
· 수영구부지회장 강재복

◆신행단체
· 청년회 회장 이범석
· 봉사회 회장 김홍선
· 지장회 회장 박영채
· 처사회 회장 김성춘
· 화엄합창단 단장 김선희
· 부인회 회장 정옥순
· 원 회 회장 김덕이
· 전통요리 회장 정숙자
· 차문화회 회장 박강자
· 관음회 회장 이명성
· 교원불자회 회장 김종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전화 : (051) 808-7111~5 / 팩스 : (051) 803-1332 / 인터넷 삼광사(http://www.samkwangsa.or.kr)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大韓佛教天台宗

宗正 金道勇 大禪師

總務院 總務院長 田雲德
總務部長 朴德水 敎務部長 邊春光
敎育部長 金勇岩 財務部長 南宮道載
社會部長 金務元 糾正部長 趙珍德
宗正司書室長 李門德

宗議會 宗會議長 尹德山
副議長 張道正 副議長 朴魯昇

監査院 監査院長 朱正山
監査委員 李德海 監査委員 金景遷

參議院 參議院長 朴炯喆
中央信徒會長 金裕赫
金剛佛敎大學長 李載昌
宗典硏究院長 金煐泰

忠北 丹陽郡 永春面 栢子里132-1
☎ 043) 423-7100~8 / FAX : 043) 420-7399

韓國佛教 太古宗

宗正 安德菴

司書室長 徐無空

■ **總務院長 李雲山**
副院長 成圓峰

總務部長 겸 財務部長 禹慧空
企劃部長 겸 糾察部長 金越海
敎務部長 겸 社會部長 高東佑

■ **中央宗會議長 朴芸谷**
副議長 柳旺潭

■ **中央司正院長 金法藏**
副院長 金月雲

총무원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 02) 745-2030 / FAX : 02) 745-1615
www.taegonet.com(총무원) / www.ibudnews.com(한국불교신문)

財團法人 大韓佛教 觀音宗

總務院長 李泓坡
副院長 金智攝

總務部長 黃法明 敎務部長 洪智默
財務部長 金鏡徹 社會部長 李法炫
監察部長 金垈弘

宗會議長 鄭法輪
副議長 朴松月 副議長 金性哲
敎育院長 金東靈
修敎部長 尹祿峰 譯經部長 權宗一
布敎院長 鄭法性
布敎部長 柳牛耕 組織部長 趙法護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3
☎ 02)763-3345,0054 / FAX : 02)763-5851

大韓佛教 普門宗

宗正 千慧眼

元老院長 崔慧月
總務院長 鄭慧日
總務院副院長 崔智性
宗會議長 李智環
護戒院長 曺法綜
總務部長 李法善
敎務部長 金眞雨
財務部長 吳仁太
布敎部長 李明浩

宗徒一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3가 168번지
☎ 02) 928-3797 / FAX : 02) 926-9752

불교 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일상 속에서 실천합니다

종 령 **록 정**
통리원장 **혜 암**

중앙종의회 의장 의강 중앙종의회 부의장 법공

총무부장 운송 서울경인교구장 환수원
재무부장 지성 충청전라교구장 법수원
교정부장 법등 대구경북교구장 우 승
사회부장 대원 부산경남교구장 정정심

http://www.chongji.or.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 02)552-1080~2 / 전송 : 02)552-1082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석파 전석봉
부종정 대정 이혜공
승정원장 신수 이종규

총무원장 각몽 김혜승
부 원 장 혜세 김진봉
사정원장 대안 정추봉
종회의장 혜광 사일복
포교원장 지운 윤태영
교육원장 혜세 김진봉
수선원장 정봉 류해원
문화원장 청봉 이인교

서울시 중랑구 망우2동 515-44
전화 : 02)433-9780 / 전송 : 02)433-9784

대한불교 총화종

원로원장 전야웅
종 정 이동광
부정종 주인현 최혜산

종정사서실장 최만제

총무원장 전남정

종회의장 이만오 교육원장 박청해 문화원장 이도공
감찰원장 백동오 포교원장 권청담 호계원장 조고담
총무부장 박현오 재무부장 이법오 규정부장 이원일
교무부장 윤대암 사회부장 황혜광 조직부장 김화명

경기북부종무원장 유법경 경남서부종무원장 김만월
경기동부종무원장 기혜성 경남중부종무원장 김문곡
경기남부종무원장 장혜철 경남동부종무원장 김만법
경기서부종무원장 김혜암 울산교구종무원장 권청담
강원종무원장 이무덕 경북교구종무원장 박혜법
대전,충남,북 원장 박청해 전남,북 종무원장 이법해
부산종무원장 최만재 제주종무원장 김소운

종도일동

총무원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342-1호
전 화 : 031-592-8891,8892(팩스 겸용)

대한불교 무량종

종정권한대행 총무원장 성혜안

원로원장 : 양지은 원로위원 : 전파옹, 김정현
감찰원장 : 장혜운 문화원장 : 황보현

총무원 총무국장 송보혜 재무국장 박정혜
교무국장 강보연
총무부장 장보일 규정부장 신지담
재무부장 허지웅 사회부장 이법전
교무부장 박보산 포교부장 박보인

서울종무원장 채정수 인천종무원장 박보산
경기종무원장 김보인 충남종무원장 한보각
광주종무원장 허지웅 부산종무원장 황월담
전남종무원장 최보남 경남종무원장 김보경
울산종무원장 김청운 경북종무원장 정호신

종회의장 남지산 부의장 이보운, 허지웅
사무국장 편보성

선관위원장 김보경 상벌위원장 이보운

▶ 총무원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번지 칠보정사
전화 : 055)883-7771 · 7790 / FAX : 055)882-9916

大韓佛教 禪敎宗

宗正 鄭東光

宗乘委員長 金東谷
總務院長 柳慧宗
中央宗會議長 林普雲
中央司正院長 金法宇
總務部長 鄭道耕
敎務部長 文道河
社會部長 金道忍
財務部長 李道信
司正部長 林道眞
儀典部長 文道河

宗徒一同

부산시 동구 수정3동 844-30번지 성광 BD 201호
☎ 051)462-6181/6652 FAX : 051)441-4022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자비심 낼수록 살맛나는 세상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로 내 이웃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지 지금의 내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외면해 버리기 일쑤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보시의 중요성을 설하고 있는데, 자비심으로써 다른 이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무주상 보시를 권하고 있다. 〈아함경〉에는 "바르게 모은 재산을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이는 두 눈을 갖춘 사람이고, 모으기만 할 뿐 베풀지 않는 사람을 한쪽 눈밖에 없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다.

우리는 선우 '시간·재물 3% 이웃위해'

전북 불교단체 '천천클럽' 운영 성과

인덕원·승가원 ARS전화 작은 정성 모여

●불교계, 나눔에 인색

50여 사회복지법인 산하 4백여 인가 복지시설과 3백여 비인가 복지시설이 있는 불교계에는 '나눔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장애인, 고아, 무의탁 노인들을 살고 있는 복지시설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들 복지시설들은 정부 지원금, 운영자의 사비, 후원금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 지원금은 기대치 이하를 맴도는 실정이고, 사비의 출연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복지시설에게는 후원금이 큰 힘이 된다.

그러나 불교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불자의 몇 %가, 어느 정도를 '후원'하지는 지에 대한 통계조차 없을 정도로 불교계의 후원문화는 척박하다. 복지시설의 후원 현황을 보면 상황이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불교계의 대표적 복지시설인 원주 소쩍새마을은 최근 2년간 후원금이 30%가량 감소했다. 후원자들이 후원을 끊거나 규모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정은 연꽃마을이나 불교자원봉사연합회를 비롯해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및 노숙자 시설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후원금, 왜 부족한가

"부정기적이고, 연말연시 등 반짝 보시가 많기 때문이다. 후원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후원에 대한 불자들의 생각이 우선 바뀌어야 한다"(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호걸 과장)는 지적에서 "어디에, 어떻게 보시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가 없어 자발적 참여 의지를 가진 사람마저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서울시립노인요양원 권경임 원장), "기금조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부분이 소식지 발송과 지로 납입에 한정되어 있다. 장학금 등 보시자가 지정하는 '맞춤식 기금'이나 아이디어 기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시간 나눔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진각복지재단 곰두리네집 엄성봉 소장), "후원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것도 한 이유다. 후원만 받으면 그만 이라는 각 시설과 단체들의 안이함에 불자들의 호응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중앙승가대 류승무 교수) 등의 지적까지 다양하다.

●불교계 후원문화, 이제 시작

이에 따라 불교계 복지법인들은 요즘 성금 모금의 다변화를 꾀하는 데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후원 회원들에게 소식지를 발송하거나 연말 정산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이미 고전적인 관리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과 승가원은 ARS 성금 모금전화를 2001년 신설했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08배 릴레이 행사'를 기획, 결식아동 후원금을 모금했다. 복지시설 역시 후원금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청담사회복지관은 금천구 관내 업소들의 지원을 받아 사랑의 모금함을 설치했고, 강북장애인복지관은 강남 봉은사와 함께 '사랑의 저금통'을 배포했다.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보시자에게 무료적성검사를 해주고 있으며, 관악구 지장사 까치마을은 후원회원들에게 까치마을 수련원 농장에서 만드는 전통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상설 물물 교환 장터'를 개설하는 복지시설도 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시설에 대한 후원의 주체가 되는 신행단체에서도 다양한 보시 형태를 선보이고 있다. 우리는 선우는 시간 및 재물의 3%를 이웃과 사회를 위해 쓰자는 결사운동을 펼치고 있다.

아직 반향은 적지만 참여불교재가연대도 정기소득과 유산의 1% 보시, 주간·월간 단위 시간의 1% 봉사활동 참여, 1% 남을 위해 기도하기 등의 '나누는 삶을 위한 4대 방편'을 제시하고 불자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전북지역 불교단체가 시작해 타종교인의 동참까지 이끌어낸, 1천명이 천원씩 내는 '천천클럽'과 'Give 5%' 캠페인을 전개하는 도봉경찰서 불교회, '1지부 1복지시설 결연'을 추진키로 한 불자교정인연합회, '매달 1,000원 보시' 캠페인을 전개키로 한 철도청불교협의회와 성북구청불자회 등도 좋은 예이다.

이에 대해 소쩍새 마을 원장 현각 스님은 "후원금은 원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돌보아 주고 염려해주는 이들이 있다는 데에 안도하게 하며, 살아가는데 용기를 준다"며 "불자들의 정기적인 후원문화가 빨리 정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 원장 능광 스님은 "큰 돈이 있어야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후원금 보내기'에 장애요인인 것 같다"고 지적하고, "정성스럽게 보내는 한푼 두푼의 후원금이 내 이웃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작은 보시라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환한 웃음을 선사할 수 있다'. 사진은 환한 웃음으로 후원자를 맞고 있는 서울시립 노인요양원 할머니들.

◀'Give 5%' 운동을 전개하는 도봉경찰서 불교회는 매년 두차례 관내 무의탁 노인잔치를 열고 있다.

"월급 쪼개 나눔실천 오히려 행복"

17년간 매년 2백만원 이상 기부

전국경찰불교회 박희영 사무국장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 보시만큼 좋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84년 무의탁 폐결핵 환자들이 살고 있는 '한 삶의 집' 후원을 시작으로, 혼재 소쩍새 마을, 연꽃 마을, 나눔의 집, 성양원 등의 복지시설에 매달 2만원씩을 후원하고 있는 전국경찰불교회 사무국장 박희영 씨(경찰청 전산과 입력실장·50).

"무언가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 자동이체라는 방법을 택했다"는 박 씨는 "17년간 매월 10만 원이 넘는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지만,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되리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이들 시설 외에도 동국대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며 학과 봉사모임 연우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분기마다 15만원의 후원기금을 적립하고 있기에 연간 2백만원 이상의 성금을 내놓는 셈이다.

박 씨에 따르면 보시는 여유의 돈을 주는 게 아닌, 사회적 투자이며, 보시자는 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계속해야하는 책임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자금운영에도 도움을 주어야 하며, 후원 이후 복지시설의 변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박 씨는 "쳐자식이 있는 월급쟁이지만, 나보다 불행한 이웃들을 위해 매달 월급을 쪼개는 일이 즐겁다"며 "십시일반 정성을 모으는 일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도리어 즐거운 일"이라고 말했다.

불교계 밖에선 …

지로납입을 주요 후원 방법으로 삼고 있는 불교계와는 달리, 일반 사회에서 불우이웃이나 복지시설을 후원하는 방법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ARS나 자동이체 후원은 기본이고,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것으로 약정된 경매 용품, 보험 상품, 연극 티켓, 문화 상품권 등이 판매되고 있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재물과 시간의 1% 기부하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늘고 있고 운동선수 중 성적에 따라 약정 금액을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일에 쾌척하는 사람들도 많다.

'아름다운 재단'의 1% 기부 캠페인에는 개인들 이외에도 매달 공연 관람권 1%를 기부하는 동숭아트센터와 공연기획210, 보험 가입자가 훗날 보험금 1%를 기부하겠다고 약정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 영풍보험 등이 참여할 정도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 캠페인은 매출 1%를 기부하는 나눔의 가게, 유산 1% 나누기, 월급 1% 나누기 등 각종 영역에서 1% 나눔 운동의 유행을 낳았다.

전자경매카드를 판매하고 있는 '올앳'은 경매장에

월급 1% 나누기

골퍼 '버디' 때 기금 적립

단체·개인 후원 '다양'

선보일 용품 가운데 판매시 1,000원을 기부하는 용품을 정해놓고, 수익금 일부로 한국이웃사랑회의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캠페인을 후원하고 있다. '사랑이 가득한 사회를 위하여'는 ING생명보험(주)과 함께 '사랑의 보험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골퍼 허석호 씨의 '사랑의 버디' 운동도 빼놓을 수 없다. 허 씨는 버디 1개 당 2만원, 이글에는 5만원씩을 모아 연말에 장애인선교회의 '휠체어보내기'에 동참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벤처기업들과 '한사랑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월급에서 1000~1만원씩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모금회에 매월 입금되는 돈이 1200만원을 넘는다. 이 단체는 물건을 살 때 카드에 쌓이는 포인트를 기부하는 '포인트 기부', 약정금액이 휴대폰 요금에 가산되는 '휴대폰 기부' 등의 원격기부 방식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기부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프리챌(freechal.com)은 'e나눔세상채널' 코너를 개설, 기부 상품을 만들고 구매액 10%를 적립하는 후원 방법을 선보였다. 전자결제업체인 데이콤사이버패스(cyberpass.com)도 사이버머니를 이용한 심장병 어린이 돕기 행사를 펼치고 있고, 야후코리아(yahoo.co.kr)는 '야후 문화상품권'을 이용해 이웃을 돕는 '사랑의 해피머니'를 실시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2002학년도 대원불교대학 입학안내

- 30년 전통 2000여 동문의 교계 최초의 불교 교양 대학 -



대원불교대학 전경



▷ 대중불교 운동의 실천



▷ 넉넉한 교육환경



▷ 불교전문 도서관 운영



▷ 30여 년의 전통과 2,000여 동문

■ 강의시간 3월 4일 개강 주 3일 출석, 5과목 강의 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옥(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김종욱(동국대)

■ 특별초빙교수 마일운스님(범패전승자)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현대불교윤리
	2학기(14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우리말불교의식

■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 – 출강·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 서류전형
· 불교학 통신 00명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 합격자 개별통지

■ 원서교부 및 접수 2002년 2월 20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

■ 입학식 2002년 3월 3일 오전 10시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성적우수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大圓佛教大學 학장 혜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불기 2546년 성도절 기념

대원불교대학 동계 수련대회

○ 일 시 : 2002년 1월 18일 ~ 20일 (2박 3일간)

○ 대 상 : 대원불교대학생 및 일반 불자

○ 참가비 : 30,000원

○ 장 소 : 대원불교대학(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 초빙교수 및 강의 내용

* 장휘옥 교수 : 관세음보살 보문품강독
* 최봉수 교수 : 인도불교의 이해
* 김사업 교수 : 중관사상의 이해
* 허경구 교수 : 부파불교의 이해
* 마일운 스님 : 삼보통청 실수
* 민법현 스님 : 불교와 레크레이션
* 김종욱 교수 : 불교와 도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구, 간편한 운동복, 간단한 침구

* 수련일정 중 식사는 발우 공양을 합니다.
* 성도절을 맞이하여 철야용맹정진을 합니다.
* 수련 규칙 위반시 퇴방조치 합니다.

대원불교대학에서 일할 사무직원을 모집합니다

● 대 상 : 여사무원 1명

● 자 격 : 초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OA 사무가 가능한 자 [불교전공자 우대]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 제출기한 : 2002년 1월 31일까지

사이버 신행 새 풍속도 봉사모임 '활기'

직장생활로 절에 갈 틈이 없던 직장인들도, 가사에 바빠 봉사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던 주부들도, 학교생활에 쫓겨 마음의 여유가 모자랐던 아이들도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마음껏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사이버 신행의 시대. 초기에는 경전공부 및 교리 강좌에 국한되어 있던 사이버 신행의 경향이 2001년을 기점으로 수행과 봉사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교리를 배우고 각종 봉사도 하는 등 불교 신행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픽= 최정근

인터넷 불교사이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사이트는 불교교리강좌, 성지순례, 자원봉사 등, 수동적인 사이트 서핑에서 능동적인 오프라인 봉사까지 사이버 신행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다음넷의 '심박연합(심장의 박동소리와 연꽃의 향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 보자. 들어서는 순간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이 카페 곳곳에 배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카페는 봉사활동과 후원활동을 주로 하는 곳이다. '헌혈증모음방', '천천클럽후원', '군대법당후원', '선재동자원후원' 등 평소 불자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한다. '헌혈증모음방'은 헌혈증을 모아 생명나눔실천회에 기증하는 모임, '천천클럽후원'은 기존 오프라인의 천천클럽에 동참하는 코너이다. 매월 1구좌 천원이상씩 후원해 소년·소녀 가장, 독거어르신, 소년원, 양로원 및 기타 도움이 필요한 모두에게 후원금을 전달한다. '군대법당후원' 모임에서 모이는 후원금 및 물품은 불자 장병들의 정기법회, 각종 불교행사 지원 등에 사용된다. 통일안국사 선재동자원 아이들을 돕기 위해 구성된 '선재동자원후원' 모임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은행지로,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선재동자원을 후원한다.

다음넷의 '해인사의 향기'는 참선방이 으뜸이다. 회원들이 서로 서로 도와가며 참선수행에 관해 배우며 실천하고 있다. 참선 모임 뿐 아니라 경전공부모임, 茶 사랑방 모임 등 다양한 모임에서 생활선을 체험하며 진정한 참선의 묘미를 알아가는 곳이다.

프리챌에 기반을 둔 '바른법연구원' 커뮤니티는 〈금강경〉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금강경〉의 하문적 연구 뿐만 아니라 〈금강경〉 수행법의 체계화, 〈금강경〉의 진리에 어울리는 사이버 수행 등 흥미진진한 〈금강경〉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런 커뮤니티 외에 개인이 운영하는 곳 중에서 방문자가 10만명을 넘는 이재윤의 불교교양강좌와 서재영의 불교기초교리 등은 인기절정이다. 이 두 곳은 불교교리와 문화 등을 두루 섭렵하면서 네티즌들의 불교정서 함양에 큰 몫을 하고 있다.

헌혈증 모으기 - 군법당 후원
직장인 · 주부 · 학생 동참
교리강좌 · 참선방 방문자 꾸준

이재윤의 불교교양강좌는 1999년 4월 19일 오픈한 이후 방문자가 17만여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는 사이트이다. 신행 코너에서는 불교방송 듣기, 불교신앙생활, 설법, 불교음악 등을 제공한다. 서재영의 불교기초교리는 여러 도우미들의 경전해설코너가 인기만점이다. 평소 쉽게 접근하지 못하면 〈원각경〉 등 경전을 초발심자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다.

PC 통신 동호회들의 인터넷 진출도 눈에 띈다. PC 통신을 기반으로 활동을 해오던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등이 속속 인터넷 둥지를 틀고 기반 이전에 나섰다. 유니텔 부처님나라는 꾸준히 둥지마을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모임을 유지하고 있다. 10여명 안팎의 사람이 모여도 매달 거르지 않고 둥지마을을 방문한다. 망가진 신발장을 고치고 준비해간 책을 나눠주면서 서로 간의 사랑을 교류한다.

경전공부에 관한 자료가 많은 '천리안불교동호회(이하 천불동)'는 다양한 불교의 내용과 불교공부 이야기, 법구경이야기, 반야심경강원 등의 게시판으로 회원들의 사이버 수행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홈을 오픈하고 동영상 자료 구축 등 인터넷 기반으로의 업그레이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곳에는 천불모(어머니 모임) 등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들을 수용하는 소모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강지연 · 이한길 기자

가볼만한 불교사이트 20선

조계종(http://www.buddhism.or.kr)
진각종(http://www.jingak.or.kr)
해인사(http://www.haein-sa.org)
조계사(http://www.jogyesa.net)
한마음선원(http://www.hanmaum.org)
무진법장사(http://www.bupjangsa.org)
마하선원(http://www.mahazen.org)
정법스님의 불교이야기(http://jb8985.buddhism.org)
이재윤의 불교교양강좌(http://studybud.buddhism.org)
서재영의 불교기초교리(http://www.buruna.org)
하이텔 불교동호회(http://forum.hitel.net/bud)
천리안 불교동호회(http://www.buddhasite.net)
디지틀불교연맹(http://kr.buddhism.org)
불교전문검색엔진 선재(http://mirk.new21.org)
인터넷 불교교육원(http://compassion.buddhism.org)
화엄경 총론(http://www.buruna.co.kr/dharma)
인연(http://cafe.daum.net/inyon)
나무아미타불(http://cafe.daum.net/amtb)
심장의 박동소리와 연꽃의 향기가 있는 곳(http://cafe.daum.net/simhyang)
바른법연구원(http://www.freechel.com/diamond)

"클릭! 언제나 일주문 열려요"
사이버 법장사 주지 퇴휴 스님



◇인터넷 상담을 하고 있는 퇴휴 스님.

"우리 법장사 불자들은 두개의 사찰을 다닙니다. 하나는 기존의 오프라인 사찰이고 또하나는 '사이버 템플 법장사(www.bupjangsa.org)' 죠"

불교도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포교를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거창한 중창불사를 대신해 '사이버 템플 법장사'를 오픈 한 서울 중랑구 묵1동에 위치한 법장사 주지 퇴휴스님.

스님은 사이버 템플의 출현으로 기존 오프라인 사찰의 기도 중심 신행패턴이 변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프라인 사찰은 우선 찾아가야 하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지만 사이버 템플은 관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일주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현재 사이버 템플 법장사는 사찰 소개는 물론 매주 봉행되는 일요법회의 법문과 찬불가 및 독경 배우기가 업데이트 되고 있고, 학생회와 신도회 등 사찰 제 단체들이 커뮤니티를 구성,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불법을 배우고 있다.

"사이버 템플을 방문하는 네티즌들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와 설법, 경전공부, 찬불가 및 독경 듣고 따라하기, 신행상담 등을 통해 불교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의 경우 컴퓨터를 켜고 사이버 법장사에 접속한 후 독경을 들으며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출장이나 해외 이민간 신도들까지도 매주 일요법문을 들으면서 신행생활을 생활화하고 있지요."

김두석 기자



그림 · 김영민

서원은 좋은 씨앗 심는 일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1월-발심의 달
- 원(願)을 세우자
- 봉은사 초발심전법회
- 나의 초발심 시절
- 초발심자경문 공부현장

원(願)을 세우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사는 조점복(57) 오귀자(57) 부부는 새해 "주위의 친척, 친구들에게 전법하기"라는 서원을 세웠다. 지난해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조점복씨는 2남2녀를 다 결혼시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관계로 올해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하는 '이웃포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인과 나란히 전북불교대 불교학과에 등록해 불교공부를 하고

개인적 욕심과는 달라

있는 조씨는 불교를 모르는 무종교인들에게 불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예정이라고 밝힌다.

대승불교에서는 서원을 수행의 첫 걸음으로 삼고 있다. 원을 세운다는 것,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욕심과는 다르다. 욕심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바람이지만 서원은 공통적 바람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것은 오직 나만을 위한 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인류전체, 나아가서는 일체중생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는 것이다. 불자들이 법회에서 한목소리로 하는 '사홍서원'이 바로 대표적인 큰 서원이다.

성북, 구로 등 18개 철도청 불자회, 1천여 회원이 있는 철도청 불교단체협의회는 올해 '실천하는 불자상을 세우자'는 원을 세웠다. 부처님가르침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야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매월 1인당 1천원씩 불우이웃을 위한 적립금으로 보시하자고 원을 냈다. 정찬연 총무는 "빠듯한 봉급이지만 불우이웃을 위한 기금마련으로 작은 자비행이라도 하자는 원력들이 모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원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의 삶은 천양지차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한다. 원을 세운 사람은 과녁을 향해 화살을 날리는 사람같이 목표가 뚜렷해 그 성취가 쉽다. 그러나 원을 굳건하게 세우지 못한 사람은 과녁없이 화살을 그냥 쏘아대는 사람처럼 정진하더라도 성취가 어렵다는 것이다.

참다운 자기전환의 삶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이 없다. 좋은 결실을 맺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씨앗을 심느냐이다. 원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그 씨앗이다.

또 한 해를 맞는다. 무언가 다른 삶, 참다운 자기전환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창조적인 삶, 좋은 과보를 얻고자 원하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전에 간절한 서원을 세우고 그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정진 또 정진하자.

이경숙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Chogye sect of korea HAN-MA-UM-SEON-CENTER

지난해 불사에 동참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노고와 정성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불기 2546년 임오년 한해도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원장 혜 안 합장
신도회 일동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 052)295-2335 FAX : 052)295-2336

謹賀新年

봉사하는 불교 노인복지관이 있는
실상선원 천축사

주 지 성환

사부대중 신도일동

■ 실상선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전화 : 02) 745-8503 / 011) 286-2680
■ 천축사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천축사 전화 : 041)734-2680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新興寺

會 主 雪岳 霧山
住 持 釋馬根

대 중 일 동

- **사회복지법인 신흥사 복지원**
  - 반야 노인 요양원 ◦반야 어린이집
  - 장사 룸비니 어린이집
  - 연꽃 어린이집
  - 속초 종합 사회복지관
  - 구로 종합 사회복지관
  - 본동 종합 사회복지관
  - 신도림 종합 사회복지관
- **재단법인 신흥사 성준장학재단**
  - 만해 · 의상 연구 ◦장학생 지원
  - 각종 학술 세미나지원
- **설악산 향선선원**
- **신흥사 불교대학**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전화 : 033) 636-7044 · 7393
팩스 : 033) 636-7556

대한불교 조계종 제 4교구 본사

월 정 사

회 주 인 허
주 지 현 해

대 중 일 동

■ 232-941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원주실 : 033) 332-6661 ~ 2
종무소 : 033) 332-6664 ~ 5
팩스 : 033) 332-6915
◦오대법보 편집실 033)333-6296
◦월정사 성보박물관 033)334-1817

◦월정사 진부 연꽃 유치원
월정사 진부 연꽃 어린이집
전화 : 033) 335-8853 ~ 4

대한불교 조계종 제 5교구 본사

법 주 사

주 지 석지명

부 주 지 무 상
기획국장 지 원
재무국장 각 원
교무국장 각 신

사부대중 일동

■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번지
사무실 : 043) 543-3615 · 543-8655
원주실 : 043) 543-4755
FAX : 043) 543-3620

대한불교 조계종 제 8교구 본사

直 指 寺

조실 관 응 회주 녹 원
주지 법 성 강주 의 룡
총무 범 초 교무 현 봉
재무 장 명 포교 현 종
박물관장 흥 선
연수원장 법 일

대 중 일 동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번지
사무실 : 054) 436-6174 · 6013

대한불교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선찰 대본산 금정산

범 어 사

조 실 지유
주 지 성오
부 주 지 지연
총무국장 도관
기획국장 정야
교무국장 용학
재무국장 정여
사회국장 범일
포교국장 지종
호법국장 각우
원주스님 초안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전화 : 051)508-3122
팩스 : 051)508-3229
홈페이지 : www.beomeosa.net

"종단화합을 열어가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方 丈 : 老天 月下
副方丈 : 草宇 德眞

住持 : 玄門
講主 : 中山
總務 : 山翁
敎務 : 曉梵
財務 : 泰然
布敎 : 悟心
護法 : 普化

총림 대중일동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전화 : 055) 382-7182
팩스 : 055) 382-7196

대한불교 조계종

계룡산 갑 사

주 지 장 곡

사부대중 일동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
전화 : 041)857-8981 ~ 2

대한불교 조계종
가락최대고찰 신어산

은 하 사

주 지 대 성

보현회 회장 문수용
금옥회 회장 황월강화
관음회 회장 안자항심

사부대중 일동

■ 경남 김해시 삼방동 888번지
전화 : 055)337-0101

대한불교 조계종

내원정사

주 지
관 장 정 련

- 사회복지법인 내원 · 몰운대복지관
  TEL : 051)264-9033
-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시설 반야원
  (치자마을)
- 경남 거제시 동부면 부천리 346
  TEL : 055)632-1854
  법인사무국 : 051)261-9627
-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함지골청소년수련관
  TEL : 051)405-5222-4 · 405-6079

■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2
전화 : 051)242-0691

雉岳山 龜龍寺
原州 佛敎大學

住持(慈光)
李遠行

대 중 일 동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29번지
전화 : 033) 732-4800 ~ 3
팩스 : 033) 732-1211

열린불교 생활불교의 관음도량
대한불교천태종

서울 우면산 관문사

주 지 변춘광
총 무 곽수산
재 무 이덕중
섭 외 구성해
부 전 조동문
신도회장 배두출

대중 일동

[정기법회 매월 첫 번째 일요일 오전 11시]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전화 : 02)3460-5300 팩스 : 3460-5200

대한불교 천태종

대구지부 대성사

주 지 이문덕
신도회장 김소암

■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520-3
전화 : 053) 624-0542
팩스 : 053) 623-0265

(재) 대한불교 조계종

안국선원

신도회일동

- 법회 안내
  부산법회 : 음력 매월 초하루
  매월 보름
  서울법회 : 음력 매월 초사흘
  매월 열여드레
  창원법회 : 음력 매월 스무나흘

서울 02)744-0779 · 744-0772
부산 051)892-9877
창원 055)281-0772
미국 휴스턴 001-1) 713-467-0997

www.ahnkookzen.org
www.ahnkooksunwon.org

新羅佛敎初傳法輪聖地
白龍城組師悟道聖地
阿 道 毛 禮 園

조실 겸 주지
도 문
노 전 보 승

■ 경북 구미시 도개면 도개 2리 347번지
전화 : 054)474-0839
054)475-0839
054)474-5108 ~ 9
팩스 : 054)474-0879

대구광역시
대한불교 조계종

사원주지연합회

연합회장 원 명
신도회장 이정애
(바라밀)

■ 대구시 수성구 황금 1동 산 143-1
전화 : 053) 741-1441
736-9824
팩스 : 053) 761-9347

밝은길 아바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터넷 도서주문



◇성진(14 · 회룡중 1년, 사진 왼쪽)이와 윤호(15 · 회룡중 2년)는 방학식을 마치고 돌아온 오후에도 책을 펴들었다. 둘은 학교에서도 우등생이다.



◇지산스님은 늘 아이들과 대화를 나눈다. 진짜 '아빠'가 되기 위해서다. 아이들도 '아빠'의 말에 곧잘 귀를 기울인다.



◇선재동자원의 재롱둥이 준호(5)가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율동을 하고 있다.

세상살이 고달픔 알지만…

"커다란 희망 안고 살아갑니다"

의정부 통일안국사 48명 선재동자들의 새해맞이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아이들은 새벽 5시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에 참석한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성진(14)이가 목탁을 치며 집전을 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모두 예불문과 반야심경을 왼다. 오후 5시 저녁예불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너나할 것 없이 예불 때마다 발원을 한다. '지훈이 병 낫게 해 주세요' '엄마 아빠 만나게 해 주세요' '부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인연따라 모였지요

버려진 아이들. 의정부시 호원동 통일안국사(031-876-2235)에는 이런 아이들 48명이 모여 산다. 아직 학교에 가지 않는 꼬마들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학생까지 있다. 이 아이들은 저마다 치유되기 힘든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엄마, 아빠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 친척집을 전전하다 이곳에 오게 된 아이, 엄마가 가출한 뒤 아빠 손에 이끌려 온 아이….

사람들은 이곳을 '선재동자원'이라 부른다. 통일안국사 주지 지산스님이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살기 시작한지 어느덧 9년. 가엾은 생각에 돌배기 고아를 데려다 키우면서 버려진 아이들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이곳을 거쳐 나간 아이들만 해도 벌써 30여명. 세상은 이 아이들을 '고아'라고 부르지만, 지산스님은 '선재동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 선재동자원.

22일 오전, 인근 회룡사 어린이법회 아이들 12명이 선재동자원을 찾아왔다. 이틀 동안 이곳 아이들과 함께 뛰놀게 해달라는 지산스님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곳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보다 정서가 불안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른 아이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삐뚤어진 성격으로 자랄까봐 그게 더 걱정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아이들과 뒤섞여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한다.

20평 남짓한 여학생 방에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장군(3)이와 세룡(3살)이가 형과 누나들 틈에 끼어들어 재롱을 부린다. 보기에도 가여울 정도로 시커멓게 튼 손. 성민(12)이가 장군이를 번쩍 들어 안고는 손등을 어루만진다.

초등학교 6학년인 성민이는 우등생이다. 공부도 잘하지만 동생들을 잘 돌보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이곳에 온 지는 벌써 6년째. 엄마, 아빠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성민이는 엄마, 아빠를 찾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아예 고개를 돌렸다. 부모에게 버려진 아픈 기억이 되살아난 걸까.

비인가 정부 지원 못받아
"엄청난 병원비 · 겨울 날 걱정"

성민이에게는 꿈이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다. 혹시 나중에 만나게 될지도 모를 엄마, 아빠에게 보란 듯이 자랑하고 싶단다. 미워할수록 커져만 가는 그리움. 성민이도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언제나 밝은표정

법당 아래 30평 남짓 되는 공간의 주인은 이곳 남학생들이다. 책상10개, 컴퓨터 3대, TV 1대가 세간의 전부지만, 28명이 함께 자는 공간치고는 턱없이 비좁다. 하지만 누구도 불편하다는 내색을 하지 않는다. 이곳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지산스님은 그런 아이들이 대견스럽다. 하지만 마음은 늘 안타깝다. 더 좋은 밥에, 더 좋은 옷. 그리고 더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지만 언제나 마음뿐이다. 아이들은 스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천자식이나 다름없는 아이들. 용돈 몇 백원이라도 더 쥐어주고 싶지만 겨울에는 기름보일러 비용조차 조달하기가 벅차다. 하지만 스님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불국정토를 여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선재동자원 운영에 있어 후원자와 신도들의 보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비인가 시설이라서 정부나 시의 지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은행에서 융자받은 돈만도 만만치 않다.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으려면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시설규모도 갖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가시설이 되면 18세가 된 아이들을 무조건 내보내야 하는 정부의 규정도 지산스님이 인가시설을 마다하는 이유 중 하나다.

미예(16)는 만능 운동선수로 통하는 동순(17) 언니와 이쁜이 옥래(15)와 함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내년에 고3이 되는 동순이는 체육학과에 진학해 체육선생님이 되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 옥래는 김희선 언니와 같은 유명한 탤런트가 되는 것이 꿈이다. 얌전한 동순이, 톡톡 튀는 옥래, 새침데기 미예는 성격만 보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끔찍하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세상살이의 고달픔을 일찍 알아버린 탓일까, 의지할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다는 것이 이 셋에겐 가장 큰 아픔이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래도 아이들의 가슴 밑바닥에는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따스함이 늘 자리잡고 있다. 미예는 돈을 많이 벌어 자기처럼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다.

"사업가가 될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을 지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살게 해주고 싶어요.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게 해 줄 거예요…."

스님은 요즘 들어 부쩍 권철(20)군을 자주 찾는다. 지난해 공고를 졸업했지만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권철군은 올 3월에 입대하기로 결심했다. 어디를 가도 '고아'라는 꼬리표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 현실이 진절머리가 난다. 스님도 그런 사실을 잘 알기에 누구보다 마음이 쓰인다.

선재동자원의 또다른 고민거리는 15개월된 막내둥이 지훈이 병원비 문제. 생후 3일만에 산부인과에 버려진 지훈이를 데리고 왔지만 다운증후군에 심장병까지 앓고 있어 한달 병원비만도 5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

신도 · 후원자 보시에만 의존

저마다 아픔을 마음 한복판에 걸어놓고 사는 아이들이 모인 곳 선재동자원. 하지만 새해를 맞아 이곳 선재동자들도 갖가지 꿈을 펼쳐놓는다. 의사가 돼 자기처럼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겠다는 뇌성마비 장애인 정자(11), 육군 장교가 되겠다는 명섭(14), 벤처사업가도 선생님도 되고 싶다는 성진(14), 과학자가 꿈이라는 치훈(12)과 성주(11), 카레이서를 꿈꾸는 승환(11)….

이 아이들에게 꿈은 어떤 의미일까. 보통 아이들처럼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희망만은 아니다. 이 아이들에게 있어 꿈은 혼자 사는 방법을 익히는 고된 연습이다.

정훈(7)이가 와락 품에 안겼다.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만난지 서너 시간 밖에 안된 사람에게 안길 정도로 정이 그리운 아이들. 이곳 아이들은 또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간다. 새해에도, 그 다음해에도, 또 그 다음해에도… 그리운 사람들을 만날수 있게 해달라는 소망으로.

글=한명우 기자 mwhan@buddhap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a.com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회룡사 어린이법회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선재동자원 아이들.



◇병천(13)이와 재성(10)이 등 몇몇 아이들은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다. 아이들은 축구공 하나로 늘 의기투합한다.

상표등록
미수타
근하신년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긴급 써비스
기술 지원 팀
011 · 9996 · 8872
절단 기술이 모두에게 안전과 행운을 드립니다
주식회사 TG 반도체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74-20
전화 031-791-8871 792-8867~8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원증국사 '甘露心'

국사의 법명은 보우(普愚), 법호는 태고(太古), 시호(諡號)는 원증(圓證), 속성은 홍 씨이다. 고려 충렬왕 27년(1301)에 익화현(益和縣:지금의 경기도 양평군 양근)에서 태어났다.

13세에 회암사의 광지 선사에게 축발한 국사는 19세 때에 만법귀일(萬法歸一)의 화두로 용문산에서 참구하였다. 26세에는 화엄학과 여러 경전을 공부하여 그 깊은 뜻을 깨달았다. 그러나 국사는 탄식하여 말하였다. "이것도 전제(荃蹄 : 고기를 잡는 통발과 토끼를 잡는 덫으로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란 뜻)일 뿐이구나. 옛날의 조사님들은 높은 뜻을 세워 일이 거칠지 않았는데 어찌 나만 깨닫지 못하는가" 하시고 곧 모든 인연을 끊고 용맹정진하였다. 수행처를 성서(城西) 감로사로 정한 국사는, 마음과 육신이 나약하고 게을리하여 큰일을 성취하지 못할 바에는 부처와 조사 그리고 산하까지도, 입이 없이 모두 삼켜 버렸네.

이후 봉갑사에 계시면서 〈원각경〉을 읽다가 '모두가 다 사라져 버리면 그것을 부동(不動)이라 한다'는 여구(語句)에 이르러 모든 지해(知解)가 없어졌으며, 또한 7일째 되는 날 갑자기 조주 선사의 '무(無)' 자를 보았으나 마치 쇠뭉치를 입으로 씹는 것 같았다. 이에 두 가지의 의심을 깨뜨릴 수가 없어 매단원(梅檀園)이란 토굴에 들어가 다시 곡기를 끊고 장자불와 정진에 들어갔다. 무인년 1월 7일 새벽에 까마귀 울음소리를 듣고 확철대오하였다.

고불각(古佛覺 : 변함없는 부처님의 법)

趙州古佛老(조주고불로)
坐斷千聖路(좌단천성로)
吹毛劍面提(취모적면제)
通身無孔竅(통신무공규)

돌아보면 밥은 자취도 없고 본다는 것도 이미 고요하여라

차라리 고행하다가 죽는 것만 못하다 하시고 두타행에 들어갔다.

7일째 되는 날 저녁에 선정삼매에 들어 있는데 푸른 옷을 입은 두 아이가 나타나 한 아이는 병을 들고 한 아이는 잔을 받들어 더운물을 조금 따라 국사에게 권하였다. 국사는 그것을 받아 마시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

감로심(甘露心 : 맑고 깨끗한 마음)

一亦不得處(일역부득처)
踏破家中石(답파가중석)
回看沒破跡(회간몰파적)
看者亦已寂(간자역기적)
了了圓陶陶(요요원타타)
玄玄光熠熠(현현광삭삭)
佛祖與山河(불조여산하)
無口悉呑都(무구실탄극)

하나도 얻을 것 없는 곳에서, 집안의 돌을 모두 밟았네.

돌아보면 밥은 자취도 없고, 본다는 것도 이미 고요하여라.

분명하고 둥글어 한곳으로 치우치지 않은데, 그윽하여 광명은 빛나네.

狐兎絶潛蹤(호토절잠종)
刳身師子露(변신사자로)
打破關後(타파노관후)
淸風吹太古(청풍취태고)

조주 옛 부처가, 앉아서 천성(千聖)의 길을 끊고.

취모리(吹毛利)의 검(劍)을 들이대매, 온몸에 빈틈이 없네.

여우와 토끼는 자취도 없고, 몸을 뒤치어 사자가 나타났네.

튼튼한 관문을 부순 뒤에, 맑은 바람이 태고암에 불어오네.

국사의 깨침은 마치 산수(山水)와 백운(白雲) 그대로이다. 국사의 선등(禪燈 : 깨침의 등불)은 온 천하에 두루 가득히 오늘날까지 비추고 있어 대중남자들과 중생세계의 지표가 되고 있다.

"사람의 목숨은 물거품처럼 빈 것이어서, 80여년이 봄 꿈 속 같았네. 죽음에 이르러 지금 가죽부대 버리노니, 한 바퀴 붉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 가네"라는 열반송을 남기시고 우왕 8년(1382) 입적하였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해운정사와 동화사 금당선원의 조실을 겸하고 있는 진제 큰스님은 출 · 재가를 막론하고 간절히 도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법담을 나누고 공부길을 점검해 주신다.

진제스님은? 1934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다. 1954년 통합 조계종단의 초대 종정을 지낸 설석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득도한 후 1957년에 통도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26세 때인 1959년에 향곡 스님의 회상에서 '향엄상수화(香嚴上樹話)'를 화두로 받아 2년 동안 궁구했다. 드디어 28세 때 가을에 화두 관문을 뚫고 향곡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어 '일면불 월면불(日面佛月面佛)' 화두를 5년 정진 끝에 타파했다. 이후 34세가 되던 해인 1967년, 하안거 해제 법회가 열리는 묘관음사 법당에서 향곡 스님과 법거량이 있었다. 여기서 향곡 선사로부터 임제 정맥의 법등으로 부촉 받으시고 전법게를 받는다. 이로써 스님은 경허 - 혜월 - 운봉 - 향곡 선사로 이어지는 법맥을 잇는다.

1971년 선가의 관례에 따라 한 회상을 여니 그곳이 바로 해운정사다. 보다 많은 사람을 선(禪)의 길로 이끌고자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 선방을 연 것이다.

1994년에는 동화사 금당선원의 조실로 추대되어 지금까지 오직 한길로 납자들을 제접하고 있고, 1996년부터는 조계종 기초선원의 조실을 겸하는 등 오로지 선수행 풍토 진작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나'를 잠재우는 일이 참선"

가까이서 뵌 큰스님

진 제 스 님 (부산 해운정사 조실)

저잣거리가 끝나는 곳, 아니, 산이 세상사 시름에 겨운 사람들을 위해 허리 구부려 가슴을 열어놓은 곳, 그곳에 해운정사가 있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수산 자락, 해운정사 당우의 푸른 기와는 또 하나의 산을 이루고 있었다.

발 아래로 해운대 앞바다가 겨울 햇살을 받으며 몸을 뒤치고 있다. 끝없이 밀려갔다 밀려오는 파도. 무상(無常)한 모든 '존재'의 '존재 방식'도 저와 같으리라. 특히 요즘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그렇다. 번뇌망상이라는 파도의 격랑 속에서 떠밀리듯이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현대인이다.

선불장(選佛場 : 부처를 뽑는 곳이라는 말이다. 지금 해운정사도 바로 그런 곳이다. 상선원에는 30명의 스님, 하선원에는 50명의 재가 불자들이 진제 큰스님의 지도 아래 참선 삼매에 빠져 있다. 동안거가 끝나는 날, 이들 중 몇명이나 부처로 뽑힐지는 모를 일이지만, 지금 모습 그대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최소한 화두를 들고 있는 그 순간 만큼이라도 세상 모든 시비 분별을 떠나 있으니까.

새해를 핑계삼아 큰스님께 한 말씀 청해 본다.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에 새해라는 마디지음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만, 그렇게 해서라도 희망의 옷을 갈아입는 게 중생심이 아니던가.

눈 속의 매화나무 꽃봉우리 피려 함이요 / 집집마다 아이들은 색동옷 입고 뛰어 놀이라

그냥 새해 덕담을 청해 본 것인데, 큰스님께서는 무지렁이의 귀를 한참이나 끌어 올려 놓으신다. 자연 그대로가 부처님의 진리거늘, 따로 구할 것이 있겠느냐는 말씀으로 새겨본다. 엄동설한도 엄연한 사실이요, 그 속에서 매화꽃 봉우리가 봄을 준비하는 것도 자연의 섭리다. 색동옷 입고 뛰어놀 일만 남은 셈이다. 이것이 큰스님께서 전해주시는 2002년 새아침의 '소식'이다.

눈밭에 아이처럼 뛰어놀기. 선(禪)이란 어쩌면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다. 이미 '어른'이 된 자, '아이'처럼 노는 일에 서툴 수밖에 없다.

예로부터 선사들의 어법은 짓궂다. 일상어법을 비틀어버림으로써 논리적 사고를 접근 금지시킨다. 그런데 문제는 논리적 접근이 불가능할 수록 오히려 논리적이 되는 것이 또한 세상 사람들의 버릇이다. 이렇게 해서 선(禪)의 길은 또 아득히 멀어지고 만다. 때론 비밀스런 그 무엇으로 보이기도 한다. 정말 그럴까?

"깨달은 경계가 일상에서 그대로 살림살이가 되면 어떤경우든 다툼 없어요"

"화두란 앉아서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일을 하는 가운데 근본 당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일심(一心) 중에 있어요. 이걸 알면 먼 데서 구하지 않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화두 들기. 이른바 '생활선'이다. 일찌기 큰스님께서는 1971년에 해운정사를 열고 생활선을 주창하시며 선의 대중화를 꾀했다. 요즘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시민선방의 기틀을 이미 30년 전에 닦으신 것이다.

"선(禪)이 몇몇 스님의 전유물일 수는 없습니다."

선 대중화에 대한 큰스님의 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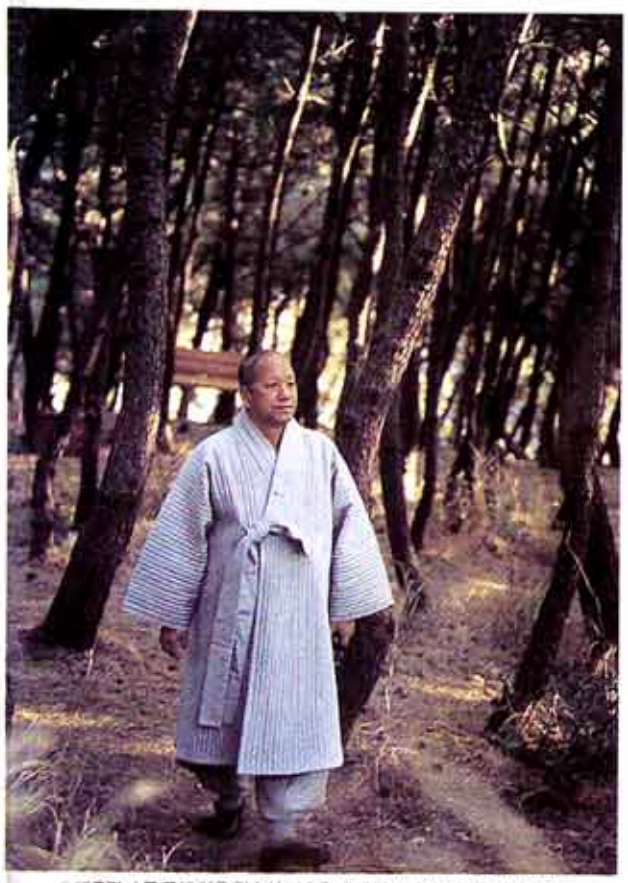
그렇다면, 왜 선인가?

"현실의 삶은, 특히 물질 문명이 득세한 오늘날 인간의 삶은 출세를 위한 달음박질입니다. 외견상으로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을 느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면세계가 계발되지 않으면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만사람의 심성에 부처님의 참 지혜가 현전한다면, 세간법이 곧 부처님의 진리에 부합합니다. 그렇게 되면 처처가 불국토지요.

이런 세상, 이런 삶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꾸준히 닦아나가면 모든 갈등과 불안이 봄바람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일월같은 지혜가 밝아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를 가벼이 여깁니다. '나'를 앞세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재우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해운정사 를 품에 안은 장수산 기슭은 진제 큰스님의 또다른 선방이다.



원욱스님의 스님이야기

효명스님

해맑은 미소를 오래 간직하기란 쉽지 않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기 때문일 것이다. 수덕사 견성암에서 오랫동안 입승을 지낸 효명(曉明) 스님은 아주 밝고 부드러운 미소를 늘 간직하고 계신 분이다. 이십년전에 봤던 그분의 따사로운 미소는 아직도 변함없다. 늘 끊임없이 정진하시며 일생을 납자로 살아가시는 그분의 삶이 그 미소속에 다 녹아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타는 듯한 분노와 고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스님 앞에서는 봄날의 눈처럼 녹지 않을 수 없다.

효명 스님은 아마 환갑을 훌쩍 넘기셨을 텐데도 그 고요함과 맑은 미소 탓인지 아주 활기차 보이시고 모든 이들을 따사로운 마음으로 감싸고 고요히 참선의 길로 이끌고 계신다.

견성암 행자시절에 난 유독히 잠이 많았다. 새벽에 도량석하러 나가서는 큰 절 범종소리가 잦아들면 시작해야 하는데 그만 계단에 쭈그리고 잠이 들기도 하고, 예불시간에 절하다가 잠이 들어 못 일어나고, 천수 목탁 치다가 목탁채를 놓치고 잠 잘 정도였으니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고 웃음이 난다. 그것도 모자라 병든 닭처럼 틈만 보이

부드러운 미소의 평생납자

후학들에 자상한 경책

면 주저앉아 끄먹거리며 졸기 일쑤였다. 그 때 우리 은사스님과 효명스님은 당시 수덕사 조실이셨던 혜암 큰스님을 시봉하시느라 수덕사에 계셨는데 시간만 나면 큰스님 가르침도 듣고 쏟아지는 잠도 물리치느라 큰 절 발걸음을 자주 했다.

아마 그 날도 큰스님께 인사 올리고 뒷방으로 가자마자 차가운 바닥에 몸을 눕히고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얼마쯤 잤을까 내 허리와 배 쪽으로 아주 따뜻한 것이 쓰윽 들어오고 있었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효명스님이 웃으시며 차가운 방에서 누워 자면 감기 걸리니 따뜻한 찜질팩을 안고 조금 더 누었다가 견성암으로 가라고 하셨다. 다른 사람 같으면 후다닥 놀라서 갔으련만 나는 배짱 좋게 정말 저녁 공양 준비할 때가 되어서야 부시시 일어나서 왔다.

다음 날, 큰절에 내려갔더니 우리 스님은 안 계시고 효명스님만 큰스님 곁에 계셨다. 스님은 그 날 내게 차담을 주시며 앉아보라고 하셨다.

"원욱이, 견성암에서 채공 사는 거 많이 고단하지? 일도 안해 봤을텐데 열심히 잘 하려고 애쓰는 것 보면 참 대견하구나. 그런데 말이다. 도닦는 이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수마(睡魔)란다. 수마는 마치 밤벌레가 밤을 갉아먹는 것처럼 수행자의 몸을 갉아먹는단다. 수마를 견디어 내지 못하면 아주 게으른 사람이 돼요. 게으름은 마치 독이 든 음식과 같아 처음에는 향기로운 맛이 나더라도 마침내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해태(懈怠)의 검은 구름이 온갖 환한 지혜를 덮어 공덕을 없애지. 피곤함과 나른함을 핑계로 결국엔 잠에 질질 끌려 다니게 되니 일대사 인연을 끊고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온 네가 기껏해서 잠에게 목덜미를 잡혀서야 되겠니? 똑똑해서 부처님 경전을 가로 세로로 다 읽어도 수마를 조복받지 못하면 도로아미타불이야. 우리 원욱이, 다 잘하는데 그 잠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잠은 아주 게으름중에서도 근본이 되는 것이니 삼가 경계하려무나. 본래 절에 처음 오면 이것저것 낯선 것들과 조화를 이루느라 긴장하느라 잠이 많이 오기도 하지. 느그 스님이 네가 몸이 약해서 그런다고 걱정하시더라. 그러나 다 마음먹기 나름이야."

듬만 나면 졸고 또 졸면 나는 생각할수록 부끄러웠다. 다음날부터 효명스님 말씀처럼 잠이 오면 밤벌레를 생각했다. 내 몸을 갉아먹고 있을 밤벌레를 생각하며 졸음과 싸우며 큰절에 내려가



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려 무진 애를 썼다.

해태라는 놈은 원래 무지라는 근본 번뇌에 속해서 바른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불신에서 생기며 적극적이거나 과감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악을 끊고 선을 닦는 일에는 적극적이지 못하니 시도 때도 없이 잠들고 기대며 길게 드러눕는 안락함에 습을 빠져드는 것이다. 그럴수록 나태해져서 점점 수행에 힘쓰지 않게 되니 이것은 바로 더러움에 이르는 문이며, 죽음에 이르는 문이 된다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다.

얼마 후에 효명스님을 뵈러가니 내게 〈열반경〉을 주시면서 밑줄친 곳을 읽으라고 하셨다. 지금도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 늘 게으르지 않으려 애쓰는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세상의 악한 행위를 즐겨하고 무익한 말을 즐기며 잠을 즐기고 세속 이익을 즐겨함이라, 또한 나쁜 벗을 가까이 하고 항상 게으르고 태만하며 늘 남을 경멸하고 무엇을 들으면 이내 잊어버리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살길 즐기며 감관들을 제어하지 못함이요 또 살아가는데 만족할 줄을 모르며 완전한 고립을 즐기고 소견이 바르지 못함이니 삼가 경계해야 한다." 書서울 반야사 주지

"공부인은 본시 모든 반연(攀緣)을 다 끊어야 합니다. 방선(放禪)을 했다고 해서 한화잡담(閑話雜談)을 해서도 안됩니다. 그래야만 화두가 흐르는 물과 같이 끊이지 않고 지속이 됩니다. 일념삼매(一念三昧)에 푹 빠져서 모든 분별을 다 잊어버린 가운데 흡사 돌사람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자신이 어디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몸뚱이까지도 다 잊어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온 천지가 화두**가 되어 오로지 화두 한 생각뿐입니다. 그렇게 일념이 간단없이 지속되면 깨달음이 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또 커다란 의문 하나 머리를 든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 그 자체에 대한 언어 표현은 정말 불가능한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자비'라는 '말'에 자비가 있는 게 아니듯이. 그렇다면, 깨달은 이의 삶을 통해서 깨달음의 구체성을 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어떤 것이 깨달은 이의 삶인가?

> "한걸음 물러나 자신 낮추고
> 만사람 우러러 보세요
> 언제나 평화로울 것입니다"

"견성(見性) 즉 공부를 마쳤다고 하여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은 경계를 일상 생활에 항시 수용하는 것이지요. 깨달은 경계가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살림살이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온 중생과 한몸이 되는 **절대 평등의 경지**이지요. 어떤 경우든 아귀 다툼이 없고 항상 평온하고 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평등의 경지, 조금 알 것도 같다. 하지만 그러한 세계는 철저한 자각(自覺)과 체험 없이는 '남의 살림'에 불과한 것이므로 더 이상의 언급은 사족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어'는 문제가 된다. '문자에 끄달리지 말라'는 말도 '문자'에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법거량도 말로 이루어지지 않던가. 그런데 왜 선사들은 한결같이 '언어'를 경계하는가.

"깨달음은 모든 부처와 조사의 가르침을 꿰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찌 말로 이룰 일입니까. 그런데도 머리로 헤아려 조금 안 것을 가지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바늘구멍만한 소견으로 이해하면 고인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러나 깨달은 연후에는 모든 것을 내 살림으로 굴릴 수 있으니까 문제될 게 없지요."

불립문자(不立文字), 선가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무언무설(無言無說), 부처나 깨달음의 세계는 오직 체험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는 태도는 불가의 오랜 전통이다.

선리(禪理)를 정교한 언어로 표현해 낸 것으로 유명한 조주 선사도 어떤 스님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祖師西來意)'을 묻자 '뜰 앞의 잣나무(庭前栢樹子)'라고 답한다. 가히 '시치미 떼기'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엉뚱한 대답으로 사량 분별 혹은 길들여진 사고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이다. 오늘날 화두로 불리는 공안(公案)도 중국 당·송대에 성행한 선문답(禪門答)에서 비롯되었다.

선문답. 스승과 제자의 봄꽃 튀는 접전. 선의 진경이다. 이러한 선종의 가풍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진제 큰스님 또한 선문답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당기일구(當機一句)에 진짜 살림살이가 있습니다. 전광석화처럼 터져나오는 한 마디에 선객의 살림살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면 만리 밖이예요. 정안(正眼)을 얻으면 전광석화처럼 씁니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법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돌사람도 땀을 흘린다'고 했어요."

당기일구(當機一句), 법거량을 할 때, 능히 감당할 기틀을 갖춘 사람이 터트리는 한 마디라는 말인데, 그 가운데 공부인의 진면모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요즘은 법거량을 청하는 납자들이 드물다고 한다. 그렇지만 큰스님께서는 크게 낙담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반대다. 한국 불교만이 간화선의 전통 즉 임제 가풍을 여법하게 이어오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의 선양을 위해 10월에 해운정사에서는 국제무차선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중국·일본의 선사들이 모여 그야말로 차별없는 선의 세계를 펼쳐보일 것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주고받는 문답은 사량이나 조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선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스승없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천마(天魔)이고 외도라고 하셨어요.** 하찮은 경계에 속아 중도에 머무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철저히 참구해야 합니다.

혹자는 간화선에 대해 회의적인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견성법은 동일합니다. 만약 다름이 있다면 어느 한쪽에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고인들의 살림살이가 따로 있고 현재 우리가 공부한 살림살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큰스님의 수행관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 고준한 그 뜻을 온전히 내것으로 할 형편은 아니었지만, 깨달음이란 것이 남의 일일 수만은 없다는 생각 한 자락 챙겨본다.

푸릇푸릇 돋아나는 인사를 올리려 하니 빙그레 웃으시며 새해를 맞은 불자들이 올 한해를 살아갈 마음 길을 밝혀 주신다.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낮추고, 만사람을 우러러 보세요.** 그러면 언제나 평화로울 것입니다."

글=윤제학 기자 yunhi@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속리산 법주사 청동대불 개금불사

○청동 정밀 주조
○청동 대불 도금 불사

匠人의 魂

장인미술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동림리 307번지 TEL : 031-332-2680
금 불 원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무봉리 534-1 TEL : 031-542-0110
불사문의 011-215-4491



※ 한국 최초 "육성 도금" 기법



◇山寺不二. 산과 절은 둘이 아니다. 유엔은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지정해 날로 훼손되어 가는 산을 보전하는 길을 모색한다. 사진은 사진가 이인숙씨 作 '관룡사 용선대'.

고찰은 산과 함께 법맥 잇고…

UN이 정한 '2002 세계 山의 해'

유엔이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지정했다. 유엔은 지난해 12월 11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주최로 출범식을 갖고 산림 생태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산간 공동체들의 문화유산 및 환경 보전을 호소했다.

인구의 절반 산서 물얻어

유엔이 이례적으로 '산'을 연중 캠페인 주제로 정하고 관심을 호소하고 나선 것은 '인류의 어머니'인 산이 그만큼 많이 훼손돼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출범식에 보낸 메시지에서 "산의 환경이 벌채와 오염, 수계(水系) 파괴, 토착적 전통 소멸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인구 60억 명 가운데 약 10분의 1이 산악 지대에 살고 있으며 절반 가량인 30억 명은 산에서 마실 물을 얻고 있다. 도시화에 따른 산 훼손도 가속화되고 있다. 1950년부터 40년 동안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78개에서 290개로 늘었다.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인구는 2배 증가했지만 물 수요는 6배 늘었다. 이 때문에 도시 인근 산들은 물 수요를 위한 댐 건설로 생태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인류의 농경 생활 이전에는 약 62억ha였던 지구의 산림 면적도 갈수록 줄어들어, 지난해 FAO 조사로는 절반 수준인 약 34억ha에 머물고 있다. 산림 면적이 국토 면적의 64.6%에 달하는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9년 642만 2773ha였던 우리 나라의 산림 면적이 2000년에는 서울 남산의 26배인 7873ha가 줄어들었다.

절은 예로부터 산을 지키는 '파수꾼'이었다. 큰 절 이름 위에는 으레 산 이름이 붙었고, 스님들이 스스로를 '가야산인' '금정산인' 등 산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산과의 친화성을 보여준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절에는 산감(山監)이라는 소임이 있었고, 산불이라도 나면 하인들까지도 산불 진화에 나서곤 했다.

한국 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은 유엔의 '세계 산의 해' 지정과 관계없이 지난해부터 환경위원회(위원장 성타 스님)를 구성하고 산림 보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불교 환경 의제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불교환경연대에 의뢰해 전국의 사찰림을 파악하고 주요 나무 종류와 보존 상태 등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상임 대표 수경 스님)도 지난해 11월 오대산 지역의 생태, 문화 환경을 조사한 데 이어 올해는 설악산과 태백산에 있는 절과 주변 지역에 대해 생태·문화 조사를 실시한다.

조계종, 전국사찰림 조사

유엔의 '2002 세계 산의 해' 출범식에 맞춰 미국, 독일 등 34개국이 이미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우리 나라도 산림청 주관으로 '산! 더불어 사는 터전'을 주제로 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월 중 웹사이트 개설에 이어 4월부터 기념식과 학술행사, 산림 현장 선포 등의 기본 행사 외에도 '산을 찾아서' '백두대간을 건강하게' '살기 좋은 산촌' '아름다운 산과 숲' 등 4대 기획 행사를 연중 펼쳐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은 올 한 해에 그치는 단기적인 행사가 아니라 2002년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보며 신기해하는 생전의 성철 큰스님.

사진으로 뵙는 성철 큰스님

3~8일 부산 영광갤러리

사진가 주명덕 씨가 3일부터 8일까지 부산 영광갤러리에서 성철 큰스님(전 조계종 종정)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 전시회를 갖는다.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사부대중을 대상으로 백일법문을 하면 모습에서부터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만져보며 어린아이처럼 신기해하는 등 수행자로서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시대를 살다간 스님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 선보이는 사진들은 성철스님의 상좌인 원택 스님(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이 최근 발간한 〈성철스님 시봉이야기〉에 담긴 것들이다. (051)816-9500

관음보살 6현신 중 하나

불교와 말(馬)

올해는 임오년(壬午年), 말의 해다. '말' 하면 박력과 생동감이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신라 고분 벽화에 등장하는 천마와 박혁거세 탄생 신화, 고구려 시조 주몽 신화에서 보듯 우리 민족에게 말은 제왕의 출현을 미리 알려주는 상서로운 동물, 초자연적인 세계와 교통하는 신성한 동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말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현신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관세음보살이 육도(六道)를 순회하며 중생을 교화할 때는 성(聖) 천수(千手)·마두(馬頭)·십일면(十一面)·준제(準提)·여의륜(如意輪) 관음 등 육관음으로 현신하는 것이 보통인데, 축생을 교화할 때의 현신 모습이 바로 마두관음보살이다. 유일하게 분노한 모습을 한 관음상으로, 머리에 말의 머리를 이고 있어 마두대사(馬頭大士) 혹은 마두명왕(馬頭明王)이라고도 부른다. 말의 머리를 이고 있는 것은 전륜왕의 보마가 사방을 달리면서 마귀를 굴복시키는 것처럼 생사의 바다를 누비면서 천마(千魔)를 항복시키는 큰 위신력과 정진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무명의 무거운 업장을 막는다는 뜻도 있다.

약사여래의 12대원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12신장 중의 하나가 말이기도 하다. 〈약사유리광왕7불본원공덕경염송의궤〉를 보면, 약사여래의 각 서원에 응하여 이를 성취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역할을 맡은 12신장은 12간지에 각각 대응되는데, 이 중 오신(午神) 즉 말에 해당하는 신장이 마지라(摩尼羅, Majira)이다.



◇십이지신은 십이신장으로 불교에 수용되었다. 그림은 십이신장 중 말신장(만봉 스님 作).

말띠 해에 태어난 불교계 인물로는, 신라 말 고승으로 선문구산(禪門九山) 중 사자산파(獅子山派)의 제2조인 징효절중(826~900), 고려 숙종의 넷째 아들로 대각국사 의천의 제자였던 원명국사 징엄(1090~1141), 일제 강점기때 한국 불교의 일본 조동종 편입에 맞서 임제종을 세웠던 박한영(1870~1948) 스님 등이 대표적이다.

말(馬)의 해에 관한 말(言)

말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 중 하나다. 그래서 말과 관련된 속담은 우리네 삶과 밀착된 것들이 많다.

사람의 욕심이 끝없는 것을 비유해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고 했고, 고생스러워도 살아 있다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말똥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했다. "말을 기르는 사람은 닭·돼지를 돌보지 않는다"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일을 돌보지 않음을 비유한 말이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본성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을 일러 "말은 노상 튈 생각만 한다"고 한다. "말 꼬리에 쉬파리 따라간다"는 남의 세력에 의지하여 기를 펴고 사는 것을, "말도 부끄러우면 땀을 흘린다"는 사람은 자기 잘못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고 자기를 반성해야 함을 견책할 때 쓰는 말이다.

壬午年 불교小史

▲622년(신라 진평왕 44)
7월, 신라 사신들이 일본에 건너가 불상 1구와 사리, 금탑 등을 전해 줌.
고구려 영류왕 5년 2월,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던 혜자(惠慈) 입적.

▲682년(신라 신문왕 2)
문무왕이 왜적을 막기 위해 동해 가에 짓기 시작한 감은사가 완공됨.
5월, 왕이 감은사에 거동하여 동해 가운데 떠 있는 산 위에서 대나무 하나를 베어다 피리를 만들어 만파식적이라 함.

▲742년(신라 경덕왕 1)
신라 심상(審祥), 일본 대안사에서 입적.

▲802년(신라 애장왕 3)
8월, 이정(理貞)·순응(順應)이 왕의 도움을 받아 가야산 해인사가 창건됨.

▲922년(고려 태조 5)
태조가 옛날 살던 집을 내놓아 광명사를 세우고, 유가의 법사 담체(曇諦)를 주지로 삼음.
후백제 견훤, 익산 미륵사탑을 복구함.

▲982년(고려 성종 1)
최승로, 시무책 20조를 건의하면서 부패 불교 비판.
중국 천태종 제16세 조사인 의통(義通), 중국 왕으로부터 전교왕(傳敎王)에 보운선왕(寶雲禪師)이라는 사액을 받음.

▲1102년(고려 숙종 7)
5월 12일, 왕이 현화사에 거동하여 은으로 쓴 〈유가현양론〉이 완성된 것을 경축함.
9월, 왕이 신호사에 행차하여 대장회(大藏會)를 베풀어 낙성함. 대궐에서 절까지 깃발을 꽂고 수만 개의 등을 켬.

▲1282년(고려 충렬왕 8)
7월 4일, 공주가 병이 들어 법회도량을 베풂.
10월 16일, 왕이 견명(일연 선사)을 내전으로 맞아들여 숭경당에서 인왕도량을 베풀고, 개경 광명사에 머무르게 함.
12월, 인기(印奇)가 정황궁주(貞和宮主)의 청으로 송 나라에 가서 대장경을 찍어 와 강화 전등사에 봉안함.

▲1342년(고려 충혜왕 3)
속리산 법주사에 자정국존(慈淨國尊) 보명탑비(普明塔碑)가 건립됨.

▲1402년(조선 태종 2)
4월, 서운관의 건의로 전국 70개 사찰을 제외한 나머지 사찰의 땅의 조세를 영원히 군자감(軍資監)에 귀속시킴.
무학자초(無學自超)가 회암사의 감주(監主)가 됨.

▲1462년(조선 세조 8)
8월 21일, 간경도감 〈능엄경언해〉 10권 조판 간행.
10월, 새로 만든 흥천사의 종이 완성됨.

▲1642년(조선 인조 20)
허응보우(虛應普雨)의 '수월도량 공화불사 여환빈주 응중문답'이 지선(智禪) 등에 의해 중간됨.

▲1762년(조선 영조 38)
6월 27일, 용담조관(龍潭 趙 灌) 실상사에서 입적.
송암의천(松巖義天) 입적.

▲1882년(조선 고종 19)
6월, 홍국군이 경외(京外) 각사(各寺)를 불태움.
9월 9일, 김만월 출생.
9월 10일, 고성 유점사 중수를 위해 공명첩 500장을 발급.
일본 일련종 옥일 묘, 원산에 정묘사 창건.
우은달선(禹隱達善)이 불에 탄 금강산 유점사를 3년 동안 복구함.

▲1942년
조계종법 발포.
김법린이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에서 옥고를 치름.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동신전통목공
사찰문 전문
대표 백영목 합장
■ 경북 김천시 봉산면 태화동 523 (직지사 검문소 뒤)
전 화 : 054)432-1312
공 장 : 054)432-8121
핸드폰 : 011)535-7000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신도회장 오신재
대 중 일 동
■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전화 : 061) 284-1771
팩스 : 061) 284-1770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신도회장 김우룡
대 중 일 동
■ 대구시 수성구 중동 532-274
전화 : 053) 767-3100
팩스 : 053) 765-1600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법형제회
심봉회 · 심안회
심원회 · 심주회
회 원 일 동
■ 대구시 수성구 중동 532-274
전화 : 053) 767-3100
053) 768-8008
팩스 : 053) 765-1600

21세기 이끌 힘은 '관용의 정신'

'간디가 온다' 기 소르망 지음

카스트는 단순히 평등의 정신에 위배되는 구시대적 산물인가. 이슬람은 정말 광신도의 집단인가. 이러한 도발적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인도의 정신과 인류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친 문화사상서가 〈간디가 온다〉(이상빈 옮김, 문학과의식사)이다.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문화비평가인 기 소르망이 쓴 이 책은, 다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로 인한 갈등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인도의 관용정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탐색한다.

이런 관점에서 소르망은 간디의 정신이 21세기를 위해 왜 필요한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정의로운 것이라고 믿었던 것(자유와 평등)을 뒤집는다. 또 우리가 얼마나 서구의 합리주의적 사고와 이성주의에 젖어 다양한 사고의 물길을 열고 있지 못한가를 일깨운다. 그 일깨움의 통로가 바로 인도이고 그 중에서 인도 정신의 꽃이라고 요약될 수 있는 간디주의가 그 논지의 핵이다.

특히 소르망은 인도의 메시지 즉 관용의 정신이야말로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다. 과학과 합리주의에 힘입어 현재 인류문명의 토대를 이룬 이 사고방식 자체에 그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 아니면 저것, 진리는 오직 하나라는 사고방식이 인류를 극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직관 · 여성성 · 다원주의 문화
과학 · 합리주의 병폐 치유책

하나의 종교가 다른 하나의 종교를 밀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상황(기독교와 회교도 간의 전쟁)이 인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 인도에서의 기독교를 들고 있다. 기독교가 인도에 유입된 상황,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 인도에서 배척받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비교적 성공적인 포교라고 해야 할까. 예수를 신(神)의 화신으로 받아들이면서 수많은 신들 중의 하나로 첨가하는 그들의 관용정신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과 문명충돌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그러한 관용정신은 수동성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왜냐 하면 그것은 뚜렷한 자기의식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개인적 사유는 굴복이 아니라 저항정신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간디의 정신인 비폭력 · 저항주의로 연결된다.

소르망은 이러한 인도의 관용 정신이 다시 인류에게 제4의 믈결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예견한다. 그것은 남성적이기보다는 여성적이며, 이성과 합리를 따지기보다는 직관적인 것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문명 충돌로 이어지는 인류의 재난에 대한 완충작용과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한다.



다문화주의, 다원주의, 다양성에 대한 진정한 이해. 이것이야말로 인도의 진정한 관용정신이며 인류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인 것이다. 값 1만2천원.

출판담당= 김중근 기자 gamja@buddha pia.com

도량 잡귀 물렀거라 덩실덩실 바라춤을

'천수바라춤' 능화 스님 지음

불보살의 강림이나 의식 도량의 옹호와 정화를 위한 불교의식 작법인 바라춤은 불교무용의 백미로 꼽힌다. 회색 장삼에 붉은 가사, 두 손에 바라를 들고 장중하면서도 무겁지 않게 몸을 놀리는 이 춤은 화려함을 끌어낸다. 무릎과 허리 놀림이 덩실덩실하고 발놀림이 또박또박 절제미가 있다. 이러한 바라춤은 크게 천수 · 사다라니 · 관욕게 · 요잡 바라춤 등 모두 8가지로 나누어진다.

〈천수바라춤〉(한국불교무용연구소)은 이 가운데 〈신묘장구대다라니〉에 맞추어 추는 천수바라의 춤사위와 무보(舞譜) 등을 천착한 연구서다. 지은이는 무염 스님에게 작법무를, 일운 스님에게 상주권공을, 송암 스님에게 각배와 영산을 배운 중요무형문화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능화(인천 구양사 주지) 스님. 스님은 '불교음악 범패와 범패승의 계보' '진언수행과 불교무용' 그리고 바라춤의 기원, 종류, 춤사위를 분석한 다음 천수바라춤을 집중 분석한다.



천수바라춤 음악 홋소리(다라니)와 태평소의 오선보, 태평소의 정간보 그리고 천수바라춤의 무보를 사진과 그림으로 재현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불교무용 바라춤의 문화 복지 활용방안까지 수록해 공연예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산재 보존회장 인공 스님은 "진감국사의 묘음을 이은 송암 스님의 법맥으로 계승 발전되어진 범무 바라춤이 사진영상을 통해 무보화되는 것은 불교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평했다. 값 1만5천원.



앞 못봐도 하고픈 일 할 수 있어

'타쉬' 사브리예 텐베르켄 지음

티베트는 아직도 시각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나쁜 짓을 한 데 대한 '신의 벌'이라고 생각하거나, 귀신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기도 한다. 때문에 티베트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시각장애 어린이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가족 내에서도 다른 아이들과 격리되고 구걸하러 내보내진다. 심지어 침대에 묶여 바깥출입을 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도 있다.

〈타쉬〉(엄정순 옮김, 샘터)는 시력은 잃었으나 빛과 사물 그리고 색깔을 기억하는 티베트 시각장애 소년 타쉬가 라사의 시각장애인 학교에 가기까지의 여정을 묘사하고 있다.

1998년 티베트 시각장애인센터를 건립한 사브리예 텐베르켄이 노돈 선생님과 타쉬와의 애틋한 만남의 과정을 소설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타쉬 개인에 머무르기보다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깊은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각장애인' 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해준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단순히 장애자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보여준다. 값 8천5백원.

참선수행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가

'이른 아침 잠깐 앉은 힘으로…' 박영재 엮음

'하루 향 한대 타는 시간 앉지 않으면 굶는다.'

선도회(禪道會)의 가풍 가운데 하나다. 선도회는 효봉 스님의 후원으로 이희익 씨가 1965년 조직한 재가수행모임이다.

〈이른 아침 잠깐 앉은 힘으로 온 하루를 부리네〉(운주사)는 선도회의 성립 과정과 창시자 이희익 씨의 생애 그리고 선도회의 활동 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선 수행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참선 수행은 중국 남송의 대혜 종고 선사가 주창한 간화선을 말한다. 선도회는 바로 간화선의 전통을 복원하여 이를 재가자들에게 돌려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핵심은 간화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무'자 화두와 '좌선' 그리고 '입실(入室)지도'다.

엮은이 박영재(서강대 물리학과) 교수는 선은 끈기와 올바른 지도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실린 다양한 경험들 즉 남녀노소, 신분, 직업을 초월한 재가불자의 수행담이 이를 잘 말해준다. 값 8천5백원.

싯구로 풀어낸 수행의 길

'길손여행' 우학 스님 지음



〈장가 안가길 잘 했네〉 등 수필과 신행지침서를 내놓았던 우학(대구 관음사 회주) 스님이 시집 〈길손여행〉(좋은인연)을 냈다. 연꽃과 들꽃 사진이 함께 수록된 시집에는 출가부터 지금까지 스님의 수행 궤적이 짧은 시어로 함축돼 있다. "가슴을 방망이질 하며/ 어디까지라도 따라 올 것 같았던/ 늦은 오후 업장의 긴 그림자는/ 일주문 큰 그늘에 가려서 지워졌다…." 우학 스님이 절집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심정을 읊은 시 '출가'다. 이 시집에는 수행과 포교의 현장에서 느낀 단상을 적은 85편의 시가 실려 있다. 값 1만원.

백유경서 뽑은 삶의 지혜

'꽃은 어디에 피어도…' 최복현 지음

마라국에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병이 위중하여 두 아들에게 "내가 죽은 뒤에 재산을 잘 나누어 가져라"고 유언했다. 아버지가 죽자 두 아들은 재산을 두 몫으로 나누었다. 그 때 형이 아우에게 "나누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하자, 한 노인이 "옷과 돈은 반으로 찢고, 밥상도 부수어 두 몫으로 만들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재산을 두 몫으로 나누었다.



〈꽃은 어디에 피어도 향기를 낸다〉(지혜의 나무)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거나, 작은 이익에 급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불교우화경전 〈백유경〉 등에서 가려 뽑은 이 이야기들은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값 7천8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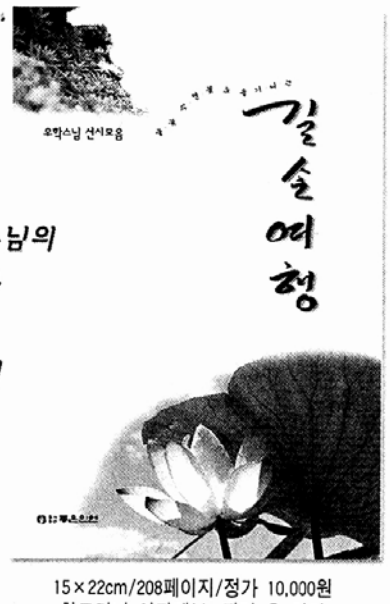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파아나두라 대논쟁	오 진	운 주 사
2	성철 스님 시봉이야기	원 택	김 영 사
3	내가 본 부처	도 법	호 미
4	현대관음기도 영험록	성 일	불 광
5	달라이 라마 행복론	류 시 화	김 영 사
6	미타신앙 미타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7	빠띠삼비다막가역주	임 승 택	가산문고
8	풍경소리	풍경소리	샘 터
9	첫사랑은 맨 처음 사랑이 아니다	틱 낫 한	나무심는사람
10	금강경 역해	각 묵	불 광

도서 안내: (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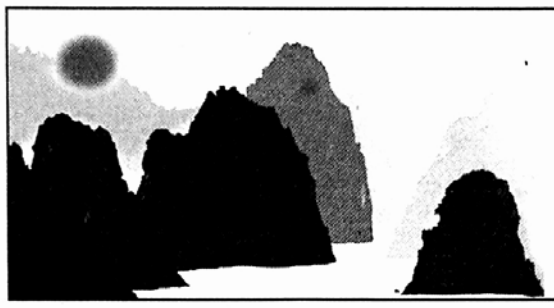


세계 4대 성불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승산 선사 공안집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무심 편집 | 값2,000원
현암사 전화 : 365-5051~6, 팩스 : 313-2729

베스트셀러 도서출판 좋은인연 TEL - 053)475-3707 FAX - 053)475-3706 E-mail - buddhabook@hanmail.net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 스님의
또 다른 수행선시
세월 속에 묻혀 사라질 장면장면을 스님 특유의 간결하고도 선명한 글로 표현한 이 번 책은 수 년 간에 걸쳐 집필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직접 산과 들을 헤매며 찍은 생생한 들꽃과 연꽃이 책 속에서 전시회를 엽니다. 단아하면서도 화려한 연꽃, 흔히 볼 수 없었던 한국의 야생화가 스님의 분체와 함께 어우러져 멋진 드리마를 연출합니다.
길 솔 여 행
우학스님 선시모음
살며시 드러나는 우학스님의
잔잔한 추억의 발자취를
따라 산과 들,
그리고 출세속의 향기에
취해 보십시오!

15×22cm/208페이지/정가 10,000원
하드커버 양장제본, 전면 올 칼라
"법보시 하시면 할인됩니다."
우학스님의 신서 낭송 테입도 발매중 ☎문의 053)474-8229

눈은 눈을 보지 못함같이
시인 장용철의 작고 아름다운 이야기

● 값 7,500원
우리들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사연이…
감동을 읽는다. 순간을 읽는다!
히말라야나 킬리만자로의
만년설(萬年雪) 꼭대기에 가야만이 우주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장 밑 강아지풀 한줄기에서도 우주의 신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태평양 바닷물을 다 먹어 보아야만 바다가 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동해의 물 한 방울만 찍어 먹어 보아도 바다가 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눈은 눈을 보지 못함같이 오직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하고
보여지는 것은 늘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멀리 보기만을 애쓰기 보다
가까이 내 자신을 되돌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팽이가 가장 열심히 돌 때 오히려 제 자리를 잡고 서듯
인생도 최선을 다하여 살 때 아무런 불만의 소리도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자는 제 몸에 생긴 벌레 때문에 죽고 쇠는 제 몸에 난 뿔 때문에 스러지고 맙니다
- 본문중에서 -
좋은책 해인행 전화 02)913-0753 팩스 02)913-0755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금강경 독송회

지도법사 김 재 웅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131-80호
TEL : 02) 742-0172

대한불교 조계종

황금절 수국사

주 지 한자용 총 무 석밀인
영예화장 한선심화 신도회장 김자비심
총무 이무애심, 송반야주, 손법안심
교무 정대승행, 정반야행
윤문수화, 신묘각행
재무 구화엄심, 양유심행

■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14번지
TEL 02)356-2001~2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주 지 박종하

신 도 일 동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19-3
TEL 02)582-8609
FAX 02)597-3510

대한불교 조계종

굴산사

신라구산선문 사굴산타본찰

대 중 일 동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2리 600번지
TEL 033)648-4579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주 지 지 광

재단법인 능인불교선양원
대한불교조계종 국녕사

신 도 일 동

■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55번지
TEL 02)577-5800
FAX 02)577-0052

대한불교 조계종

노 적 사

주 지 석종후

신 도 회 일 동

■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성 내
TEL : 02) 353-5016, 4924
FAX : 02) 386-4198

대한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포교원

주 지 법 경 합장

신도회장 강대원행 관음회장 성불화

신 도 일 동

■ 서울 성동구 성수 2가 1동 230-8
TEL 02)462-1335
FAX 02)462-1339

대한불교 조계종

내 소 사

회주 우 암
주 지 진 원

사부대중 일동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
TEL 063)583-3030

만불(지장보살)조성 도량

대성사 원융원

주 지 법 신

신 도 일 동

■ 서울시 중구 신당4동 340-8
■ 경기 가평군 외서면 하천2리 2번지
TEL 031)584-1541 (대성사)
02)2237-9796 (원융원)

대운산 묘림사

주 지 관 진

○ 호국참회기도도량
○ 기도하는도량
○ 공부하는 도량
○ 가족과함께하는 도량

신 도 일 동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778
TEL 052-237-4366 / 238-6264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학 장 무진장 이사장 김재일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회 장 김재일
사무국장 구본설 기획실장 문종순

대 중 일 동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org
TEL 02) 732-1206~8 FAX 02) 732-1207

관음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만 의 사

주 지 성 직

신 도 일 동

■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140
TEL 031)376-6005

대한불교 조계종

인천불교회관

주 지 일 지
마하연포교원

신 도 일 동

■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542-69
TEL 032-523-9910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망 해 암

주 지 법 두

봉 사 회 일 동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산 19번지
TEL 031)443-5559

한국불교 태고종

무 학 사

주 지 혜 성

신 도 일 동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 2동 412
TEL : 031)291-4667

보 현 정 사

주 지 보 현

신도회장 이혜선

신 도 일 동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6-7호 이화빌딩 5층
TEL 02)583-1080 FAX 02)587-1080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주 지 진 관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TEL 359-8410

대한불교 조계종

남 장 사

주 지 성 웅

○ 상주 냉림사회복지관
○ 상주자활후견기관

새해에는 전법과 신도교육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 경북 상주시 남장동 502번지
TEL 054)534-6331

대한불교 조계종

심 곡 암

주 지 원 경

신 도 일 동

■ 성북구 정릉 3동 산 1번지 1호
TEL 02)02-943-0851

대한불교

수 도 사

주 지 혜 운

인천불교총연합회장

신 도 일 동

■ 인천 남구 주안4동 1580-22
TEL 032)422-1479

대한불교 조계종

영화사

아차산

회 주 송월주
주 지 평 중

부설(관인)영화유치원

■ 서울시 광진구 구의2동 9번지
TEL 02)444-4321/444-7215

용 님 선 원

원 장 여지헌

신 도 일 동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용치리 141-1
TEL 055)834-1115

연 화 사

주 지 정 명

신 도 일 동

■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산 87-4
TEL 031)246-0108

용화정사

주 지 성 관

신 도 일 동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519-70
TEL 031)246-0108

정 각 사

주 지 이광우

신도회장 이원각성

신 도 일 동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TEL 02)742-1231

정 토 사

회주 설 산
주 지 응 천

· 만일염불회 · 배달문화선양회
· 설산장학회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23-61번지
TEL 02)379-5502 FAX 02)396-3405

청 용 암

주 지 해 일

신도회 일동

■ 서울시 동작구 흑석1동 산5-12
TEL : 02) 813-1820

정법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청소년수련원 신흥사

주 지 오성일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 42-1
TEL 031)357-2695/357-3916

기원정사

주 지 도 영

신 도 일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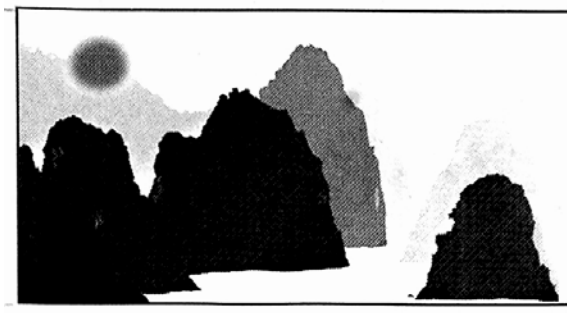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2동 79-116

대한불교 조계종

화림선원

대 중 일 동

■ 경기도 안산시 일동 산 115
TEL 031)408-5525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통도사 마산 중앙포교당
정 법 사

부 설 대자유치원 도솔유치원

주 지 지 태

사부대중 일동

■ 경남 마산시 추산동 65-1
TEL : 055)246-8393 · 055)425-6544

송광사 부산분원
관 음 사

환희복지 장학재단

주 지 지 현

청신사회 · 자림회 · 환희합창단
관음학생회 · 단이슬어린이집

■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9-2
TEL : 051)294-9300, 9303
사회복지법인 늘 기쁜 마을
다정한 어린이집 두송경로당

■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96-1(도개공4지구 아파트 內)
TEL : 051)265-9471 FAX : 051)265-9475

대한불교 조계종
문 수 사

부 설 문수불교문화원

회 주 법홍
주 지 지원
원 장 설곡
신도회장 김홍관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61-3
TEL : 051)624-3754 · 623-3648

삼천불 봉안 불사도량
정 토 사

부 설 정토불교대학 정토간병회

주 지 덕 진

사부대중 일동

■ 울산시 남구 옥동 803-5번지
TEL : 052)274-3800

사단법인 법연원
법 연 사

회 주 조 연

■ 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588-6번지
TEL : 051)868-7733

봉래산 미룡사

불교사회문제연구소(무료법률상담소)

원 장
주 지 김정각

■ 부산시 영도구 동삼 1동 323-194 번지
TEL : 미룡사 051)404-2100/4300
자비원 051)403-4848/4841
자비의 전화 051)403-4861
FAX : 051)403-4860

대한불교 조계종
묘봉산 혜원정사

조실 고 산
주지 효 명

고산장학회 관음회 청년회 선지식회 연꽃부부회
대학생회 자비회 포교사회 중.고등학생회
만불회 선원대중 어린이회 지장회 혜원합창단

■ 부산시 연제구 연산 4동 산 1113-1
TEL : 051)866-7771 FAX : 051)866-7777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산 선 암 사

부 설 원효불교대학

법 주 중 원
주 지 사 명
신도회장 신재철
자원봉사단 단장 왕선자

사부대중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3동 628번지
TEL : 051)803-7573 FAX : 051)803-7521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천축산 불영사

불영사 말사 동림사

주 지 심전 일운

■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120
TEL : 054)783-5004 FAX : 054)782-9189
동림사 : 054)783-2046

통도사 부산포교원 大廣佛敎大學

(사)한나래문화재단

시민선원 · 문화관
부 설 부산연꽃 · 울산보리수
김해연꽃어린이집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 1동 390-34번지
TEL : 051)816-2241 · 051)816-2245
FAX : 051)806-2430
Home Page:http://BusanBuddhism.org

대한불교조계종
동 명 불 원

주 지 장 산
신도회장 이자성심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07번지
TEL : 051)624-7667
FAX : 051)626-7498

대한불교 조계종
내 원 사

주 지 혜 등

사부대중 일동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291번지
TEL : 055)374-6466

대한불교 조계종
청 량 사

주 지 현 엽

사부대중 일동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445번지
TEL : 051)271-2774

대한불교 원효종 총본산
금 수 사

부 설 해동원효불교대학 · 해동원효어산의식교육원

종 정 이법홍 주 지 송구산
학 장 전용만
부인회장 김보원행
사무국장 안종명
대중일동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4동 843번지
TEL : 051)467-3316 · 462-0338
FAX : 051)464-3355

대한불교조계종
대운산 내원암

주 지 종 선

사부대중 일동

■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1312번지
TEL : 052)238-5088 FAX : 052)239-0388

대한불교조계종
해 인 정 사

부 설 해인경전대학

주 지 수 진

관음예불 회원 일동
신도일동

■ 부산시 사하구 괴정1동 1063-56
TEL : 051)202-4933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주지 · 관장 혜 총

사부대중 · 임직원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 2동 33번지
TEL : 051)809-0926

금모선원 해운정사

조 실 진 제
주 지 지 해
신도회장 서석인
부 회 장 김오홍 홍무진성

신 도 일 동

■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412
TEL : 051) 746-4812 · 746-2256

(사)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 장 황국근

수석부회장 류상영
외무부회장 손정현 내무부회장 오세희
연수원장 박규보 사무국장 하재훈

상무위원 일동

낙동강 원류따라 구도도보순례

부 설 가람의문화답사회 : 051)851-5209
대불청 직영 수련 꽃집 : 051)852-1007

■ 부산시 연제구 연산 2동 1320-49번지 2층
TEL : 051)851-5209 FAX : 051)851-5210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청년회

불성의 근본자리에는
나와 너의 나눔이 없습니다.
일체가 하나입니다.

청년회원 일동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1
TEL : 051)403-7077
홈페이지 : www.hanmaum.org

부산불교신도회

부 설 「부산불교최고지도자아카데미」

회 장
학 장 강 선 태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 2동 157-1
부산불교회관 5층
TEL : 051)853-2021 FAX : 051)853-2036

부산여성불자회

고 문 혜 응
회 장 왕선자

부회장 이윤목 허명애 심신애
총 무 류경자 재무 김지언
교 화 이복선 심춘자
감 사 이경월 홍말연
운 영 이미춘 하영조

■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1동 390-34 회엄회관 4층
TEL : 051)809-3166 · 817-3166

자비실천 봉사회
자비실천 찬불가회

회 장 한영옥 지도강사 금정미

찬불가, 가요, 가곡등을 무료지도합니다.
부처님 법향 가득한 찬불가 속에서 불심을 키울 분들을 기다립니다.
또한 자비실천봉사회에서는 양로원, 교도소 등을 방문 부처님 법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니 대자대비를실천하는 길에 무루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TEL : 051)898-1547 · 011)859-1547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법 형 제 회

회 장 박해일
부 회 장 이인상
교화부장 손문재
총 무 김종희

회 원 일 동

■ 부산시 영도구 동삼1동 중리 522-1번지
TEL : 051)403-7077
홈페이지 WWW.hanmaum.org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부산불교실업인회

고 문 강병중 서춘석
회장 직무대행 박수복
부 회 장 김윤환 김종태 이근철
이상태 하문원
감 사 박수관 박영근

회원 · 마야부인회 회원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7-44
박수응산부인과의원 4층
TEL : 051)818-9914 FAX : 051)818-9916

한국운전기사 불자연합
부 산 지 역 회

회 장 조홍인
부회장 조상수

회원 일동

■ 부산시 남구 용당동 507번지 동명불원내
TEL : 051)627-1869 FAX : 051)626-7498

(사)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

총 재 성 오

사무총장 지 종
협회장 김석조
고등부 지회장 김창오
중등부 지회장 정종근
사무국장 이욱태
총무과장 윤나영

■ 부산광역시 양정 2동 157-1 부산불교회관 5층
TEL : 051)853-2445

재단법인 보현장학회

이 사 장 정여
상임이사 각우
이 사 정현 심금윤월
백대일심
감 사 여현 정만
사무국장 이욱태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산 57번지
TEL : 051)403-7096 FAX : 051)403-9801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합 창 단

단 장 최명학
총 무 김종희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1
TEL : 051)403-7077
홈페이지 : www.hanmaum.org

대한불교조계종 불자교육기관
부산불교육원

회 주 대 성
한 주 영 규
원 장 성재도

◆불교수행학교 ◆참선수행학교
◆불교도서원 ◆월간「날마다 좋은 날」
◆도서출판「날마다 좋은 날」

■ 부산시 동구 수정 2동 43-4
TEL : 051)466-4080 http://bulgyo.or.kr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계종 **법계사**

주 지 무 관

대 중 일 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212
TEL : 053)768-2251
H·P : 053)768-1251

대한불교 **운문사**
조계종 **운문사승가대학**

학 장 명 성
주 지 혜 은

대 중 일 동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TEL : 054)372-8800(대표)

대한불교 조계종 **월인사**

회 주 혜 국
주 지 혜 관
신도회장 김상주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 605-6
TEL : 053)767-3971
FAX : 053)767-5791

대한불교 조계종 **청암사**

청암사 승가대학

주 지 지 형
신도회장 김원식

■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688
TEL : 054)437-0038
FAX : 054)437-9664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성지 낙가산 **보문사**

보문사 대중일동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
TEL : 032) 933-8271
FAX : 032) 933-8270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바른배움 바른깨침 바른포교』

주 지 돈 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TEL : 053)792-1353 · 1181
FAX : 053)791-4951

문수정사

주 지 환 허

■ 대구 달서구 두류 1동 807-4
(성담시장 사거리)
TEL : 053)653-6689
H·P : 011-9596-0130

대한불교 조계종 **원만사**

원만사 유치원

대 중 일 동

■ 대구직할시 중구 동산동 708
TEL : 053)257-1914

한국불교 삼보종 **총무원 삼보선원**

원 장 송법장
주 지 석덕봉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258-7
TEL : 053)959-6331

대한불교 조계종 **인각사**

『역사와 문화의 산실
삼국유사 저술지』

주 지 초암 상인
신도회장 대원 장욱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동 612
TEL : 054)383-1161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 석공사전문
건설업체

대 표 탁희열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TEL : 054)955-8200-1
H·P : 011-509-1443

델타석유

보일러 실내등유 할인판매

대 표 박성일(보경)

■ TEL : 053)767-5122
743-5008
H·P : 016-531-5006

대한불교 조계종
불국사 대구포교당 **금강삼매원**

(호위사계 금강삼매경 독송회)

회 원 일 동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10-3
(달성 네거리)
TEL : 053)561-4714

대한불교 조계종
청량산 청량사

주 지 지 현

신 도 일 동

■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239
TEL : 054-672-1446
FAX : 054-672-9060

등명락가사

주 지 이청우

대중 일동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 17
TEL : 033-644-5337

부산불교신용협동조합

◆1인예금 5천만원 정부 보장
◆비과세 세금우대, 생계형 예금취급
◆담보, 신용대출 신속 처리
◆공제(보험) 판매
(자동차보험,암,자녀안심 등)

■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 1동 847-18
(건축사회관 1층)
TEL : 051)633-9120~3

푸른 산사의 풍경소리에 젖는 청년들
부산청년불자산악회

회 장 김종성

회원 일동

매월 둘째 일요일 부산불교회관앞 출발

■ 부산시 연제구 연산 2동 1320-49번지 2층
TEL : 051)851-5209 FAX : 051)851-5210

박해일 내과

원 장
전문의 박 해 일

TEL : 051)414-4200

LG 하이샤시 아리산업

대 표 이해천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436-4
TEL : 051)416-6029
FAX : 051)413-1282

"함께 하는 세상" "배려하는 여유" -
늘푸른 세상

부 설 늘푸른 문화교육원(북부산인가 제 4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원)

고 문 도승스님
지도법사 신재 도관 효명 지일 유정
회 장 황국근 부 회 장 김도근 이갑상
사무처장 김영 교육원장 이미경

한국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도예 교육을 실시합니다.

■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573-3 반도프라자
TEL : 051)315-0279 FAX : 051)314-7902

巨林 油壓

선박유압장비
유압응용기계

대 표 조 봉 천

■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1가 33번지
TEL : 051)412-0935~6
FAX : 051)412-0935

부산 백합꽃 도매센타

전국으로 세계로-
비씨카드(꽃) 통신판매

대 표 장복녀

■ 부산시 서구 초장동 79-6 9/1
TEL : 051)246-2461 / 246-2971
FAX : 051)247-2103

해일산업

노즐 · 연료펌프
재생수리

대 표 김 종 희

■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1가 23-3
TEL : 051)418-6263
FAX : 051)418-6264

유림한의원

원 장 이 하 경

TEL : 051)467-5217

천보공업사

임직원 일동

■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89-3
TEL : 051)315-2859

무량수 불교용품 기획 · 차 전문점
불교전문기획출판회사 보안기획

대 표 주영배(普眼)

■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1가
151-3(거상빌딩4층)
TEL : 051-255-5675, 0502-255-5675
FAX : 051-255-5676, 0502-4242-0048
21C 불교문화를 열어 가는
Buddha21
Home page:www.buddha21.co.kr
E-mail:boan21@korea.com

전통다원 보송

대 표 변선아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 2동 157-1
(부산불교회관 내 2층)
TEL : 051)862-3236 · 862-3237

안산시 불교연합회

회 장 지 허
총 무 보 림

합창단 임원일동

재단법인 일붕선교종
금강산 약수암

주 지 보 혜

신도일동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34-1
TEL : 033)682-1933

불 심 원

지도법사 장세종(인담) 합장

◆장병 및 간부, 가족 일반 신도를 위한 일요법회
◆환자 및 환자가족을 위한 법회 실시
◆무료 장엄염불 봉사 및 일손돕기

■ 부산시 동래구 명륜1동 명륜초등학교 정문앞
TEL : 051)554-7578



대행스님

일상생활 나고 드는 곳은 한자리 뿐

여러분과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 더군다나 부처님의 출가 일이라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자로 태어나서 죽고 사는 것을 모르시다가 죽는 것도 아시고, 병드는 것도 아시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 고생을 하고 사는 지도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한철 사는 것이 너무나 허망해서 출가를 하신 것이죠. 그건 여러분도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만이 정말이지 부처님을 존경하고 받들어 모실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부처님이 그 당시에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것을 곰곰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는 첫째, 불교가 어떠한 것인지 먼저 알아야 될 겁니다. 불이라는 건 일체 만물 만생의 근본 생명이 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생각하고 배우고 느끼며 사는 것이 바로 교입니다. 누가 해라 안해라 하기 이전에 불교라는 것은 어느 한군데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끝없이 흘러가듯 초월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불교입니다. 요새 한창 기독교에 눌려서 불교를 믿는다는 말을 떳떳하게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데 허허허…, 정말 그러십니까?

만물의 근본생명이 佛

우리는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의 몸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즉 육통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세계 공기주머니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하셨는데, 여러분!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죠?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시고 아셔야 합니다. 물 속에서 사는 고기들이 물 바깥에 나오면 못 산다는 거 아시죠? 그와 같이 인간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통 안에서 벗어나려면 은 어떻게 해야 만이 벗어날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당시에 가르치신 그 뜻, 그것을 현재의 용어로 알아듣기 쉽게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몸 안에 잔뜩 들어있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체들을 부처님께서는 중생으로 비유를 했고, 몸은 배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망망대해에 배를 띄워 놓은 거 같은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 망망대해에 배 띄워서 건너가기가 참으로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뱃사공 선장한테 다가 마음을 한데 모아서 한마음으로서 구성이 돼야지 아무 지장 없이 건너갈 수 있지 제가끔 배속에서 파도친다고 살려달라고 하고 바깥으로 아무리 관세음보살, 주해신, 주산신, 부처님을 불러 봤자 대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배가 뒤집히고 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못났든 잘났든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종교도 있고 부처님도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대 성인들이 말씀하시기를 '미거한 자들아! 너부터 먼저 알라.' 했습니다. 너부터 알아야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공해서 고정됨이 없이 초월해서 끝없이 돌아가는 여여한 생활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를 다니며 봐도 또는 우리 불교를 봐도 그렇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아니, 일거수 일투족 다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용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복으로 끄달립니다. 만날 기도를 하는가 하면, 기도를 해도 상대방에게 기도를 하니 나와 부처님과 항상 둘이 되죠. 어떻게 하나로, 한마음으로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은 언제나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뚝 솟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니라 일체 만물 만생이 아니 되는 것이 없고, 내 자리 아니 되는 것이 없고, 내 몸 아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방편으로 이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덕이 될 수도 없는 행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속에도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요, 그래서 일배를 한다 하더라도 한마음이 돼서 하면은 공덕이 되지만, 한마음이 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내가 있어 가지고 부처님 따로 놓고 일배, 삼배, 아니 삼천 배를 한들 공덕이 될까? 이 모두가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을 좀더 알아야 하며, 나는 무슨 팔자가 이런가, 나는 어떠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인가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떠한 것을 볼 때에 고정되게 보는 거 있습니까? 보면 다른 거 봐야하고, 들었으면 다른 거 들어야 하고,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야하고, 한 가정에서도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얘, 아무개야' 하면은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이렇게 찰나찰나 바꾸는 사이 없이 바뀌가면서 돌아가는 이런 이치에서 볼 때에, 우리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만남도 일거수 일투족이 다 공해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겠습니까?

그러니 그대로 여여한 것을 가지고 온통 마음으로 습관에 붙들리고, 관습에 붙들리고, 집착에 붙들리고, 욕심에 붙들리고, 애정에 붙들리고 온통 붙들려 가지고는 돌아가는 게 놔졌는데도 그냥 붙들고 늘어져서 온통 사단이 생기고,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묘하고 광대하고 무변한 건지 여러분은 그걸 체득하셔야 됩니다. 마음 한 번 잘 쓰면은 구덩이에서 나올 수도 있고 마음 한 번 잘못 써서 구덩이에 들어가는 수도 많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신통이라는 말이 있죠. 천이통?천안통?타심통?신족통?숙명통 이 다섯 가지를 현대 말로 비유하면 컴퓨터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 있고, 입력이 돼서 현실에 차례 차례로 나오는 것입니다. 차례차례 나오는 대로 다시 놓아서 입력이 되면은 앞서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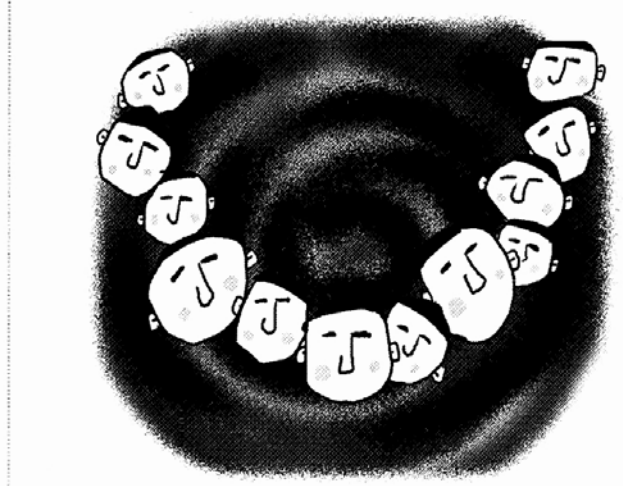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잘 나왔으면 감사하게 놓고
잘못 나오는 건 돌려놓아야
둘 아니게 행할 수 있어요

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팔자 운명도 없고, 잘된다 잘못된다 하는 것도 없고, 모든 게 둥글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만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지 딴 데서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고 드는 자리가 한 구멍이지 두 구멍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느끼며 사는게 敎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항상 보고 들으면 자동적으로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또 보고 듣고 내 즐 때도 그 자리입니다. 일상생활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내 자리에서 나오는 거 내 자리에다 놓고, 잘못 나오는 거는 돌려놓을 수 있고, 구정물을 맑은 물로 대치할 수가 있고, 또 잘 나왔으면 감사하게 놓으면서 양면을 다 한자리에 다 놓아야 만이 자연적으로 과거에 살던 '부'와 현재에 사는 '자'가 둘 아니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 스님이 항상 설법을 해주시니 그런 뜻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양무제가 많은 시주를 하고, 스님네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불사를 했는데도 달마대사께서는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을까요? 그 뜻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 몸 하나도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요, 바깥을 봐도 독불장군처럼 혼자 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전부 하나로 돌아가면서 하나로 돌아가는 그 도리를 안다면 만 사람이 깨우쳤다 하더라도 일불 일 것이고, 또는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안다 하더라도 그 하나마저도 공해서 없이 여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두가 한군데다가 입력을 해야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공부하는 분들은 팔자 운명이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띠를 가지고, 가난함을 가지고 팔자운명이라고 한다면 그 팔자운명은 몽땅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이 여기 걸어오실 적에 발 자체가 남아 있습디까, 없습디까? 또 한군데만 보고 있다면 송장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한군데 보는 점도 없고, 한군데 가는 점도 없고, 한군데서 듣는 점도 없고 시시각각으로 바뀌면서 여여하게 돌아가는데 뭐를 거기서 붙들고 자시고 애를 쓸 게 있습니까?

그리고 안으로 모든 것을 맡겨서 바깥에서 닥치든지 안에서 일어나든지 거기 놓고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신다면 모두가 유유하고 여여하게 부처님의 뜻을 받들 게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뜻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죽고 또 죽어도 어떻게 그 감사함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허탈히 살다보면 이 다음 생에 나올 때에, 몸 속에도 다섯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업보성 세균성 유전성 인과성 영계성 말입니다. 많고 적고 뿐이지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과거에 살아온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공부를 하신다면 어떻게 살아온 것도 없고, 어떻게 살 것도 없고, 미래에 어떻게 되느냐도 없습니다, 그대로니까. 그러니 마음을 밝히지 않는다면 있는 그대로 차례로 나와서 속을 썩이거든요, 그 의식들이. 잘못된 것이 과거로 돌아가서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과거는 없고 현실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과거는 돌아갔기 때문에 없고, 현실은 공했기 때문에 없다는 사실을 역력히 아셔야 됩니다.

묘하고 광대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공양 한 그릇을 놓더라도, 공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꽃을 하나 갖다 놓더라도 공심으로서 공양을 해야지요. 부처님 앞에 오면은 부처님의 형상이 내 형상이요,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부처님의 법이 내 법이니 둘 아니게 부처님한테다 몽땅 놓고 절을 하세요. 그리고 가실 때는 몽땅 내가 안고 가세요. 부처님은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질서 없이 말을 하지만 질서 있게 들으세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철 사는데 한철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지만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한철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낮으면 낮은 대로 눈이 뜨질 못하고 귀가 열리지 못해서 아무데나 짝 짓는 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온다면 그 모습의 습관이 생겨 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를 해서, 마음으로 사는 세계의 맛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모두를 벗어나서 마음으로 사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싶어서 말입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인도를 하셨고, 그러니 한 생을 그냥 잘 먹고살기 위해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하신다면 조상은 물론이거니와 자기가 뿌려놓은 자녀들도 다 건져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건져진다는 거죠. 염주 알은 꿰면 염주요 꿰질 않으면 염주가 아닙니다. 꿰어져 있기 때문에 염주죠. 그렇듯이 한 식구라 할지라도 꿰어지지 않았으니까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평상시에 자손들이 나가서 자고 안 들어오고, 공부를 안하고, 말하기 싫어하고, 또 집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문제들은, 과거로부터 영계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급격히 그런 병들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여러분이 그걸 생각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챙기지 못하는 거는 뭘 가지고 말하느냐 하면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마음에서 고장난 거는 마음으로 고쳐야지 말로 욕을 하고 아무리 때리고 해도 그거는 안 고쳐집니다. 점점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싸우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나쁘고 좋은 게 내 앞에 닥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 탓이죠.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 끼리끼리 만난 것이지 금이 넝마 전에 가 있습디까? 넝마가 금 방에 가 있습디까? 사과가 배하고 섞여 있습디까? 배가 사과하고 섞여 있습디까? 수없는 물건이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사람도 끼리끼리, 물건도 끼리끼리, 금도 금 방에나 있지 넝마 전에 있지 않아요. 무쇠도 무쇠 전에 있지 금 방에 있지 않고요.

그래서 한 가정이 살아나가는 데도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금이면 금끼리 모여 있어요. 내가 무쇠이기 때문에 무쇠끼리 같이 만나는 거구요. 이런 거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도 만난 인연들이 같은 인연들이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같은 인연이기 때문에 만났으니 너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너 때문에 난 망했다, 너 때문에 안돼 이렇게 말 할 아무 것이 없어요. 당하는 놈도 하는 놈도 모두가 똑같은 인연들이니까요. 그러니 누구 탓을 합니까, 탓을 해봤자죠. 그렇게 탓을 하고 싸우게 되면요, 돈이 저기서 왔다가도 아이고, 저 집에 들어가면 고통스럽겠다 이러고 그냥 달아나가요. 생명 없는 것이 어디 있으며 마음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체 만물 만생이 다 마음 있고 생명 있습니다.

미래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과거는 돌아갔기 때문에 없고
현실은 공했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한 집안에서 그렇게 내 탓으로 돌리고 부부지간에도 잘못했으면 서로 간에 '아, 모두가 내 탓이지. 주인공! 뿌리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밝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너 뿐이야' 할 때 전구가 여럿이 있어도 스위치 한번 누르면은 다 밝게 살 수 있도록 돼 있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을 기를 때도, 자손들이 아니라 즉 자기인데 자기는 현실의 껍데기가 되고 미래의 자기인데 자기를 소홀히 생각하고, 너 배울 때 배워야지 깡통을 차려고 고러느냐 마느냐 하구 온통 욕을 해대고, 그렇게 욕할 땐 화가 나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냥 재깍 입력이 돼서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 그 길을 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자손한테도 그렇고 어린애한테 못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애들 보는데 부부가 서로 위하고 화목하고, 내 탓 네 탓 따지지 마시고, 겉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안과 겉이 다 화목하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그게 부처님 뜻을 따르는 법이요, 또는 내 법을 그대로 응용하는 법이요. 과거 현재 미래도 없이 그대로 여여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합디다.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부터 3년을 두고 내내 집안에서는 엄마 소리도 제대로 안하고 들을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아버지고 어머니고 없고 나가면 일주일도 가요. 학교는 어쩌다가 가고 만날 어머니 불러내고 사고나 쳤다고 하면서 울며불며 그러길래 이 도리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들어오면 겨울에는 "춥지 않았니?" 여름에는 "덥지 않았니? 뭘 먹기나 했니?"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하고 부드러운 행동으로 안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안 나가더랍니다. 그리고는 겨울에 먹은 김치 독을 닦으려고 하니까 문을 퍽 열고 나와서 "어머니! 내가 이날까지 속 썩인 거 어떻게 갚아야 다 갚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 24면으로 계속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가족은 언덕을 넘다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일체만물이 다 마음과 생명 있어

☞ 23면에서 계속

서 독을 꺼내서 어머니 하시지 말라고 자기가 손수 닦아서 무거운 걸 들어다 놔주더랍니다. 이러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은 착한 아들이 되어서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지만, 이것은 모두가 양면이 다 마음으로서 붙들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붙들어지지, 마음도 내지 않고 욕부터 하고 벌써 신경질부터 내고 '저 자식은 원수로 태어났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정말 원수가 되는 거죠. 그것은 하기에 달린 거 아닙니까?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행동하기에 달려있고, 말하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부싸움도 내탓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여여하게 부처님 뜻을 받들어서 사는 도리를 그대로 해나가신다면 그대로 여여한 법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법당에 가도 공덕이 되게 하려면 모든 거를 다 부처님 앞에 일임해 놓고, 일배를 올리든지 삼배를 올리든지 급하면 일배가 삼배가 되는 수도 있고, 삼배가 삼천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삼천배가 일배도 될 수 있고, 한생각이 삼만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서, 다기를 한번 모신다 할지라도 둥글려서 한마음으로서 더불어 같이 올리는 그 마음이 몽땅 일체제불의 한마음에 올리는 겁니다. 어떠한 거를 올리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제사를 지내달라, 천도재를 지내달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님들께 재비를 얼마 올렸으니깐 많이 차려줄 테지' 하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조상들 영령들이 말입니다. 이 중 세계에서 발버둥치면서 먹고사는 것만 집착이 돼서 승천을 못해요. 그러면 이 중 세계에 다시 태어나서 또 그렇게 고생을 하고 구르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먹고사느라고 얼마나 허덕이고 먹고 먹히면서 모두 살아갑니까? 우리는 정신을 뺏고 정신을 먹히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짐승들은 서로 먹고 먹히면서 몸이 갈가리 찢어지죠. 우리 인간도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잡아먹고, 정신이 갈갈이 찢기고 복등을 하다가 병이 들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물건을 쪽 차려놓고 그 냄새를 맡게 하지 마시고 둥그런 떡 하나 놓고 향 초 그리고 물이나 한 그릇, 영가상 옆에다가 물이나 큰그릇에다 한 그릇 떠다놓고 부처님 다기 그냥 내려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지내신다면 영가들이 들어오면 어디부터 보는 줄 아십니까?

스님네들의 마음부터 봐요. 위패를 써 놨으면 꽃을 한 송이라도 갔다 놨으면 거기에 영접을 하고, 떡도 그냥 떡이 아닙니다. 마음의 떡이기 때문에 떡 하나 가지고 이 세상 만물 만생을 다 먹이고도 되 남는 떡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자리를 하시게끔 해드려야지 자손 된 도리로 지극한 정성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의 뜻을 받드는 것도 되고요. 부처님이 아마 내려다보고 웃으실 겁니다. 왜냐? 하하하. 참, 간편하게 잘 하는구나. 가르친 거를 뜻으로 이렇게 하니 버리면 얻는다더니 어쩌면 저렇게 그럴 수가 있나 하고 껄껄 웃으실 거예요, 아마. 부처님께서는 하나도 가질 게 없어서 다 버렸더니 몽땅 하나도 없이 버릴 게 없더랍니다. 버릴 게 없어서 여러분한테 또 펼치는 겁니다.

내탓 네탓 따지지 말고
안과 겉을 화목하게
자비로 베풀수 있다면
부처님 뜻 따르는 법

그러니 펼쳐드린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이 그대로 여여하게 풍족하게 사시라고 그 뜻을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 뜻을 받들어서 오로지 오늘부터라도 여기 스님들한테 모르는 건 물어 보시면서 열심히 가정에서 살아나가는데 이익이 되며 내 몸뚱이에도 이익이 되고, 내 몸뚱이가 허망하다고 아무렇게나 버려서는 안됩니다. 자기 몸뚱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들의 집합소니까, 집합소가 무너진다면 그 중생들도 죽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공부 못해요. 부딪힘이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합니까? 뭐 질문하실 거 없으십니까?

하여튼 우리가 부처님 법이라기보다도, 내가 노래를 하나 지어놨죠.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이다' 하고, 이 노래는 부처님 법음으로 정해져서 그냥 부릅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둘로 보지말고 살아야지, 항상 둥글고 모가 나지 않게 살아야지, 항상 말로 하지말고 마음으로서 마음을 내야지, 마음에서 스스로서 움쭉거려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다 말로 어떻게 하리까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될까 또는 생활만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길어지면은 정말 견성 성불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견성이라는 것은, 이것도 말 안 할 수가 없네.



그림 · 최주현

과거 자기와 현재 자기가 만나는 게 견성
마음공부로 차원 높여야 시대 · 과학 발전

끼리끼리 모이는 인연

견성이라는 것은 과거 자기와 현재 자기가 상봉하는 길입니다. 그게 '견성' 입니다. 상봉을 한다면, 얼른 쉽게 말하자면 어린애를 불쑥 하나 낳아놓은 것밖에는 안됩니다. 성불을 하려면은 또 죽어야 하는 것이죠. 어린애를 금방 낳은 거는 돈오라고 하고 어린애를 낳아서 어른 될 때까지 기르는 과정을 점수라고 하죠. 양면이 다 없어진다면 나중엔 돈수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성불을 마치면은 우리가 살아서 열반을 해야지 죽고 나서 무슨 열반이 있습니까? 살아서 열반인 겁니다. 살아서 열반을 못하고 그냥 죽는다면 그거는 열반이 아니죠.

열반의 구경경지까지 이른다면, 그것은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이 이 세상을 한 찰나에 들고나면서, 과거 미래를 한 찰나에 들고나면서, 내 몸 속에 있는 중생들이 모두 보살로 화해서 털 구녁을 통해서 들고나면서, 어느 누구든지 아프다면 약사가 돼서 응신이 돼 주고, 또 가난하다고 원할 때는 관세음이 돼 주고, 또는 명이 짧으면은 칠성이 돼 주고, 좋은 데로 못 가서 염하면은 지장이 돼 주고, 밝게 깨우치게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비로소 아촉이 되고, 아미타가 되고 돌아 나오는 길에 미륵이 되고 때에 따라서 물에 가서 죽을 고비를 당했을 때는 바로 주해신을, 주해신을 찾는 게 아니라 주인공에다 '너만이 나를 건질 수 있어' 하면은 그냥 주해신으로 나투어 주신다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죽게 돼서 주인공에 관하면 주산신이 돼서 나투어 주시고, 어느 거든지 아니 돼 주시는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어떤 것을 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부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자리를 하게 된 것도, 여기 노스님과 총무스님 주지스님 모두 여러분이 차원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그러니 이 높으신 스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인연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천년에 한번 만나기 어려운 도리입니다. 그러면 고만 할까요? 하하하…. 고만 하는 게 좋겠죠?

▲대중: 아니요. 더해 주세요.

▲스님: 뭘 더해요, 맨날.

▲대중: 스님이 하실 말씀은 다했지만 못 알아듣는 중생도 있지 않습니까.

▲스님: 내가 엊그저께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지금 중 세계 지구라는 자체가 앞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전부들 빼먹으려고만 하지 갔다 숨기려고는 안 하거든. 욕심들이 과할 뿐만 아니라 그저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 집이 무너지든 말든 태양력이 팽창이 되든 타버리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임시로 먹고사는 데만 그냥 눈이 벌겋죠.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간다면 꺼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높은 선반에 얹어 놓은 것 밖에는 없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키가 자라야 꺼내먹죠.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해서 차원이 높아야 차원 높은 데 있는 거를 꺼내먹지 않겠습니까?

집착 강하면 승천 못해

그런데 우리들은 차원이 낮고 꺼내 먹을 에너지는 높은 데 있고 그러니 어떻게 그걸 꺼내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차원들이 높아져야 시대가 높아지고, 과학이 발전이 되고, 정신계와 물질계가 합류화 돼서 발전이 된다면 높은 데도 꺼내먹을 수 있겠죠. 허공에 에너지가 그득하니깐 꺼내 먹을 수가 있겠죠. 하니깐 우리는 볼가부득히 이것은 가정에서 무슨 조그만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과학자들한테 이 마음을 줄 수 있다면, 전달할 수 있다면 또 난리가 났을 때에 투입할 수 있다면, 체가 없는 마음은 수만 개로도 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할 수 있다면 빛보다 더 빨리 찰나에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럼 스스로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 도리를 깨우쳤다 할지라도 연방 베풀기 때문에, 그 차원이 다들 높지 않아도 아주 차원이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한테 이끌려서 다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부처님께선 삼천 년 전에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경전을 볼 때에, 여러분이 경전을 보시고 말로 이론으로 달달 다 아시기만 하고 머리로 쓰시죠. 그런데 만약에 마음으로 경전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경전이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가 경전을 보지 않고도 경전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무척 심각한 말입니다.

지구가 버스라면 여러분이 다 한 버스 안에 담겨서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내다볼 수도 없으면서, 내다보지도 못하면서, '내 거다, 네 거다' 하고 종교마다 싸우고 모두 야단법석들을 하는데 아! 이거는 버스 안에 의자 하나씩 전부 끌어안고는 싸우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불교는 아주 심오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대로 초월해서 돌아가는 진리입니다.

두서 없이 내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난 정말이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같이 한자리를 하고 위대하신 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사는 이상 참 행복하십니다. 지금 정말 어떠한 분들이, 좀 기가 막힌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스님네들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십시요. 인제 고만 하렵니다.

※위 법문은 1996년 3월 26일 명법사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 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대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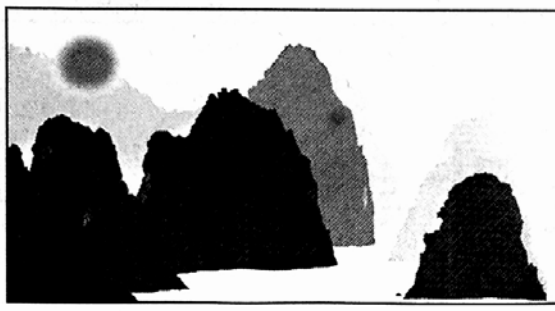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주) 화동섬유
리히스 건강지압양말
무릎, 팔꿈치
지압 보호대
쾌적함, 온열감, 무좀, 습진, 습윤감등으로 인한 숙취해소
건피부, 발냄새 제거,
피부노화방지, 피부회복에
탁월한 효과
대표 김태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21-116
전화 : 053) 582-1244
팩스 : 053) 581-1259

부산불교자비원
원 장 정 각
이사장 김성길
◆김해노동선방
◆부산불교문화대학
◆월간「큰수레」발간
◆큰수레 경전연구원
◆큰수레 문화학당
◆자비의 전화 · 무료법률상담
◆교도소 · 구치소 방문
◆자비장학회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
◆조선족 중국동포 초청연수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323-194번지
TEL : 051)403-4848 FAX : 051)403-4860

대중포교를 위한 월간지
맑은소리 맑은나라
월간『맑은소리 맑은나라』는 대중포교를 위한 불법홍포지로서 낮은 곳에서 참소리를 담아내는 문서포교지 입니다.
도서출판『맑은소리 맑은나라』는 사찰사보를 대행 발간하는 사찰사보 전문 출판회사 입니다.
◆ 부대사업 : 출판, 기획, 광고물제작,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36-4 그린타워 5F
TEL : 051)441-0263 FAX : 051)464-0953

부산불교회관
○ 여여선원 · 여여정사
○ 부설 신행학교
○ 개금사회복지관
○ 금정사회복지관
○ 보현어린이집
○ 양정노인 복지관
○ 선혜마을(실직자 쉼터)
선원장 · 관장 정 여
사무국장 전성기
국 장 박용하
소 장 홍석환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 2동 157-1
전화 : 051)853-5486~7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대한불교 무량종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
주 지 정혜안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번
TEL 055)883-7771 · 7790

대한불교 무량종
총림 은암정사
주 지 양지은
■ 부산시 사하구 괴정 2동 314-7
TEL 051)292-4586

대한불교 무량종
비룡정사
주 지 박보산
■ 인천시 중구 항동1가 2번지
TEL 032)763-1237

대한불교 무량종
약수암
주 지 채정수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2동 14-7번지
TEL 02)395-1820

대한불교 무량종
칠불사
주 지 신지담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100-5호
TEL 032)668-0748

대한불교 무량종
칠보암
주 지 이보운
■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829번지

대한불교 무량종
보경사
주 지 김보경
■ 경남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442-3번지
TEL 055)882-1599

대한불교 무량종
정토암
주 지 박정혜
■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21번지
TEL : 054)283-6293

대한불교 무량종
용운암
주 지 허지웅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 산 21
TEL : 062)512-9044

대한불교 무량종
미타사
주 지 한보각
■ 충남 아산시 온양면 종곡리 1번지
TEL : 041)541-4565

대한불교 무량종
덕수선수련원
원 장 김보인(광복)
■ 인천시 중구 항동 1가 2번지
TEL : 032)764-2857

만불동산
대한불교 조계종 **천안 천불사**
<매월 음력 초닷새는 큰스님 초청 법회일>
사회복지법인 : 미타세계 , 천안108법수회,충남청소년쉼터 신도회
회주 이기연 주지 석부불
신도회장 민병달 합장
■ 충남 천안시 목천읍 지산리 113번지 흑성산
TEL : 041)557-3223 · 557-3506
FAX : 041)555-6550
E-mail : chonboolsa@netian.com

사단법인 21세기
한국사회봉사회
이사장 이설산
임직원일동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3동 321-3
TEL 02)303-0024~5

대한불교 조계종
삼선포교원 삼선승가대학
원장 지광
학장 묘순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55
TEL : 02)923-0582 · 922-9652
FAX : 02)925-1870

송강기획
대표 윤성수
직원일동
불교음반 기획 제작 유통
■ 서울시 상북구 성북동 177-26 2층
TEL : 02) 745-6015
FAX : 02) 745-6017

대한불교 조계종 **원효사**
주지 현지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TEL : 062)266-0326

대한불교 조계종 **신광사**
주지 경주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 1동 193
TEL : 062)261-1529

대한불교 조계종 **금선사**
주지 일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산 4-1
TEL : 062)942-3260

개화산 약사사
조실 종진
주지 영배
총무 무언
약사사 신도일동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32-2번지
TEL 02)662-2551
FAX 02)664-2550

대한불교 조계종 **선원사**
주지 성원
대중일동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2-5
TEL : 032)933-8234 · 933-8985

금강사 (소금강산)
대중일동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2리 1-10번지
TEL : 033)661-4271

사자산 적멸보궁
법흥사
주지 도완
대중일동
■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422-1
TEL : 033)374-9178
FAX : 033)374-9176

대한불교 조계종 **낙산사**
주지 지홍
대중일동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TEL : 033)672-2448
FAX : 033)671-1445

대한불교 조계종 **건봉사**
주지 정영도
대중일동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
TEL : 033)682-8100
FAX : 033)622-5994

일심불원
사장 김기문
직원일동
○사찰건축 ○대불 · 소불 · 목불
○불구용품 일체 ○단청 · 탱화 · 닫집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TEL 02)725-2030 · 725-2040
FAX 02)737-5292

소양가든
대표 성덕선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857-3번지
TEL : 033)647-0733

동의보감한의원
원장 이경무
■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98-2
TEL : 033)644-8887

금강가든
대표 최계자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14-4
TEL : 033)672-5482

온누리에자비가
최연규
■ 강릉시 교동 968-7번지
TEL : 033)648-9415

불교용품 선우
(구 청심원)
불교용품 총판
대표 박영민
직원일동
■ 서울시 도봉구 쌍문 1동 378-28
TEL 02)998-7930~1

제7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제7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이 결정됐습니다. 80여편의 응모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김용숙씨의 '된장 사가시는 부처님'을 비롯 모두 7편이 당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몸소 체험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러나온 진솔한 신행 이야기들이 한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가슴을 잔잔하게 적셔줄 것입니다. 이번 신행수기에 응모해 주신 많은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상 (유마상)

된장 사 가시는 부처님

김용숙 (대전시 서구 둔산동)

◇현대불교신문사장상(우수상)

불교와의 첫 인연

김규년 (울산시 남구 무거동)

◇특별상 (종단협의회장상)

포교사로서 가야갈 나의길

장만수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특별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부처님이 안겨준 행복

김숙희 (경남 진해시 용원동)

◇특별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그림자

장원각성 (광주시 서구 농성2동)

◇특별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속죄의 그날까지

최종해 (전남 무안군 일로우체국)

◇특별상 (진흥원 이사장상)

짧은 출가로 시작된 인연

이지숙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금강경 메주는 독경과 정진으로 만들어져요"

■ 신행수기 대상 수상작

된장 사 가시는 부처님

김 용 숙



"딩동" "다녀왔습니다" 딸아이가 들어오면서 "엄마! 신행수기 다 쓰셨어요?"라고 묻는다. "아니, 아직"

"엄마, 엄마는 저보다 의지가 약하신가봐요, 저는 학원에 가서 밤 12시가 넘은 이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오는데, 바쁘신 건 알지만 힘 내세요. 지금부터 엄마가 글을 쓰시면 제가 컴퓨터로 워드를 쳐 드릴께요."

중학교 2학년인 딸의 말을 듣고 나니 졸린 눈이 번쩍 떠졌다. "그래, 엄마도 열심히 할께."

내가 한 장씩 글을 쓸 때마다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원고를 가지고 가서 워드를 쳤다. 컴퓨터에 앉아있는 딸아이가 마치 부처님처럼 보였다.

올해 금강경 독송회 통합법회에서 들은 법문이 가슴속에서 되살아난다.

"아상을 닦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금강경독송회는 금강경 7독 수행과 부처님을 공경하는 공덕으로 아상을 닦는 단체입니다. 부단한 수행과 하심 하는 마음이 서지 않으면 자기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하심을 해야 복도 지어지지 아상이 높으면 공덕도 없고 복도 줄어듭니다. 한마음으로 부처님 시봉 잘 하시길 발원합니다"

새해 첫날 기운을 내서 정진 수행하라는 스님의 당부말씀이 뼈와 살과 마음에 가득 차 올랐다. 부처님 전에 복을 지어 올리고 마음을 닦아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작복(作福)'을 마음속으로 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인스턴트보다는 신토불이를 먹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된장국을 끓여 줬을 뿐이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들친구 엄마들 극성에 독송회 된장을 구해다가 한 집 두 집 갖다 주게 되었고, 금강경독송회 메주 불사에 동참한 수자님께 들은 금강경 메주 이야기도 함께 전해 주었다. 수자님의 메주 이야기는 이러했다.

"'금강경메주'는 금강경 독경과 정진을 하는 수행자들이 새벽 공부를 마치고 만들기에 '금강경 메주'라 합니다. 콩 상태에서 메주로 완성되기까지 독경과 정진으로 메주가 만들어집니다. 출가자들은 시주에 의존하지 않고 메주 불사를 하여 자급자족하고, 어려

사찰 법향 담긴 무공해 토종 된장
떨고 있는 이웃에 주고 싶은 생각이…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 보았다. 무얼 하고 살았나? 보여지는 것은 손가락 새로 새나가는 모래알 뿐이다. 부처님께서 마음자리에 복 지으라 하셨는데 내 마음속의 자리는 모래알 만 하다.

나는 몸에 살이 찌면 돈 들여서 헬스, 에어로빅, 수영으로 체형을 유지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면서도 마음의 비만을 없애고 정신을 키우는 일엔 그동안 방관하는 자세로 지냈다. 비대해진 몸과 마음을 체중계 위에 가만히 올려놓는다. "앗! 부처님."

위험수위를 넘은 지 이미 오래 되었다. 치사량에 가까운 비만증. 〈금강경〉을 다시 읽는다.

여시아문 하사오니 일시에 불이 제 사위국기수급고독원하사 여대비구중 천이백오십인으로 구하시다. 이 시 속 되뇌여 본다. 내가 '복'이란 걸 체감하게 된 것은 1년 전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 학교 공개수업에 갔었다.

"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적어 보세요."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활동을 지켜보시다가 아들의 그림을 컴퓨터 화면에 올려놓으시고는 "와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큰 준상이가 된장국을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피자, 치킨, 불고기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준상이 처럼 된장국도 잘 먹어야 건강해 질 수 있어요."

선생님의 칭찬을 듣는 아들 모습이 유난히 의젓해 보였다.

그 날 아이에게 관심이 많은 신세대 엄마들이 준상이에게 된장국을 어떻게 끓여주고, 어디서 사느냐는 등 여러 가지를 물어왔다. 그러나 나는 사실 된장 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결식 아동 돕기도 합니다. 이른 새벽에 우리 콩의 구수한 내음이 도량과 200개가 넘는 장독대에 고루 퍼지게 되면 장작불을 약하게 조절하고, 가마솥에서 뜸이 든 콩을 소쿠리에 떠내어 물기를 빼내고 분쇄한 후, 나무틀에 찍어내고 바람이 잘 드는 하우스에서 1차 건조시킨 뒤, 흙방으로 옮겨 20일 건조시킨 다음에 띄움방에서 33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계속 금강경 독송과 정진테이프를 틀어 주며 완전히 발효 될 때까지 온 정성을 다 한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메주를 아랫목에 모셔놓고 당신이 쓰시던 깨끗한 이불을 덮어 띄우면서 정성을 다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음 천연 바람과 햇살을 받으며 숙성 · 건조시켜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수자님은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공양 올린 메주라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콩 한 알 한 알에 정성을 다했다며 인연 있는 불자들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부처님 시봉을 열심히 하길 발원하셨다. 요즘 수입 콩에 황국균을 주입시켜 열건조 시킨 메주로 만든 된장이 시장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떠올라 한겨울에 만드는 무공해 메주 이야기가 가슴속에 와 닿았다. 그래서 사찰의 법향이 담긴 토종 된장을 내 아이만 먹일게 아니라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과 결식 아동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 친구 엄마 덕분에 된장을 사겠다는 이웃들이 차츰 늘어나기 시작했다. 토종 된장을 전해주고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느껴졌다. 난이 기회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여러 사람을 겪게 되다 보니 잘난 아상에 슬슬 상처가 나기 시작했다.

"이거 진짜예요?, 수입꺼 아니에요?, 뭘 섞었나요?"

저 사람이 날 뭘로 보고 저러나 하면서 초 간격보다 더 빠르게 치밀고 올라오는 진심 때문에 몸과 마음은 숯덩이가 되어 갔다.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내 마음은 개처럼 말하는 사람을 보면 개를 따라가고, 고양이처럼 말하는 사람을 보면 고양이 흉내내고, 여우인데도 여우가 아닌 척 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이렇다보니 마음 보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열심히 직장이나 다니고 아이들 키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불광불교미술원
원장 박 갑 용
경기도 가평군 하천 1리 418-2
☎ 031)584-3952

불원 미술원
원장 김 진 구
서울 강동구 성내 2동 136-6
☎ 02)477-9178

선불화공방
탱화 / 벽화 / 개칠
내 마음자리가
정토를 볼때
손끝의 붓은
그곳을 그렸습니다
참나 박 경 귀 합장
110-220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61-1
작업실 733-0730
011-226-0730
자 택 733-0731

(주) 파 고 다
대 표 윤해성(山門)
임 직 원 일 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청동 727-2
전화 : 062)961-0404

"집착 안하니 깔끔하고 맑은 기운이 …"

우고 살림하는 것도 버거운데 내 팔자에 무슨 복을 짓겠다고 이렇게 살까' 하는 생각이 펴뜩 들었다. 선업을 지어보겠다고 시작한 일이지만 그냥 모든걸 놓고 집에 오고 싶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내 부처님 시봉 잘 하길 발원하며 원을 세웠다. 원을 세우다 보니 이 고통의 원인은 부처님 전에 복 짓겠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남보다 잘해서

부처님가르침은
에너지의 원천
부처님과 함께하는
한마음이 현실을
사는 지름길이란
생각이 들었다

생색 내 보겠다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순간 양심에 가책이 느껴졌다. 그 때 그 자리에서 바쳐내지 못한 마음을 질질 끌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에 〈금강경〉을 읽으면서 속이 상한 모든 마음을 부처님 전에 올렸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여시아문 하사오니 일시에……"

경전을 읽는 것이 졸립고 힘들어서 읽기 싫은 마음이 났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바치고 또 바쳐 집중하다보니 지혜가 열리는 것이 선명해지고 몸에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무리 바빠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경전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참된 자신을 위한 진정한 시간이고, 에너지의 보고란 생각이 들었다. '아! 정말 부처님께서는 결코 추상적인 분이 아니구나'

부처님과 함께 하는 이 한마음이 바로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는 지름길이란 걸 깨달았다. 점점 속이 시원해져 옴을 느꼈다. 오늘 느낀 수치심이 아상인 줄 알게 되고, 그 아상에 속아서 현재심을 송두리째 잃어 버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알음알이가 알아지는 중에도 깊은 가슴 한켠엔 '된장 산다고 또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나' 하며 아상 다치기 싫어하는 마음과 게으른 마음이 유혹하고 있었다. 슬금슬금 변신해 가면서 나약해진 내 틈새로 부드럽게 스며들며 다가오는 습과 업장을 주시하면서 나는 장궤를 하고 집중해 보았다. 그리고 생각이나 느낌과 몸의 움직임



그림 · 이준석

졸립고 힘든 마음 바쳐 집중하자
지혜 열리고 몸에 힘 생겨나

을 낱낱이 부처님 전에 올렸다. 정말 가슴 속에 깊이 흐르는 마음의 강에는 별게 다 들어 있었다. '미륵존여래불' '응무소주 이생기심(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며칠 후, "죽염된장 1kg좀 갖다 주세요"라는 전화를 받았다. '예' 하는 마음으로 바로 갖다드리며 아주머니한테 드리는 순간, 그 분이 된장 사 가시는 부처님으로 보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일시에 쉬어졌다. 몸과 마음과 호흡으로 정성을 다해 드렸다. 깔끔하고 맑은 기운이 감돌았다. 맑은 감사의 눈물이 흘렀다.

부처님 당시의 탁발 수행의 의미가 뼛속 깊이 느껴왔다.

〈유마경(維摩經)〉제자품(弟子品)에는 탁발의 방법과 그 공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걸식은 평등한 법에 머물러 차례대로 해야 합니다. 걸식은 식용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음식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마을에 들어갈 때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마을이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온갖 분별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하여 모든 것이 꼭둑각시와 같은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걸식한 밥은 모든 중생에게 베풀고 부처와 성현에게 공양한 다음 먹어야 남의 보시를 헛되이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번뇌를 버리지 않고서도 해탈에 들고, 집착을 끊지 않고서도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탁발'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읽는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행자는 탁발을 통해서 수행의 가장 큰 적인 아만과 고집을 없애고 보시하는 쪽으로 보면 선업을 쌓는 공덕이 된다"고 적혀 있었다.

탁발하는 것이 복을 바르게 주고 받는 공덕이고 불가사의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복이라는 단어가 복이라고 표기해야 하는 이유와, 다라니의 옴과 복이 일치한다는 느낌도 들었다.

마음자리에 복을 짓는 것이 1초보다 더 빠르게 올라오는 현재심을 현재에 바쳐내는 순간, 오롯하게 부처님이 서 계셨다. 장궤하고 미륵존여래불을 30분 정도 되뇌이며 정진하고 일어나서 움직이는 순간이 선생님의 말씀처럼 행주좌와 어묵동정으로 이어지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부처님으로 보였다. 조사어록에 '부처님은 마른 똥 작대기, 부처님은 고깃덩어리'라는 글귀가 한마음으로 다가왔다. 상대를 부처님으로 보라는 법사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실행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잘 안되던 남편이 부처님으로 보였다. 딸 부처님, 아들 부처님 그리고 사물과 사람 모두가 부처님 당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육신만 시봉 하느라 철없이 보낸 나의 40년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이제 정신이 들어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 내 모습을 바라 보면서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가 확실히 정리되었다. '다시 한번 세세생생 부처님 전에 복 짓고 살기를 발원하며, 주위에 떨고있는 이웃과 결식아동들 모두가 불국토에서 행복하게 살길 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시원하게 뚫린 푸른 하늘을 가르며 된장 사 가시는 부처님을 향해 달리는 차 안에는 법음이 가득하다. 만약 마음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망상이란 때만 없으면 곧 청정이란 걸 깨달았다. 나에게 집착하는 것은 더럽혀진 것이고 나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은 곧 청정한 것이란 참 진리도 가슴속에 각인되었다. 나무석가모니불.

"봉사하며 살라는 가르침"

● 당선소감 ●

대상 김용숙씨



막상 큰 상을 받고보니 어린시절 서울 개운사에서 어린이 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참 진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안병호 법사님의 생각이 간절합니다. 절 마당에서 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사탕보따리를 열어 나눠주시는 모습에서 보시행을 처음 배웠습니다. 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일러주신 안법사님의 말씀이 수기를 써내려가는 동안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상 소식을 들으니 당선의 기쁨보다는 잠시 보시행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살았던 저에게 불법의 그늘속에서 다시한번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라는 큰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차오르는 아상과 싸우며 앞으로도 열심히 〈금강경〉을 독송해 그 가르침의 소중한 씨앗을 내 주변에 뿌려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이번 신행 수기 당선으로 흐트러졌던 내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재발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용숙씨는 97년 시 '낯설기'로 제5회 과천시민문학상 '우수상'과 세계환경의 날 기념 환경보전 체험수기 '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 금강경 독송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랍 21일 심사위원들이 본심에 오른 작품들을 심사하고 있다.

총 80편 응모 … 기복작품 많아 흠

● 심사평 ●

총 80편중 예심을 통과한 11편이 본심에 올랐다. 올해도 역시 삶속에서 만난 질곡을 불법의 힘으로 이겨낸 과정을 진솔한 글로 옮긴 체험담들이 많았다. 하지만 기복적인 내용의 작품들도 적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중 김용숙씨의 '된장 사가시는 부처님'은 〈금강경〉을 읽고 된장 장사를 하면서 인욕과 보시행을 생활속에서 실천한, 평범하지만 누구에게나 공감이 가는 신앙 체험이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을 차지하게 됐다. 김규년 씨의 '불교와의 첫 인연'은 가족들의 불교 인연담을 깔끔한 문체로 정리해 '현대불교사장상'으로 선정됐다.

특별상으로 뽑힌 다섯 작품들 역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인생의 고비에서 넘어지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등대 삼아 인생의 항로에서 승리의 주인공이 된 내용들이어서 신행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총화종 총무원장을 수상한 최종해씨는 살인을 저질러 8년째 목포교도소에 복역중인 재소자로 불교에 귀의해 죄를 참회하는 내용을 감동적으로 써내려 갔다.

심사위원장 법산 스님은 "신행수기는 사찰이나 교양대학 등에서 배운 교리를 생활속의 실천신행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과정을 진솔하게 기술해야 된다"며 "많은 응모작품들이 내용적인 면에서는 충실한 반면 표현부족과 기복적인 치우침이 많아 수기로서의 수준이 떨어져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심사위원: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 김병규(본지 주필) 김정자(언론인) 최정희(본지 편집고문) (사진 왼쪽부터)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불거촌 유앙산 진무도량(전통사찰 58호)
진묵경당 진묵조사전
조 앙 사 진 묵 사
진묵조사님의 탄생터. 무자손 천년 향화 지지
주 지 송 헌 합장
신도대표 김진호 김재승
■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431
TEL : 063)542-5585 · 063)542-5485

대한불교 해인종
약 사 암
주 지 혜 공 합장
■ 전북 군산시 조촌동 784-1
TEL : 063)443-1782

연 화 사
주 지 원 경 합장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48-2 (진밭다리-모래내시장)
TEL : 063)254-1688

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충만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불교 조계종
관음포교원
주 지 진 성 합장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82-4
TEL : 063)282-6038 · 283-8610

대한불교 천화종 총본산
황 방 사
종 정 의 천 합장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만성리 산 84
TEL : 063)214-0788 · 214-0108

대 원 사
조 실 의 천 합장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산 152
TEL : 063)288-2752 · 232-8078

보 문 사
관음기도도량
주 지 향 산 합장
신도회장 이보문심
총 무 김지환
총 무 김귀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가 465-14
TEL : 063)284-7547

대한불교조계종 제 24교구
능가산 개암사
주 지 합장
■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14
종무소 063)581-0080, 583-3871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 선 암
주 지 덕 산 합장
신도회장 최진여심
십선회장 해산 안준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192-1
TEL : 063)221-8486 · 221-4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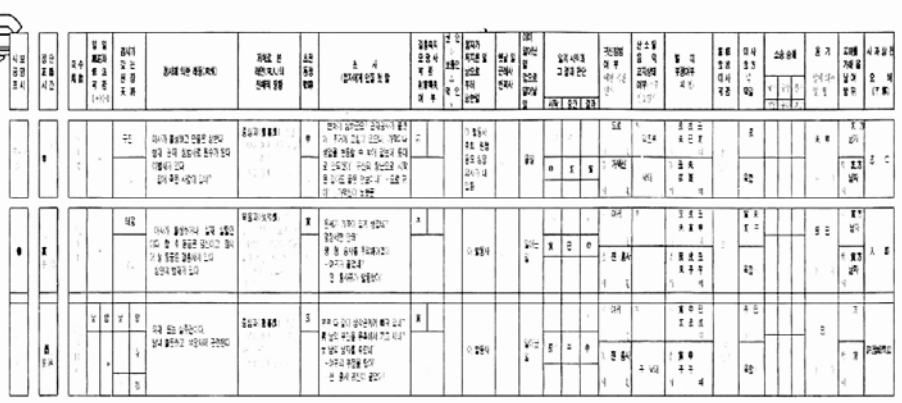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상 주 사
관음기도도량
주 지 정 덕 합장
신도회장 박복수
■ 전북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544
TEL : 063)453-7800 · 453-4554

「육임래정비법 혁신판」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비싼가?

오행을 모르는 분을 위해 오행에 능통한 분을 위해 또, 간판을 자신있게 걸고자 하는 분을 위해, 큰 맘 먹고 다시 습니다. -효사-

육임 신단(神斷)은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시간만 보아 미리 그 사람의 사정과 특별한 비밀과 일의 결과를 내가 먼저 말해 주는 책이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그 날치 한 장에 다 적혀 있어 쓰여진대로 보고 말씀만 하면 그 사람은 자세와 안색이 달라지게 되어있는 책입니다.

이를테면, 낮 사(巳)시(9:32~11:32 서울지역기준)에 사람이 왔거나 전화했거나 가서 만났을 때, 이 사(巳)시 칸에 써져 있는 내용들을 보고 말하면 다 맞게 되어 있는데, 아래의 내용들을 모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이 사람의 운세가 지금 순조로운지 역경스러운지를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2, 천도·시식·굿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즉 굿을 해야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가 +표, 또는 −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물으러 왔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4,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5, 문에 들어서자 말자, 전화 오자말자, 가서 만나자 말자 대뜸 내쏠 말이 적혀 있으며, 동시에 어떤 귀신이 발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끔 쓰여 있습니다.

6, 무엇을 묻든, 그 묻는 일이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즉시 알고 말해줄수 있도록 써져 있습니다.

7, 상대가 이익을 줄 사람인지, 피해를 줄 사람인지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한 사람인지가 즉시 판단되고, 또 말해 줄수 있게끔 표시해 놨습니다.

8, 상대가 선한지, 악한지를 표시해 놨습니다.

9, 찾아오거나, 전화를 했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고민사가 자기 스스로 일으킨 일인지, 아니면 남으로부터 당한 일인지가 써져 있습니다.

10, 묻는 용건이 오래된 일인지, 근래에 일어난 일인지, 자주 반복되는 일인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1, 그 일이 이미 일어났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가 써져 있어 먼저 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2,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일을 시작·중간·결과로 나뉘어져 좋고 나쁜 것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표시대로만 말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13,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에 대해 그 시간만 보면 지금 그 사람에게 무슨 귀신이 침범하여 발동하고 있는지를 즉시 말할 수 있도록 그 시간 칸에 다 써놨고, 그 귀신을 제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부록에 자세히 밝혀 놨습니다.
귀신을 밝히면 반드시 그 집안에 그런 귀신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되는데, 이를테면 「전사귀가 발동했네?」라고 들어서는 사람에게 즉시 먼저 말하면 그 집안에 전쟁터에 나가 운명한 분이 있다는 것을 수긍하게 됩니다. 이것은 육임에서만 밝힐 수 있는 비법으로서 천도나 시식, 또는 굿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14, 지금 누구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를 먼저 지적할 수 있도록 탈 부리고 있는 산소를 써놨습니다. 생년월일시를 물어서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화 받자마자, 찾아가서 마주치자마자 먼저 내쏴부칠 수 있도록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산소탈에 대한 제압법도 부록에 밝혀 놓았습니다.

15, 빌미부정 역시 온 사람이나 전화한 사람의 띠만 알면, 상대가 현재 무슨 부정이 들었는지, 빌미부정든 띠들을 모두 써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단번에 기선을 제압당해 버립니다.

16,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흉상인지 길상인지, 이사를 하면 좋을 것인지, 빨리 그 집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사람인지 여부가 써져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부록 해당 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주치는 그 순간 먼저 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7, 이사를 하려할 때 어디로 이사를, 어느 날에 시키면, 언제 어느 해, 또는 어느 월에 가서 좋은 일이 있게 되는지를 아예 써놨습니다.

18, 국가와 개인간의 소송, 집안 수상·수하간의 소송, 타인간의 원고·피고의 소송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분명히 표시해 놓았습니다.

19, 묻는 일이 어느 월에 될지, 어느 날에 될지를 정확히 써놨습니다. 또 부록에 그 근거를 밝혔으니 이를 보시면 참으로 큰 것이 얻어 집니다.

20, 어디 방위에 사는 남녀 누가 피해를 가해 올 사람인지를 밝혀 놓았습니다.

21, 뒷면에, 묻는 용건을 즉시 답변해 줄수 있도록 묻는 내용 22가지별로 그 답을 써놨습니다.

22, 뒷면에, 그 사람 띠만 알면 그 사람의 운세를 밝힐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귀인인지, 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비한지사인지, 병들 사람인지, 관재가 있을 사람인지, 등등이 모두 밝혀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날치 한 장 칸칸마다에 다 쓰여져 있으므로 바인더로 된 본 책에서 그 날치 한 장만 빼서 책상위에 놓고 하루 동안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전13권 · 바인더금박 · 크기 : 540×380×30 · 지질 : 스노우무광
주문전화 : (02)993-8680
입금처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 도서출판 복문
※각종 카드로 장기 분할 구입도 가능합니다.

매월별 12권 분권
1,300,000원
(일백삼십만원)

육임1년 신수비결 출시 주문받습니다.
값 250,000원(1,450페이지, 8절 미색모조)
보는 날짜와 시간만 찾으면 그것을 보고 말씀만 하십시오. 적중합니다. 띠별·월별 길흉이 신통하게 적혀 있습니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규격 50,000원 / 구인 · 구직 규격 4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구운 마늘환
100% 토종 구운 마늘
- 심한 피로 / 정력 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 / 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 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부전스님 구합니다
50세 이하 전통의식을 상주근공에서 관음의식 정도는 단련된 스님, 월보수는 80만원 능력에 따라 보시를 더 드릴 수 있습니다.
▷ 창원
055)286-1779

구 직
- 사찰 운전 기사 직
- 봉고 9인승 지입 원함
- 경기남부지역

031)352-5671
011)9666-0137

비구니 되실 분 모십니다
▷ 20대~30대
- 서 울 -
011)9865-1975

조계종 미륵당 고불사
- 석조여래 약사대불 본당
- 서울교당 불지촌
- 기체험 기치료 인생상담

041)566-0358
02)3444-4376
역학, 선체조, 기공문도 모집
www.bulljichon.com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사찰관리(신도관리)
· 능력있는 분 우대
▷ 서울 홍은동
여행자 구함
02)395-1222

전통황토방
발명특허 제 300446호
신기술개발 벤처기업
"흙은 만물의 모체다"

국내 최초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황토 베개 개발
※ 전국 대리점 모집
(주) 지정황토산업 032)427-66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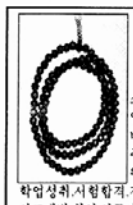
오참법수행 영가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진정한 영가천도 3, 7, 21일 수행으로 완치 또한 진정한 수행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분 최소한의 성금으로 됨 진정한 수행자를 위한 길
017)859-1389

흑단(천연목)염주를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 천주, 백팔주, 단주, 합장주 =
덕 림 산 방
◇ 주소 :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림 2리 552
◇ 연락처 : 061)337-4879
011)610-4879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강릉
033)648-4579
018)560-1080

- 기도실 행자스님모십니다.
- 공양주나 함께 사실 보살님 찾습니다.
- 기도하실 처사님도 찾습니다.

054)632-3184
011)561-6644


벼락맞은 벽조목 염주
스님께 염주를 보시하면 수명장수하고 좋은 업보를 받아 소원이 이루어 진다하여 옛부터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몸에 지니거나 염주단추,인감도장등을 만들어 사용하면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 진다고 하였습니다
학업성취,시험합격,결혼성취,부부화합,사업번창,건강재차,매매,사고예방,취업,신규사업등 신비한 영험을 체험해 주십시오.
부처골 지장암 054)383-8553 · 011)9585-4908
염주 大 12만원,中 6만원 단주 6만원, 인감 5만원
농협703088-52-037905 이민택

사찰 안내
- 부지 총 : 4100평
토목공사 완료 약 1000평(종교부지)
조경완료 도로 작업 중
- 특징 : 영동고속도로에서 3km인접한 지점에 만가가 없고 1급수 계곡이 흐르고 벼락바위가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청정도량 임
산중같은 아늑하고 포근한 지역임
- 가액 : 2억 3천만원
011)321-0194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북구 수유 1동
- 건물 : 4층 건물 중 2층 지장사
- 평수 : 85평
- 법당, 주지실, 종무실, 선방, 주방, 창고 1개(배란다 사용)
- 삼존불, 지장보살, 산신, 10불 지장보살 모셔져 있음
- 에어콘 , 주지실, 법당, 주방용품 일체 보시함
- 스님 급한 사정으로 급 안내
- 보증금 500만원 월 75만원 권리금 4,500만원 절충가능함

017)737-4517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선문답집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취모검과 같이 예리한 지혜검의 휘두름, 근기에 응하여 모자람이 없는 지재한 답변에 묵은 갈증이 해소되는 통쾌함을 맛볼 것입니다.
전강, 경봉, 숭산, 묵산 선사님들과의 명쾌한 문답이 실려 있으며 중앙일보의 (한국불교의 큰스님 선문답) 열 분의 기사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본답을 함께 실었습니다.
☞ www.zenparadise.com
값 5,000원
☎ 02-522-0122 도서출판 민족사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
- 대지 : 88평 실사용 : 150평
- 건평 : 30평
(법당10평, 요사채 20평)
- 가액 : 1억
- 특징 : 교통편리, 포교당으로 적합

055)852-4130

임대사무실 안내
- 위치 : 덕천동 백량산 밑 한국통신 전화 후문
- 평수 : 2049평, 방 3개, 주방 1대(10평)
- 가액 : 전세 보증금 1,500만원 권리금 1,400만원
(권리금은 직접만나서 가액 절충)
- 주차시설 완비, 주차비완전무료

016)836-2664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
- 대지 : 88평 실사용 : 150평
- 건평 : 30평
(법당10평, 요사채 20평)
- 가액 : 1억
- 특징 : 교통편리, 포교당으로 적합

055)852-4130

고질적인 신병 완전 퇴치!
육도윤해 중 축생도(뱀, 개구리, 호랑이, 공작, 개등) 삼라만상 온갖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내 부모 형제 자식 아닌것이 없음을 배우고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 연락바람. (인과응보 공부)
▷ 인천
011)9147-9303 · 032)519-1086
심원사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근교
- 부지 : 1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6평
- 가액 : 1억 7천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앞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6만평 도량안에 부지 2000평 동강내리 계곡이 앞에 흐르고 좌우 백호가 뚜렷하며 연꽃안에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고 경관이 아주 좋음
기와건물 40평 방 8개 주방 법당 조경이 잘 되어 있음. 천탑 천불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 돌 수십톤 확보되어 있음. 건강관계로 급 안내
- 가액 : 2억 5천만원(답사 후 절충)

033)378-0555/018)223-2102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백량산
- 평수 : 49평 방 3개, 주방 1개(10평), 삼존불 완성
- 가액 : 권리금 1,400만원 전세 1,500만원
주차시설 완비

016)836-2664

절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단성면
- 부지 : 863평
- 주택으로 지목변경 완료
- 차량진입 가능
- 가액 : 평당 5만원

011)564-9016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 불교관련 전문 대출기관 -
- 사찰 매매잔금 대출
- 불사자금 대출
- 기타 대출 상담

(대구) **보현사 신용협동조합**
053)426-1037
011)527-1037
(서서열 전무)

사 찰 안 내
- 위치 : 의정부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부지 : 790평
- 가액 : 6억 4천

- 위치 : 수원
- 법당 : 15평
- 요사 : 35평
- 부지 : 310평
- 가액 : 3억 5천

- 위치 : 강원도(동해안)
- 법당 : 27평
- 요사 : 30평
- 부지 : 230평
- 가액 : 2억 8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전포동 부산전철 역
- 3층건물 3층 약 120평
- 법당 70평 외 방 5개 (살림방 및 공양간 시설 일체 완비)
- 불교대학 및 강좌시설 가능
- 부처님만 모시면 불공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는 상담 후 절충

011)843-567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온천장 근교
- 법당, 삼존불, 지장 108불 교통 및 조건 최적
- 평수 45평
- 큰방 2개, 대형 응접실, 주방
- 부산 포교적지, 사워시설 주차가능
- 보증금 3000만원 월 20만원 2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800만원

011)563-4454
051)552-4454

사찰 터 안내
- 위치 : 감천 관내 (사찰허가 필)
- 부지 900평 중 대지 200평 답사 후 절충 (구 절터)

011)808-8370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시 근교
- 대 지 : 900평
- 법 당 : 40평(목재)
- 요 사 : 80평
- 양도가 : 6억
※ 산세수려하고 계곡 좋음

※ 사회복지 법인 (실버타운) 및 서울소재 근사찰 인수할 분
※ 인수자금 : 8억필요
- 기타사항은 전화문의 요망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계명산
- 대지 : 250평
- 법당 : 30평, 2층 정자 30평 (요사채겸) - 조립식
- 가액 : 임대료 3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1800만원
- 특징 : 교통편리, 장승확보(다량) 법당안 그림 100여점(달마그림)

043)847-2545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에서 30분거리 (경북 고령)
- 대지 : 476평
- 건물 : 법당 - 37평, 요사채(1층, 2층) - 148평 (요양 및 수련시설)
요사채(별도) - 17평
- 부속토지 : 전,답 - 1,500여평
- 금액 : 3억원정

016)504-3394
054)954-2450 김영화

사찰 안내
- 부지 : 일만평
- 용도 : 사찰 및 사회복지시설
- 위치 : 관악산 사당역 부근
- 자연녹지 주거지역
- 가액 : 평당 25만원

011)241-0408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

상담문의 원주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청강 대 진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행하여 많은 분들께 복왕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하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8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플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케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란백액, 매실, 머위 등)

■ 현대해상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편두통, 신장염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주요 종단 총무원장 신년사

민족화합·국운융성 새시대 열어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새해에는 온 인류의 축제인 월드컵과 아시아인의 체육행사인 부산아시안게임이 개최되고 우리 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민족이 더욱 더 화합하고 결집하여 국내외의 중대사를 잘 치루어 국운이 융성하고 민족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저마다 간직하고 있는 무지와 탐욕 그리고 질시의 편협한 마음을 한 순간에 버리고 지혜와 자비의 밝은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나눔과 베품 실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우리는 그 동안 무한경쟁속에서 갈등과 다툼과 분열만을 계속해 왔습니다. 새해부터는 나와 우리만을 생각하고 위하는 소아적이고 편협적인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화해와 협력의 장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나눔과 베품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실의와 절망에 빠져있는 이웃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월드컵·대통령 선거 발전계기 삼자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새 해에는 월드컵이 개최되고, 새 대통령 선거가 있는 등 매우 활기찬 한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6월에 개최되는 월드컵은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축구축제입니다. 일본과 공동 개최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비교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역동성을 활용, 국가의 발전 동력으로 삼아 나간다면 국가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새해에는 남북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국민모두가 평화통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더 크고 넓고 둥근마음으로 살도록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대정사



새해에는 특히 종단적으로 회당 대종사 탄신 100주년이라는 대작불사가 계획돼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한일 공동 월드컵 축구대회라는 민족사적 중대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진언행자와 불자,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와 화합정신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보다 더 넓고 크고 둥근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맡겨진 임무를 회향해야 할 것입니다.

중생고통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야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부처님께서는 늘 중생의 고뇌와 아픔을 아시고 자비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자(慈)는 인간과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비(悲)는 이웃과 주변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고 나누는 마음입니다. 자비의 정신이야말로 나와 남을 우리로 묶어주는 거룩한 사랑의 빛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함께 사는 삶을 살도록 새해 불자들은 투철한 믿음으로 자비와 지혜를 등불로 삼읍시다. 작은 샘물이 모여 큰 연못을 이루듯이 지혜의 샘이 마르지 않게 믿음의 뿌리를 건실하게 합시다.

특별기고



일지스님
경학회 회주

日 천황가와 백제인 혈통

구랍 23일, 68세의 생일을 맞은 아키히토 일왕은 "나 자신 간무(桓武) 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武寧王)의 자손이라고 '속(續)일본기'에 기록돼 있는 사실에, 한국과의 연(緣)을 느낀다"고 발언, 일본 천황가에 백제인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간 고대 한국이 일본에 끼친 불교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은 방대한 관련 사료와 문화의 검증을 거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신성한 혈통을 내세우는 일본의 국가적 상징인 천황이 자신의 혈통이 한반도와 관련 있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일 양국의 언론이 이를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도 문화나 종교의 차원이 아닌 가장 인간적인 차원에 속하는 혈통의 유래를 일왕 자신이 직접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 먼 과거로부터 반복된 한국과 일본의 숙명적인 애증의 중심에 불교가 있다. 역사시대의 한일교류는 바로 불교를 통해서 문화와 지혜의 꽃을 피웠다. 한일관계 이면에 자리 잡은 광대한 역사의 면적은 바로 한국과 일본의 불교사의 면적인 것이다.

불교가 사상·문화 전수

일본불교의 공식적인 전래는 538년 백제 성왕이 "불상과 경론을 일본에 보내왔으며 불교가 제법(諸法) 가운데 가장 수승한 가르침임을 알리는 글을 전했다"는 〈일본서기〉의 기록과 여러 고문헌에 의해서 확인된다. 일본은 불교문화와 사상적 저력을 갖춘 백제로부터 불교를 전수 받은 이후 비로소 문자와 미술, 사원 건축, 먹과 종이의 사용법 등을 비롯한 문화와 기술을 갖게 된다. 불교를 통한 문화와 기술의 전수는 현재까지도 일본불교 문화의 정수이며 동시에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나라(奈良) 동대사와 법륭사에 잘 남아있다. 동대사와 법륭사를 세운 스님들이 바로 백제계 도일인(渡日人)의 후손인 료벤(良辨)과 일본불교사에서 보살로 추앙받는 교끼(行基) 스님이며 법륭사는 고구려에서 일본에 파견된 담징 스님의 불교예술이 면면히 살아있는 거찰이다. 고대일본에 불교의 학문과 예술을 전한 나라는 백제뿐만이 아니어서 고구려의 스님 혜자(慧慈)는 오늘날까지 성인처럼 받드는 성덕 태자의 스승이었으며, 신라 원효계의 학승들은 일본에 파견되어 일본인의 사유방법을 형성시킨 화엄사상의 교사로 활동하였다.

나는 지난해 11월 중순 열흘 동안 교토와 나라의 큰 절들과 불교계통 대학과 연구소를 방문한 일이 있다. '나라'라는 지명 자체가 한국어의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를 의미하며 이 나라라는 지명은 원래 범어에서 '인간이 사는 곳', 즉 인간주처(人間住處)를 의미하는 "nara"에서 유래한다. 그만큼 유명한 불교도시, 나라의 긴테츠 전철역 앞에는 백제계의 스님, 교끼(行基)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교끼 스님은 국립사찰에는 가볼 수조차 없었던 민중들을 위하여 몸소 다리를 놓고 보시하며 민중을 위한 절을 세운 민중의 큰스님이다. 항상 수천, 수만명의 신자들이 스님 주변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교끼는 조정으로부터 불온한 인물이라는 혐의를 받을 정도였으나 이미 생전에 보살이라는 칭호로 불리웠던 인물이 바로 그 사람, 교끼인 것이다.

불교의 전래에 의해서 비로소 학문과 문화에 눈을 뜬 일본은 7~8세기경에 이르러 고대 천황제라는 율령체제(律令體制)를 정비하고 국가진호(國家鎭護)를 추구하는 국가불교를 확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대 한국에서 건너간 스님들의 지도로 세워진 수 많은 가람들과 불교교육기관들은 현대까지 일본불교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단언하건대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불교를 통해서 서로를 발견하고 교류하기 시작했으며 이 모든 것은 불교로부터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필자가 언급한 내용은 전혀 '감춰진 이야기'가 아니다. 1984년 9월 당시 일본수상 나카소네는 상고시대의 한일교류사에서 "한국은 스승이며 일본은 생도"라는 명제로 확인한 적이 있다. 이 명제는 이미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누누이 외쳐온 것으로 새로울 것도 없는 사실이다.

역사 바로 찾기 노력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은 간단한 명제의 이면에는 매우 광범위한 시간적, 공간적 면적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교계와 학계는 그간 몇 권의 번역서와 일본 자료를 베낀 논문 몇 편으로만 만족할 뿐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너무 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이 명백하고 준엄하며, 광대한 역사의 면적과 굴곡을 우리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독하며 오늘의 화두로 되살려 새로운 세기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창조적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청송 영천암 미혼모시설 추진

정일스님 초청 백고좌법회

경북 청송의 작은 암자 영천암(주지 승만)은 구랍 22일 '미혼모의 집' 건립발원을 위한 백고좌법회를 열었다.

이번 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 초청법회를 시작으로 영천암은 향후 미혼모를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주지 승만스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법회 공덕으로 미혼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고통속에 헤매이는 미혼모들을 부처님의 바른 법으로 인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백고좌 법회를 꾸준히 열어 지역에 봉심을 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일스님은 법문을 통해 "승만스님의 원력이 진실되고 간절하니 모든 불자들이 스님의 뜻을 받들어 보시행을 실천하라"면서, "육바라밀 행을 생활속에서 꾸준히 행하는 참된 불제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승만스님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포교 활성화를 위해 미혼모를 위한 사회사업과 불자들을 위한 도서실 운영을 발원하고 있으나 불서와 법문 테이프, 법문 비디오, 불교관련 CD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054)873-2724

청송=천미희 기자

울산교육원 동문회 중고생 17명에 장학금

울산불교교육원 동문회(회장 김민회)는 구랍 20일 울산 남구 신정동 불교교육원 4층 제1강의실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날 동문회는 경주 경희학교에 재학중인 이충걸군을 비롯해 울산시교육청에 의뢰해 추천받은 17명의 중·고교생에게 각각 20~30만원씩 총 4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제19기 졸업식에 앞서 가진 장학금 수여식의 기금은 지난 11월 28일 하루 동안 문예회관 내 쉼터 레스토랑에서 연 일일찻집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한편 장학금 수여식에 이어 55명의 제19기 졸업식과 다도초급반(13명) 수료식도 함께 거행됐다. 김재경 기자

전주 대원사 삼존불 봉안

전주 대원사는 구랍 24일 선화종 종정 의천스님을 증명법사로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여래종 종정 인왕, 미주불교 종정 금타, 원각종 종정 혜철, 조동종 총무원장 혜광스님과 용화불교 법열 교령을 비롯 재가불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해인사 신행테이프 제작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주지 세민)는 초발심자들의 신행을 돕기 위해 '불교입문' 테이프를 제작, 판매한다.

총 6개로 구성된 '불교입문' 테이프는 해인사 대덕스님이 직접 강의한 제1회 불교입문 강좌의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조계종 신도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불교의 수행법(유나 원융스님), 불교란 무엇인가(지오스님), 불자의 신행생활(혜능스님), 불교와 인생(현종스님), 생애와 기본교리(원철스님), 절을 찾아서(관암스님) 등 불자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김재경 기자

에밀레 전자신종 타종 구미시 새해 1일 자정

첨단전자산업도시인 구미시의 '에밀레' 전자신종이 임오년 새해를 맞아 타종된다.

구미시는 새해 1일 자정을 기해 동락공원에 설치된 전자신종 타종식을 개최한다. 전자신종은 대구은행이 6억6천만원을 들여 숭실대 정보통신학과 배명진 교수(45)팀에 의뢰해 지난해 제작, 구미시에 기부체납한 것으로 높이 4.1m, 직경 2.5m, 무게 3.6t 규모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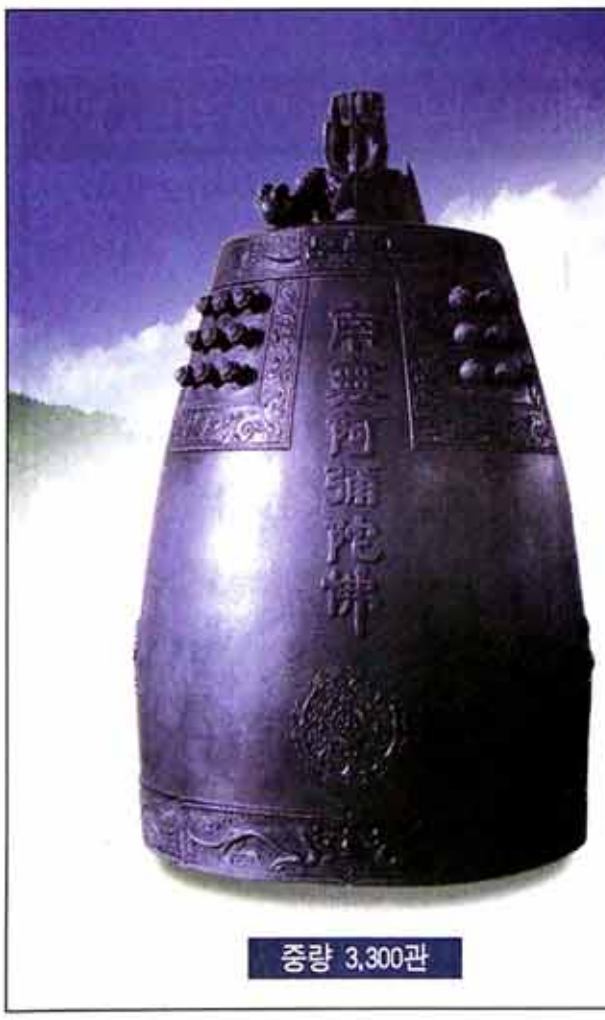
전주교도소 성불회 '송년의 밤'

전주교도소 불자 교도관들의 모임인 성불회(회장 김도상)는 구랍 26일 전주시 도란도란뷔페에서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교도소 성불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한편 대불청 전북지구(회장 정인택)는 구랍 20일 전주교도소 대강당에서 회원 및 재소자 불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부산불교교육원 수행학교 수료식

부산불교교육원(원장 성재도)은 구랍 23일 김해 은하사에서 200여명의 교육생이 동참한 가운데 제1기 불교수행학교 수계 및 수료법회를 가졌다. 227명의 입학생으로 9월 3일부터 시작된 불교수행학교는 4개월 동안 18명의 법사 스님을 초빙, 불교의 수행에 관한 강의를 마쳤다.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정신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주민 50여명 108배로 '새해맞이'

봉화 農禪도량 관음사에선

"100일 기도 중 18일째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봉화군 상운면 농선(農禪) 도량 관음사의 새해 첫날은 우렁찬 독경 소리로 시작된다.

동짓달 초하루(구랍 15일)에 동안거 백일기도를 입재한 관음사에는 매일 50여명의 불자들이 나와

6년째 동안거 백일기도

두 시간의 기도에 동참한다. 대부분이 인근지역의 촌로(村老)불자들이지만 기도하는 자세만은 사뭇 진지하다. 법당에 나오는 불자 외에 전국에서 400여 불자가 같은 시간에 경전을 펴 들고 공간을 초월해 기도에 동참하기도 한다.

관음사의 올 동안거 백일기도 주제 경전은 〈불설무량수경〉. 매일 경전을 한 단락씩 읽고 사경하고 108배를 하는 게 기도의 주된 내용이다. 특별한 발원도 있다. 관음사 법보전에 한글대장경 모시기를 서원한 것이다. 관음사는 동안거 기도에 동참한 불자는 반드시 보시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은 ARS 전화를 통한 이웃돕기에 동참해 왔다. 올해도 이 같은 무주상보시를 하는 가운데 따로 한글대장경 봉안 불사도 추진한다.

"6년째를 맞은 동안거 백일기도는 농한기의 농촌불자들이 신심을 다지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동참해 본 불자들이 다음해에는 반드시 도반 1명을 데리고 올 정도로 동안거에 만족합니다. 사경을 위해 한글을 배운 80대 할머니가 계실 정도로 불자님들이 열심히 정진합니다."

관음사 불자들은 자신의 수행을 가다듬고 남을 돕고 또 한글대장경을 모시는 3가지 원력을 실천하며 새 해를 맞는 셈이지만 주지 농선 법사는 "원력은 크고 많을수록 신심이 장해지는 것"이라며 어느 해보다 보람 있는 동안거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봉화 농선도량 불자들은 동안거 백일기도를 통해 농한기 수행정진을 하고 있다.

관음사는 농사와 수행을 함께하는 '전천후 농촌포교 도량'이다. '오지(奧地)'라 할 수는 없어도 궁벽한 농촌일 수밖에 없는 이 곳에

한글대장경 봉안 서원

서 포교 원력을 세운 농선법사는 가장 먼저 트랙터를 구입했다. 농사철이면 인근 부락을 돌아다니며 밭갈이와 모내기 울력에 나서고 동양란과 적상추 등 직접 시설작물을 재배하기도 한다. 서로 품앗이를 하며 정답게 농사를 짓는 동안에는 논두렁 밭두렁이 법당이 된다.

반면 동안거 백일기도는 경전공부와 사경, 참회, 참선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새해 첫날, 관음사의 동안거 기도는 초반전에 불과하지만 다른 해와 달리 한글대장경 봉안을 발원한 불자들의 기도 열기는 뜨겁기만 하다.

봉화=임연태 기자

불교생협 법인 4월 창립

인드라망 공동체, 2월중 발기인 모임

불자 가정에 무공해 유기농산물을 제공할 불교생활협동조합 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스님)는 최근 17명의 위원이 참여한 생협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유억근)를 결성, 10일 토론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생협운동에 나선다.

생협준비위는 2월중 30~40인으로 발기인 모임을 갖고, 3백 명 이상의 조합원과 3천만 원 이상의 출자금을 모연해 4월중 생협 법인을 창립할 계획이다.

98년부터 벌여온 도시와 농촌, 자연과 인간의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도농공동체 운동을 추진해 온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그동안 생협 사업부, 매장협의회, 물류센터 등을 운영하며 불자 유기농 생산자들과 도시 불자들을 묶어 회원관리를 해 왔다.

이정호 사무처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협이란 매개체를 통해 상호 신뢰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02)733-1884

김재경 기자

흥국사 노사나불괘불탱 '보물지정'

18세기 최고의 화승(畵僧)으로 꼽히던 의겸 스님이 조성한 조선후기 불화 3점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전남 여수 흥국사에 소장된 노사나불괘불탱, 수월관음도, 십육나한도를 보물로 지정했다.

본존불만을 전체 화면에 꽉 차도록 그린 단독불화 형식의 노사불불괘불탱은 18세기 최고 화승으로 꼽히던 의겸 스님과 비현 스님이 참여해 그린 괘불로 후에 보수하면서 기록한 화기 등이 남아 있어 당시 괘불 제작의 실태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다. 불화에 수묵화 기법을 도입한 의겸 스님의 화풍을 잘 보여주는 십육나한도는 이후 조선후기 십육나한도의 본보기가 되었다.



◇보물로 지정된 노사나불 괘불탱.

권형진 기자

경주 양동마을 등 2곳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경주 월성 양동마을'과 '남해안 일대 공룡 화석지' 등 2건을 새로 제출했다.

경주 양동 마을은 중요민속자료 189호로 지정된 조선시대 전통 마을이며, 남해안 일대 공룡 화석지는 중생대 백악기(약 5천만년 전)의 세계 최대 규모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다.

이로서 우리 나라가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공주 무령왕릉 등 모두 8건으로 늘어났다. 권형진 기자

부산신도회 5일 신년하례

부산불교광역신도회(회장 강선태)는 5일 오후 4시 부산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신년하례회 및 축하 리셉션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역권에서 활동하는 각 사찰 주지스님 및 신도회장과 신행단체대표 등 부산불교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051)853-2021

불교계 "성탄축하"

현수막 걸고 트리점등 스님들 성당·교회 방문

크리스마스를 맞아 전국 사찰의 스님들이 축하 현수막을 설치하고 성당을 방문하는 등 종교화합 분위기가 이어졌다.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은 구랍 22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 축하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대구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스님)은 같은 날 아기 예수님 탄생 축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갖고, 350만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 화성사 주지 도상스님은 구랍 24일 중구 남산동의 '대광맹인회'를 찾아 라면, 화장지, 쌀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원주 구룡사(주지 원행)는 구랍 22일 원주시내를 비롯 구룡사 입구 등에 '예수님 탄생' 축하 현수막 6개를 내걸었다.

광주시 대각사(주지 도산), 증심사(주지 영조) 역시 구랍 25일 아기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전주 전북불교대학은 구랍 23일 트리점등식을 가졌으며, 서울 구룡사(주지 정우)는 구랍 24일 축하플래카드를 성당과 사찰입구에 붙이고 천주교 포이동 교회를 방문해 난을 선물로 전달했다. 김재경 기자

2002 청소년 영어캠프

현대불교신문사는 불교계 최초로 국제화시대에 필수적인 영어 실력의 기초를 다지고 우리 민족 정서의 원류인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청소년 영어캠프를 개최합니다. 청소년 미래에 뜻있는 많은 분들과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프로그램 일정

- 교육내용
  캐나다인 선생님과 영어-한국어 2중 언어 보조교사가 한빈에 함께하는 수업
  한반에 15명의 소수정원제 수업 *집중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발음교육
  다양한 야외학습(무주 리조트 스키 타기) 및 문화체험(경주 study tour) 학습
  캠프 기간 부다피아 홈페이지(www.buddhapia.com) 통한 학생활동상황 전달
  캠프후 3개월간 E-mail을 통한 영어학습 제공
- 기간: 2002년 1월14일(월)~1월27일(일) (2주간)
- 장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무주리조트
- 대상 및 인원: 10세부터 15세까지 초, 중등부 각 40명 선착순 마감
- 참가비: 1,080,000원(30만원은 신청시 납부)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와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 접수문의: 전화 (02)722-3366 팩스 (02)738-7675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buddhapia.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최: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CIG Education ●협 찬: 일품여행사



◇총지종은 창종 30년을 맞아 가사·법의를 새롭게 제작, 구랍 26일 봉대불사를 봉행했다.

총지종 새 가사·법의 봉대불사

불교 총지종(통리원장 혜암)은 구랍 26일 부산 정각사 서원당에서 창종 30년만에 가사와 법의를 새롭게 제작하고 가사·법의 봉대불사를 거행했다.

이날 종령 묵정 대종사와 혜암 통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정 대정사의 교상과 사상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해 제작한 법의와 가사가 대종사를 비롯 64명의 아사리들에게 봉정됐다.

이날 가사·법의 봉대식은 창종 30년을 맞아 창교절인 구랍 24일까지 진행된 가사 법의 제작 원만 회향을 위한 불공 회향일에 맞춰 열린 행사로 97년부터 진행되어온 가사·법의 제작을 마무리하고 총지종 중흥의 새로운 기틀을 다진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이날 봉대불사에서 혜암 통리원장은 "총지종의 교상과 사상을 현대적 의미로 정확히 표현한 법의를 제작한 것은 총지종 교단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천안경찰서 불자회 발족

강원경찰청 경승실 준비

경찰서 내 개신교 직원들의 지원과 환영 속에 경승실이 개원되고 경찰불자회가 발족돼 종교화합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구랍 20일 충북 천안시 업성동에 소재한 천안경찰서 4층 대강당. 경승실장 법혜 스님, 총화종 교육원장 칭해 스님, 천안시 사암연합회장 대원스님 등 스님 22명과 조계종 포교사단 경찰포교특별위원회, 전국경찰불교회 관계자 등 사부대중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천안경찰서 경승실 개원 및 불교회 창립 법회'에는 개신교 신도인 한상익 서장과 기독교 신우회 회원들도 자리를 함께 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 경승지단(지단장 원행스님)은 구랍 27일 춘천 베어스타운에서 총회를 열고 연내 지방청 내 경승실을 개원하고 불교회를 결성키로 했다. 현재 강원도 내 경승실은 강릉, 속초 원주경찰서 등 3곳뿐이다.

김중근·김재경 기자

불자들의 군포교 원력 '호국 하나로법당' 개원

불자들의 원력이 모아진 군 법당이 세워져 화제다.

조계종 포교사단, 고양시 보현가족, 서울 정심사 군포교 후원회 등은 구랍 23일 육군 제25사단 71연대 3대대에서 '호국 하나로 법당' 개원식 및 장병 수계법회를 열었다.

이번에 개원한 '호국 하나로 법당'은 30여평 규모에 난방시설 및 오디오 시설을 갖추고 있다. 새 법당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4평 남짓한 '호국 일로암 법당'은 비가 새고 난방시설이 없어 법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90여명이나 되는 불자 장병을 수용하지 못했었다.

신행단체인 고양시 보현가족과 목동아파트 들들회, 정심사 군포교 후원회, 서울 진관사가 후원에 나섰고, 포교사단 포교사들과 독지가가 힘을 보태면서 3500여만원을 마련, 법당을 건축했다.

한명우 기자

2002학년도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30명 ■통신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각 종단 승려 포교사 · 30세이상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통신80명		
	4년	■통신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4년	■주간30명 ■야간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30명		

2.학교연혁

1989.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제9회 졸업생배출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2. 2. 제11회 졸업생 배출(예정)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본과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2002년 1월 25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02)511-2026-8 FAX.02)511-2028
인터넷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376-1321, 132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 화 불 교 대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 ■석사·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 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건강진단서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유학생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여권용사진 3매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2년 1월 18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문의처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주소: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 화:25-6798167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전화 : 02-511-2026~8 팩스: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북인도 지역의 불교 개종바람은 제2의 인도불교 중흥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법당에서 입정중인 인도불자들.

되살아나는 인도불교

'집단개종' 들불처럼 번져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인도 불교가 재 고향에서 다시 싹을 틔운 것은 지난 1956년. 이제 고작 45년 남짓 된 '새내기 종교'이다.

현대에 들어와 인도에서 불교를 부흥시키려는 움직임은 1891년 스리랑카의 다르마팔라(Dharmapalai 스님이 설립한 마하보디 협회(Mahabodhi Society)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인도의 여러 도시와 성지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현대 인도불교의 막을 연 1956년의 집단개종은 힌두교의 억압에 대항하여 카스트 제도 폐폐와 불가촉천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평생을 바쳐 온 암베드까르 박사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

암베드까르의 사후에도 불교 개종의 물결은 이어져 수백만의 달리뜨(전 불가촉천민 집단)가 불교로 개종했다. 하지만 암베드까르에 의해 계기가 마련된 인도 불교의 부흥은 지역적으로 마하라슈트라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몇 개 주에 제한되었다. 그리고 불교도들의 출신상으로는 암베드까르의 출신 카스트인 마하르(Mahar 카스트를 크게 뛰어넘지는 못했다. 인도 불교협회(Buddhist Society of India)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인도의 불교인구는 1천5백6십만. 이들 중 대다수는 마하라슈트라 지방의 마하르 카스트 출신자들이다.

기층민 중심 "권익신장" 귀의많아
출가자 · 재가법사도 꾸준히 늘어

그러나 최근 들어 인도 불교의 모습에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바로 불교의 지역적 확산이 그것이다. 북인도의 불교 성지를 중심으로 펼쳐진 꾸준한 포교활동도 요즈음에 그 결실을 맺어, 보드가야 부근에서 개종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북인도 지역으로의 불교 확산은 달리뜨를 비롯한 하층민들의 권익 신장을 내세운 대중당(Bahujan Samaj Party)의 세력 확대에 어느 정도는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대중당 지도부는 불교의 포교와 개종을 알게 모르게 후원해 왔으며, 대중당의 창립자이며 당수인 깐쉬 람(Kanshi Ram)이 불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불교도들 사이에서는 '공개된 비밀'이다. 그러나 불교신도가 수적으로 워낙 적은 북인도 지역 중심의 정당인지라, 공개적인 불교 지지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한편 마하라슈트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불교기반 정당인 공화당은 그 동안 북인도 지역에서는 얼 세를 면치 못해 왔으며 힌두교 정당의 파상공격에 조직마저 와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 11월 우디뜨 라즈씨를 비롯한 수만명의 집단개종을 측면 지원하면서 델리와 인근지역에 지지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포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집단 개종 뿐 아니라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출가자의 수도 인도 불교에 서광이 비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난 9월에 델리에서 25명이 수계식을 갖고 비구로 출가한 것을 비롯하여 인도 각지에서 평생을 불법에 헌신하고자 하는 불자들의 출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개인 형편상 출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법사'가 되는 길이 열려있다. 요즘 들어 재가 법사가 되고자 하는 불자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인도 뿌나=이지은 통신원

면면히 이어지는 청정수행

'중국불교는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거의 쇠퇴했기 때문에 고승은 없을 것이다.' 한국 불교계의 이러한 추측과는 달리 중국불교계에는 아직 쟁쟁한 고승들이 많다. 다만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 옛날 중국의 선사들과 같은 할(喝) 방(棒)을 할 수 없을 뿐이다.

중국불교는 문화대혁명(1966~1976)을 겪으면서 많은 고승을 잃었다. 그러다보니 소림사, 법문사, 백마사 등 큰 사찰의 감원(주지)은 대다수가 30~40대 스님이다. 현재 중국 불교를 이끄는 고승들은 대부분 허운 대사의 제자들이다. 문화혁명 기간에 엄청난 탄압을 받았지만 두타행으로 이를 극복했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깨달음의 빛을 감추고 세속에 몸을 숨긴 채'(和光同塵) 중국 불교의 부흥을 위해 간절한 서원을 세우고 있다.

중국불교와 현대 고승들

수십년째 묵언 '자비보살'



■임제선사 방장 유명스님

임제종 제45대 전인(傳人, 종정) 유명(有明) 스님은 항상 온화한 웃음으로 신도들을 맞아 '자비 보살'로 불리운다. 1916년 하북성 평산현에서 출생, 1923년 7세의 나이로 평산현 암수사로 출가했다. 제방의 선원에서 수십년간 참선한 유명 스님은 임제 선사의 유지가 남아있는 임제선사의 복원불사에 매진해 왔다. 1989년 본환(本煥) 노사로부터 임제종 제45대 전인의 의발을 전수받은 유명 스님은 1990년 임제선사(臨濟禪寺) 방장에 추대됐다. 평생 청빈한 생활과 엄격한 계율을 수지하고, 인욕과 하심을 수행해 온 유명 스님은 수십년간의 묵언정진으로 유명하다.

불·의학 겸비…제자 1만명



■흥교사 주지 상명 노화상

협서성 흥교사 주지 상명(常明) 노화상은 1916년 협서성 함양에서 출생했다. 1937년 종남산 자죽림(紫竹林)에서 불진(拂塵) 노화상을 은사로 출가해 10여년간 불학과 의학을 공부해 비범한 경지를 보였다. 1953년 북경 광제사에서 근대의 고승인 허운 노화상을 참배했으며, 강소성의 고승 래과(來果) 노화상도 천견해 가르침을 받았다. 세계의 여러 불교국가와 불학 및 문화교류에 나서 국내외 제자가 승속을 막론하고 1만여명에 이른다.

위법망구 허운 도풍 계승



■운문선사 방장 불원스님

허운 대사의 주석처인 운문선사를 지키고 있는 불원(佛源) 화상은 1922년 호남성 익양시에서 태어났다. 17세에 익양 회룡산 누하사에서 출가했으며, 1941년부터 형양 나한사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불학을 연구했다. 1951년 봄 운문사에서 허운 화상을 친견하고 깊은 가르침을 받았다. 1952년 2월 19일 대웅전에서 왼쪽 무명지를 태워 공양하며, 부모와 스승의 은혜에 보답했다. 잠을 자지 않고 공양을 거르는 등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허운 노화상의 도풍(道風)을 계승, 진작시키고 운문 고찰을 복원을 위해 헌신했다. 1984년부터 광동성불교협회 부회장, 중국불교협회 상무이사를 맡고 있다.

마조선사상 재조명 활발



■보봉사 방장 일성스님

위앙종 제 10대 종정인 일성(一誠) 스님은 강서성 운거산 진여선사 및 보봉사 방장이다. 마조 도일 선사의 주석도량인 보봉사에서 마조 선사상의 재조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27년 호남성 망성현에서 출생, 1949년 망성현 세심사에서 출가했다. 1956년 강서성 운거산 진여선사에서 허운 노화상을 모시고 각고의 수행에 매진했다. 1959년 성복 대화상으로부터 위앙종의 법을 받아 제10대 전인이 되었다. 문혁 당시의 고초를 소식(素食)으로 견디며, 불철주야 독경과 참선으로 용맹정진한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93년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94년 강서성 불교협회 회장에 추대됐다.

북미 불교회 회장직 맡아



■정토선 상징 관정스님

중국 정토선의 상징인 관정(寬淨) 스님은 1924년 7월 7일 중국 복건성 보전현 성광진 동대로에서 출생했으며, 15세에 허운 대사의 제자가 되었다. 17세에는 광동성 남화사에서 구족계를 받았고 17세에 운거산에서 허운스님으로부터 정법안장을 계승했다. 1967년부터 6년 반 동안 선정에 들어 서방정토를 참관했다. 1982년부터 미국에 가서 불교 포교에 매진해 북미불교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명찰협서성 법문사 복원



■법문사 방장 정일스님

1922년 강소성 숙천시에서 출생한 정일(淨一) 법사는 9세에 책을 읽고, 15세에 농사 일을 했으며, 19세에 출가했다. 1948년 공동 운문사에서 선종의 태두인 허운 노화상을 3년간 가까이서 모셨다. 이 때 심지(心地)를 밝혀 선종과 화엄을 가장 존승하며 닦았다. 1987년에 법문사 복원불사 중 부처님 진신사리가 출현에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본사 중건 불사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1994년 부처님 진신사리를 태국으로 모셨으며, 1994년 법문사 방장에 추대됐다. 현재 중국불교협회 이사, 협서성불교협회 상무이사를 맡고 있다.

중국 생활불교 보급 앞장



■백림선사 방장 정혜스님

1932년에 출생한 정혜(淨慧) 화상은 3세에 동진 출가했다. 문화대혁명으로 존폐위기에 놓였던 중국 불교를 살린 허운 대사의 선농일치(禪農一致) 사상을 이어, 운문종의 13세 종통을 계승했다. '각오인생(覺悟人生), 봉헌인생(奉獻人生)'이란 기치아래 1991년부터 10회째 개최하고 있는 생활선 대회에는 매년 북경대 학생 등 300여명 이상이 참석하고 있다.

개방후 불교세 급신장…대찰 복원불사 '바람'

중국불교 특징

중국 불교는 문화대혁명 기간(1966~1976) 동안 사찰에서의 모든 신앙활동이 금지됐다. 하지만 1978년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면서 종교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기 시작, 그 가운데 전통종교인 불교가 가장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중국내에는 3만여개의 사찰, 25만여명의 스님, 1억3천만여명의 불자가 있다.

현재 중국불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륙의 불교는 남부가 북부보다, 동부가 중서부보다(티베트지역 제외) 활발하다. 그 중 동남연해지역의 복건 절강 강소성 등 지역이 매우 흥성하며, 유명한 대찰이나 명찰들도 대부분 회복 또는 재건되고 있다. 특히 중국 4대 불교 명산지역으로 불리는 오대산 문수보살도량, 아미산 보현보살도량, 보타산 관음보살도량, 구화산 지장보살도량 등을 중심으로 신행이 되살아나고 있다. 곳곳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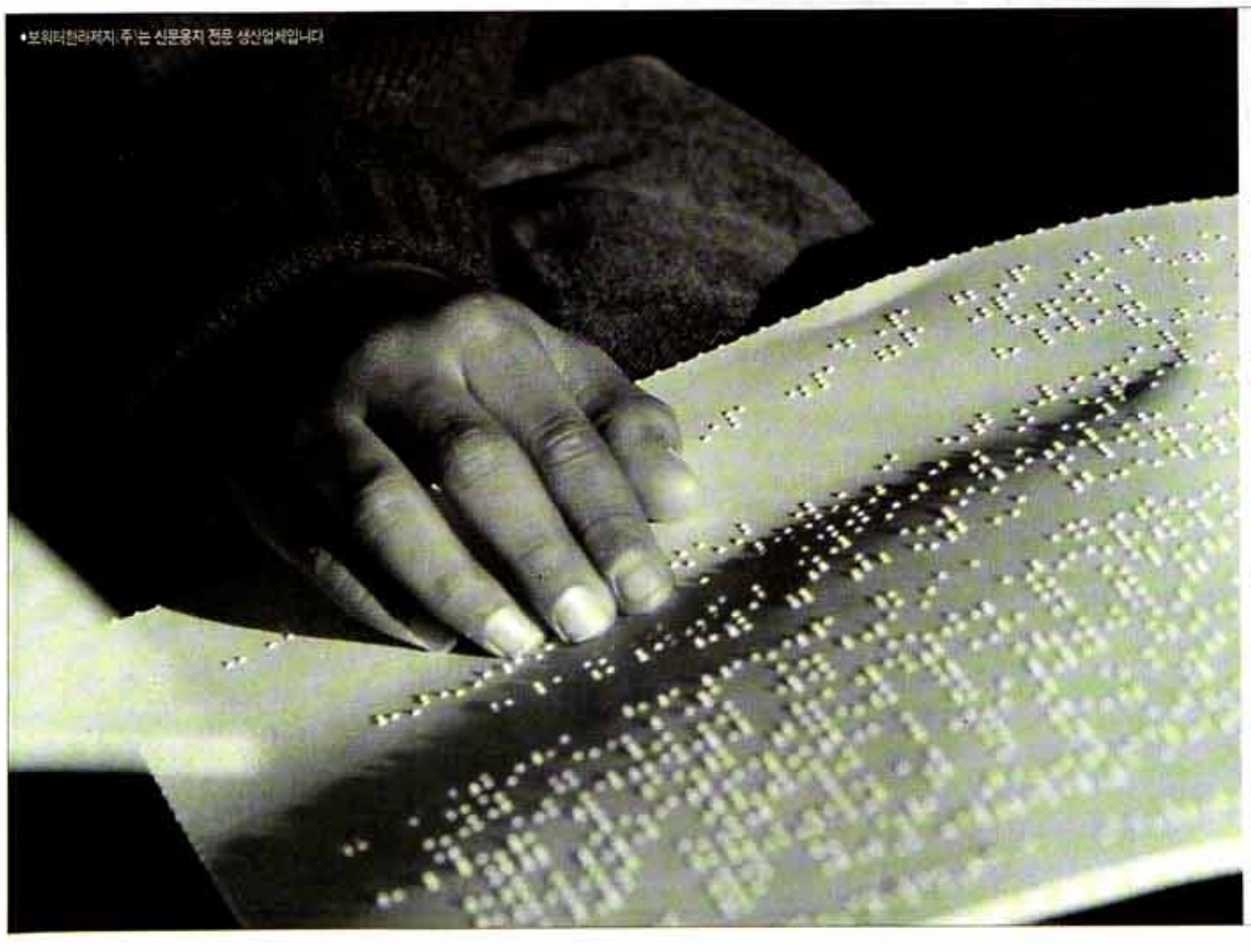
사찰 3만 · 스님 25만
인재 육성 · 사회봉사 강조

미륵보살도량을 건립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중국불교의 또하나의 특징은 사찰 기능의 확대다. 법회와 불사중심의 기능에서 학승을 양성하고 사회봉사의 기능을 갖춘 사찰로 활발히 변모하고 있다. 특히 중국불교협회는 현재 많은 학승들의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에 등록한 불교대학(불학원)만도 36곳이나 된다.



◇중국하북성 백림선사에서 10회째 열리고 있는 '생활선 대회'.

김재경 기자



보워터한라의 생활 속 좋은 종이①

착한 종이

이 종이에서 그들은
파란 바다 위 하얀 범선을 봅니다.
꿋꿋이 세상을 살아갈 희망을 봅니다.
앞 못 보는 이에게 눈이 되어주는 착한 종이-
보워터한라가 만들고 싶은 좋은 종이입니다

좋은 종이는 종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담고 기쁨을 담고 생활을 바꿉니다.

보워터漢拏製紙株式會社
BOWATER-HALLA PAPER CO.,LTD.

•본사 천안남도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 384-1 TEL:(061)460-6114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5-1 홍우빌딩 TEL:(02)567-3576